



슬렁 슬렁

걸어 볼래요?

하남주민들이 말하는 나의 산책길

동부선교회

세이공원

나무

조성경기

지식산업센터

민

민

민

민

2019

문화원과 함께하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III

슬렁
슬렁

걸어 볼래요?

하남주민들이 말하는 나의 산책길

▪ ‘나’의 시선을 공유하는 용기

시선에는 ‘나’의 관심과 생각이 담긴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관심과 생각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그에 앞서 두려움도 갖습니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상하게도 내 생각과 관심을 타인의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맞고, 틀리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새롭게, 낯설게 보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기준이라는 두려움을 떨치고 나만의 생각, 나만의 이야기를 드러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슬렁슬렁 걸어 볼래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하남 주민 7명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7명이 다루는 공간은 겹쳐도 각자가 경험하는 일상의 미묘함과 의미는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지역에 특성이 없다, 모두 천편일률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의 위성도시, 잠만 자는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다른 도시들에 비해 더 지역특성이라고 할 게 없다고 합니다. 지역을 공간으로 바라보고, 장소성에 무관심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경계가 허물어져가는 시대에 지역과 장소를 생각한다는 것은 고리타분해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소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일상을 특별하게, 의미 있게, 재미 있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재미있으면 됩니다. 내년도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면 됩니다.” 라고 선언하며 2017년을 시작으로 3년째 하남에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뒷짐지고 스승스럽게 걸으며 찾았던 것은 어쩌면 스스로의 시선을 되찾는 것,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책에 실린 7개의 이야기는 소박하지만 울림이 있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길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공간을 다시 보게 합니다. 함께 걷기 위한 길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더해진 다음을 기대하게 합니다. 기억하고 싶은 길은 공간 자체는 사라질지라도 장소는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꺼이 용기 내준 7명의 마을큐레이터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 백

▪ 여는 글	03
'나'의 시선을 공유하는 용기	
▪ 슬렁슬렁 걸어 볼래요?	06
▪ 지극히 사적인 길_덕풍, 창우	08
나의 산책길을 소개합니다_강경숙	10
지도에는 없는 나의 산책길_조경희	32
▪ 함께 걷기 위한 길_미사, 덕풍, 한강변	46
늘 그니의 산책길_장순란	48
반려견 별이가 남겨준 산책길_이상숙	72
당쟁이 산책길_임경재	88
▪ 기억하고 싶은 길_고골, 천현	104
천년 은행나무 고골의 노래_강신숙	106
선린촌을 아시나요_박미미	160
▪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182



늘 그녀의 산책
(장순란 마을큐레이터)



반려견 별이가 남겨준 산책길
(이상숙 마을큐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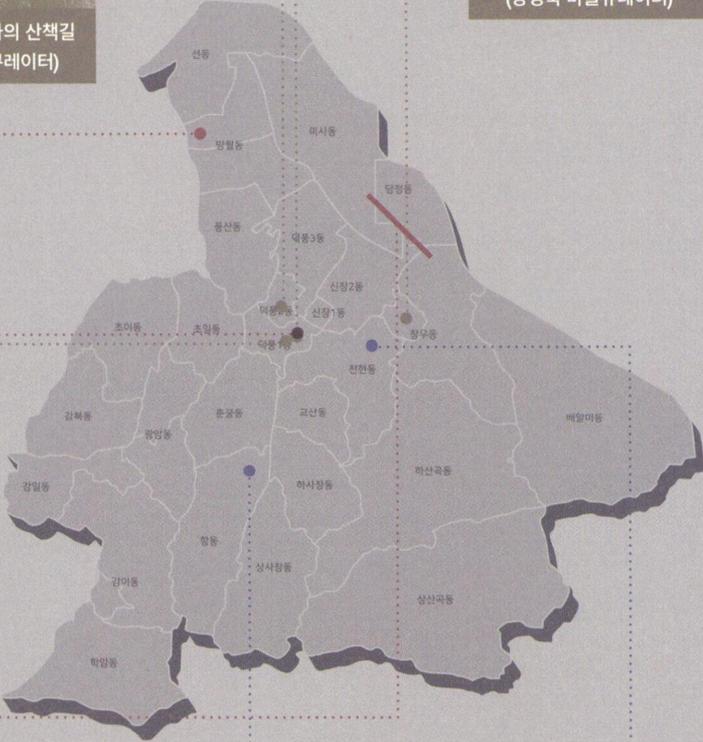
당쟁이 산책길
(임경재 마을큐레이터)



지도에는 없는 나의 산책길
(조경희 마을큐레이터)



나의 산책길을 소개합니다
(강경숙 마을큐레이터)



천년 은행나무 고향의 노래
(강신숙 마을큐레이터)



선린촌을 아시나요
(박미미 마을큐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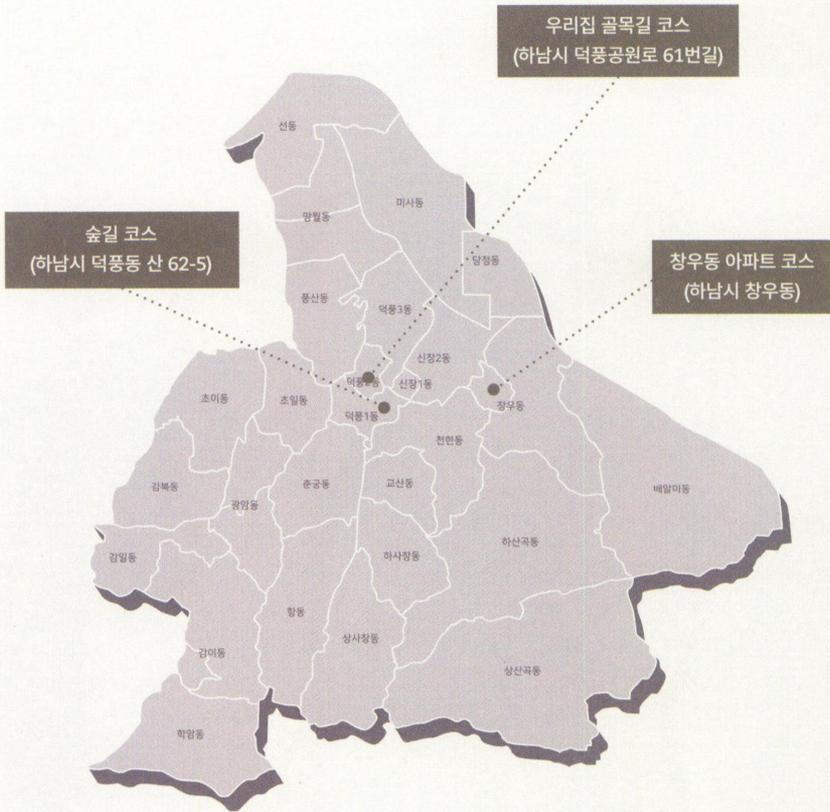
여 백

나의 산책길을 소개합니다

글 강경숙 · 사진 강경숙, 임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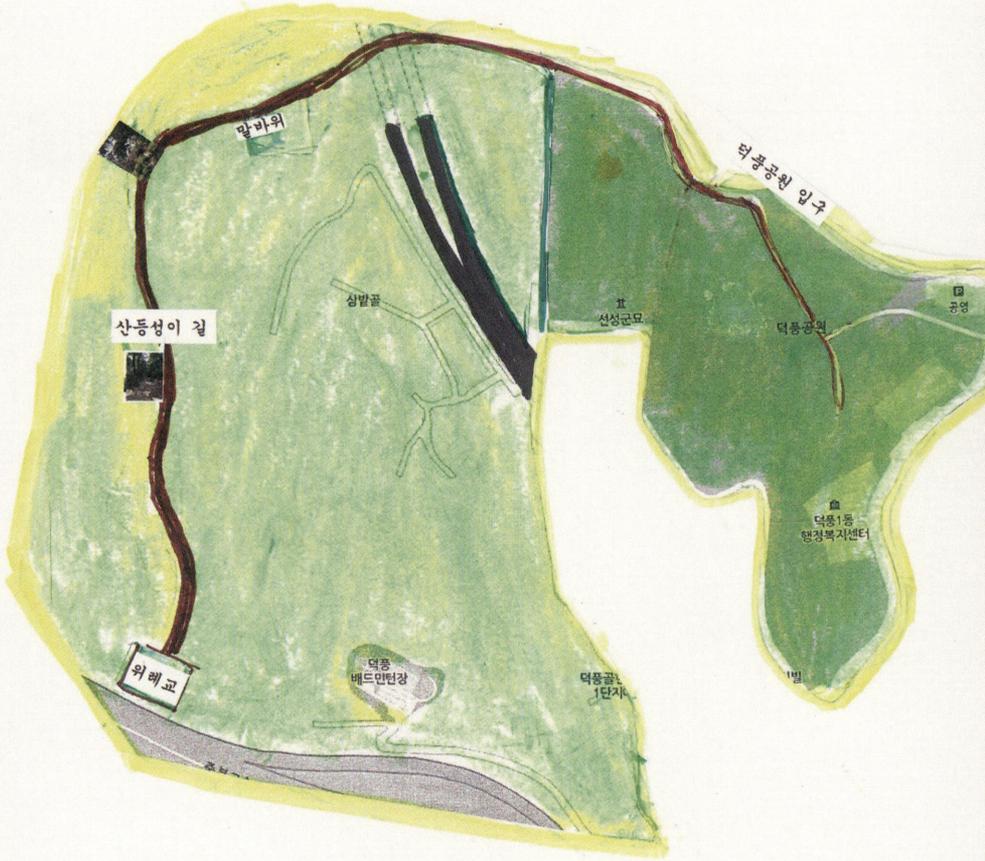


역사, 문화에 관심이 많다. 아이들을 벗어나 교학상장 하면서 마음을 표현해 본다.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나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사진을 찍고 사람들도 만나 하남의 옛이야기를 들어본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원도시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 간다. 먼 훗날 이곳을 찾아오는 이에게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열심히 살고 갔다고 전하고 싶다.



*하남시 지도

- 숲길 코스 덕풍공원 → 선성군 묘와 유해 없는 묘 → 말바위 → 가파른 언덕과 송전탑 → 위례공원 → 위례교
- 우리집 골목길 코스 1코스: 우리집 → (옛 현대슈퍼) 사랑방 → 미성세탁소(언니집 옆) → 우체국 가는 지름길 → 정류장
2코스: (상경주택 경과) → 낙원 떡 방앗간 → 지역주택조합 사무소 (옛 윤미슈퍼) → 현대에너지(충남석유) → 경희약국 → 덕풍시장 → 흙새기마을 → 하남문화원
- 창우동 아파트 코스 창우근린공원 → 작은 놀이터 → 아뜨레



○ 숲길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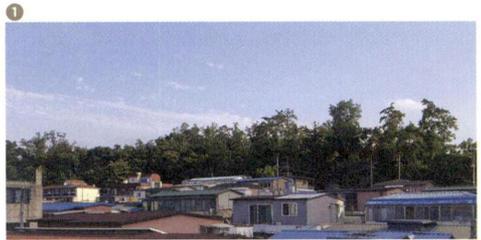
① 마을 뒤로 보이는 덕풍공원

② 마을 입구와 멀리 보이는 예봉산

요즘 걷고 또 걸으며 생각하는 시간이 즐겁다. 자연스럽게 나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게 한다. 나이가 들었다는 느낌이 이런걸까.

내가 처음 언니의 집 하남을 찾아왔을 때는 약 40년 전이었고 그때는 광주군 동부읍 덕풍리였다. 그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한데 재개발이라는 이름이 이 거리에 붙었다. 아침 운동 다니는 덕풍공원 길,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란 풀과 나무들... 나는 추억이 가득한 이 길을 글로 남겨놓고 싶어졌다.

덕풍공원로에 자리를 잡은 우리 집은 하남에서 가장 높은 언덕 꼭대기에 있는 주택이다. 가깝게 남쪽에는 덕풍공원, 동쪽에는 멀리 검단산, 강북에는 예봉산이 병풍처럼 펼쳐있다. 최근에는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우리 집 곁으로 골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계절에 따라 바람의 세기가 다르고, 아침과 저녁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 다르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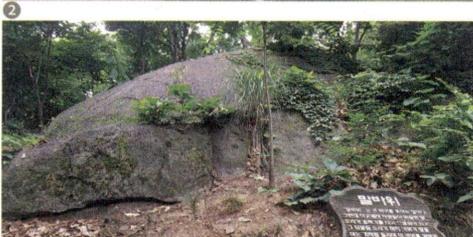


덕풍공원은 언제든 문만 열면 오를 수 있는 정원 같은 곳이다. 공원에서 위례교까지 가는 길은 걷기에 적당해 건강을 위해 자주 가는 곳이다. 큰 길에서 가파른 언덕을 조금 오르면 조선 2대왕 정종의 아들인 선성군과 그 선성군파의 묘가 있다. 인근에는 나라를 위해 전쟁 또는 외국에 나가 싸우다 유해를 찾지 못한 이들을 위한 묘가 있다. 이 분들의 넋을 함께 기렸다는 말을 듣고 의가 있는 가문이라 생각했다. 이곳을 지나면 짙은 숲 향이 나기 시작한다. 예전엔 봄이면 아카시아 향기가 온 마을 덮였었는데 지금은 군데군데 몇 그루의 나무가 남았을 뿐이다. 아침에 문을 열면 그윽했던 향기가 그립다.

말바위 가는 길엔 ‘하남 덕풍골 유적’이 있다. 자연을 숭배한 우리 조상들은 둥근 알을 태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주몽과 신라의 박혁거세, 가야의 김수로 왕’들은 모두 태양을 닮은 둥근 알에서 태어났다. 태양을 닮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전하는 존재라 믿었다. ‘조상들은 간절한 바람으로 말바위에서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였기에 우리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성산성으로 가기 위해 위례 둘레길로 방향을 잡는다. 이 길은 가파른 언덕을 지나야 한다. 그러면 우뚝 선 송전탑을 만난다. 여기를 기점으로 낙타 등성이처럼 구불구불하게 산등성이로 이어지는 숲이다. 짝짓기 하는 새들이 여기저기서 고운 소리로 노래하면 주변에 소쩍새는 숲이 작다 소쩍소쩍 울어댄다. 청설모 한 마리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다니며 무엇을 분주하게 찾고 있다.

- ① 선성군 묘
- ② 말바위
- ③ 굽은 산등성이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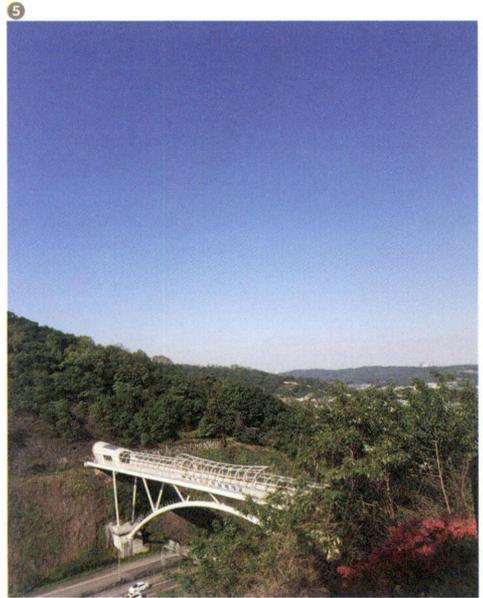
녹음이 점점 짙어가는 숲 속 정취에 취해 걷다 보니 어느새 위례교가 보인다. 운동기구가 많아서 가볍게 몸을 살짝 풀고 벤치에 앉아보니 언제 부터인가 개미들은 나무그루터기에 집을 짓고 대대손손 대가족을 이루고 있다. 그 곁에 뿌리를 드러낸 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가 서 있다.

13호 태풍 링링은 마을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갔지만, 덕풍 공원에 그 흔적이 보인다. 밤나무에 매달린 밤송이와 도토리는 여기저기 떨어져 나뒹굴며 수북이 쌓였다. 뿌리째 뽑힌 나무도 보인다. 어느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어 보여 걱정되었는데 나무와 숲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나무 열매는 가을 햇살을 받으며 추수를 기다리고, 동물들도 건강을 찾아가고 있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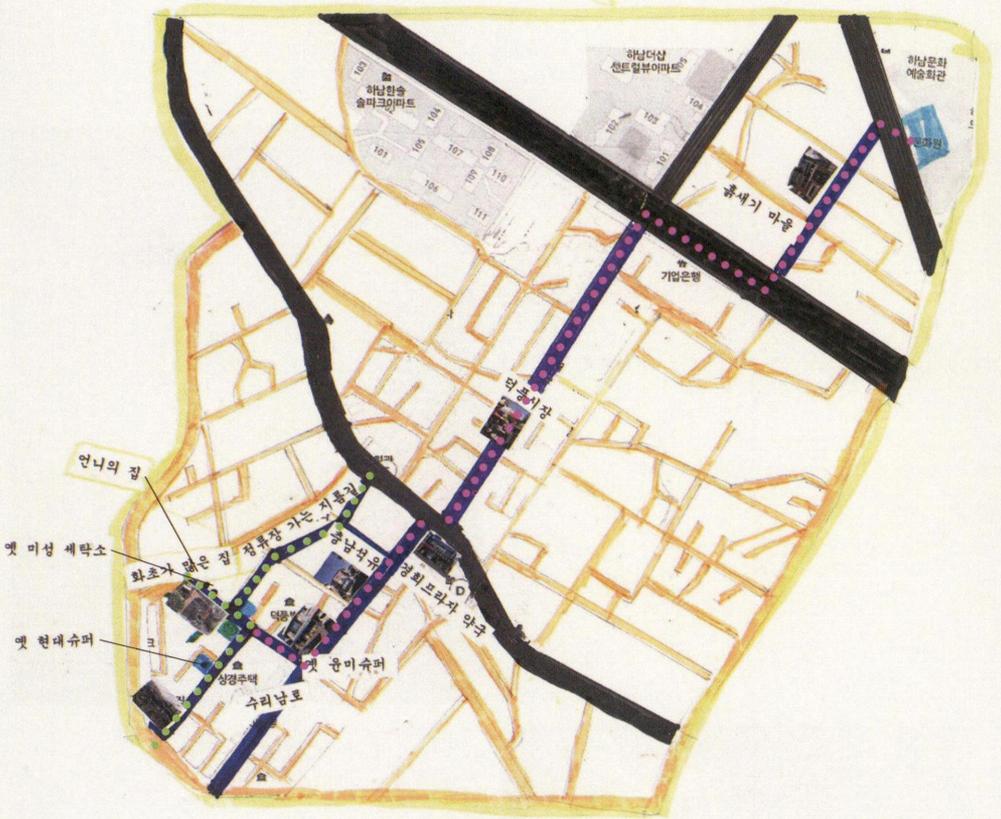
④ 덕풍골 송전탑

⑤ 공원에서 내려다 보이는 위례교

⑥ 개미집



- 1코스
- 2코스



○ 우리집 골목길 1코스

- ① 옛 현대슈퍼 자리
- ② 옛 현대슈퍼 자리의 사랑방

30년 전쯤 본가에 들어와 몇 년 살다 이사를 갔다. 비록 하남은 떠났지만 부모님이 계셔서 늘 찾아와야 했었다. 4년 전쯤 다시 하남으로 이사를 온 나를 변하지 않고 맞아주는 마을길이 있었다. 여기저기 둘러보며 정 들었던 사람들이 기억이 났다. 우리 집에서 큰길을 향해 내려가려면 여러 갈래 길이 있다.

우선 정류장으로 가는 지름길부터 가봐야겠다. 이 길은 우리 집에서 골짜기 내려가면 50m쯤에 현대슈퍼가 있었던 자리다. 옛날 본가에 들어와 살 때 이곳은 생필품을 사러 자주 갔던 곳이었다. 지금은 가게 문을 닫고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여기에는 한때는 종로를 주름잡던 주방장 할머니, 유명 호텔을 호령하던 주방장 할머니, 인테리어를 일류급으로 잘해 여기저기 불려 다니던 분 등 한 시대를 주름잡던 분들이 오신다. 지금은 사랑방을 지키는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세월의 무상함이 마치 마을의 모습과도 같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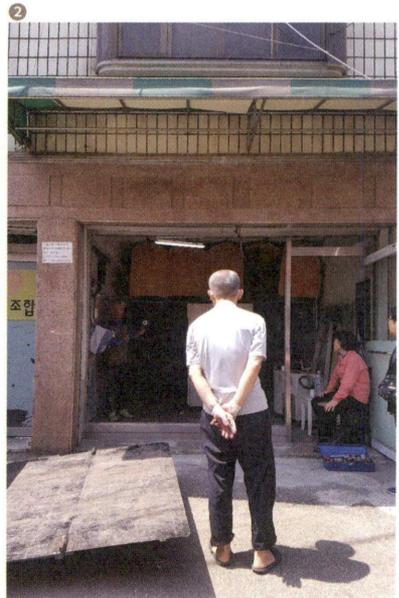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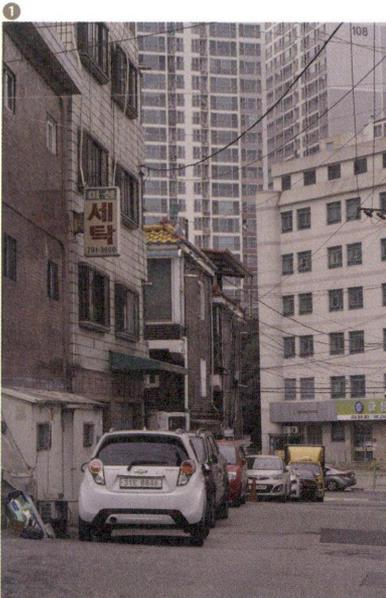


조금 더 내려가서 좌회전하면 나의 언니 집이 있다. 내가 덕풍동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언니가 주변에 살고 있어서 가능했다. 나는 참방앗간처럼 오가는 길에 언니 집에 들러서 추억 속을 거닌다. 언니와 함께 지나다 보면 어머니가 하던 방앗간이 화제가 될 때가 많았다. 시간이 흐르며 생각해 보니 엄마의 방앗간은 내 가족을 이어주는 만남의 공간이었다.

언니네 집 옆 미성 세탁소는 30년을 넘게 운영하다 문을 닫았다. 바느질 솜씨가 좋은 아주머니 때문에 이곳은 항상 손님이 많았다. 30년 전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살아서 온 동네에 생기가 넘쳤다. 나는 오래전 본가에서 아홉 식구와 함께 살았다. 직장 다니는 시누이와 시동생, 남편이 있어 세탁소에 가져갈 옷이 많아 미성 세탁소 단골이었다.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은 더 좋은 곳으로 떠났고, 세탁기와 효능 좋은 세제가 나오면서 세탁물이 적어졌다. 얼마 전 가게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쓸쓸하고 짠한 마음이 들었다.

① 지금은 없어진 미성 세탁소

② 미성 세탁소 문 닫던 날



알고 보니 더 큰 원인은 일 욕심이 많은 아주머니께서 재봉틀에 앉아 몸을 혹사해 여기저기 ‘몸이 고장이 났다’고 사장님이 투덜거렸지만, 김장을 마치고 고무대야를 들고 내려오다 높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 후 몸이 아팠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택가를 지나다 보면 숲속의 궁전처럼 나무를 많이 심어 예쁘게 가꾼 집들이 있다.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 만들었을까 생각하니 그분의 수고로움이 보인다. 나는 이런 골목을 좋아해 지나다니며 사진도 찍고 혼자만의 낭만을 느껴 보기도 한다.

또한 우체국으로 통하는 작은 골목이 있다. 이 길은 골목골목이 어져 있고, 사람 사는 냄새가 진하게 나기 때문에 즐겨 다니는 길이다. 아침이면 나팔꽃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집 앞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줄지어 있다. 벽에는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가 여기에 몇 집이 살고 있다고 알리며 나란히 붙어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골목을 버스 정류장으로 통하는 지름길로 이용하지만 밤 늦은 시간엔 길이 너무 컴컴하고 으스스해 가능한 다른 길을 선택한다.

③ 화초 많은 집

④ 우체국으로 통하는 작은 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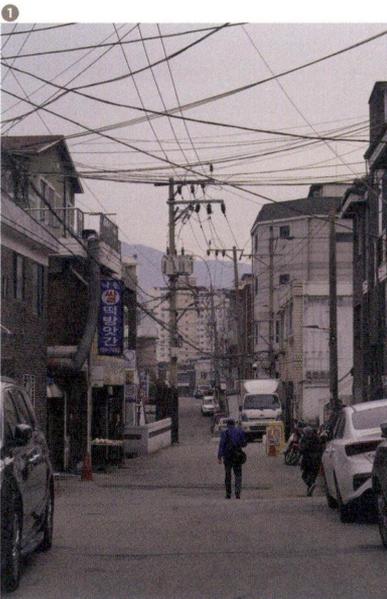


○ 우리집 골목길 2코스

상경 주택에서 직진해 우회전하면 낙원 떡 방앗간이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동네 떡집이다. 조금 더 가서 우회전하면 덕풍시장으로 통하는 수리남로가 있다. 코너에는 마을에서 제일 큰 윤미슈퍼가 있었는데 시택에 행사가 있어서 찾아올 때 가까운 이곳에서 장을 보던 곳이다. 그러나 이곳을 대신해 주변에 편의점이 생겨 24시간 마을을 지킨다. 윤미슈퍼는 애환을 주고받던 추억이 있는 장소였지만 지금은 지역 건축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재개발하겠다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수리남로는 덕풍2동에서 상가가 가장 성했던 골목으로 오랜 기간 좋은 상권이 유지되어 왔다. 내가 처음 집을 사서 이사를 왔 때는 연탄보일러를 썼었다. 그러다 석유 보일러로 교체하고 충남상회에서 쌀과 석유를 사다 썼는데, 지금은 주인이 바뀌어 쌀집은 그만두고 석유만 팔고 있었다. 수리남로엔 정육점, 문방구, 철물점, 등등 어지간히 필요한 일상용품을 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 ① 낙원 떡 방앗간 골목길
- ② 옛 윤미슈퍼 자리
- ③ 충남석유(현재 현대에너지)



경희약국은 큰길에서 마을로 찾아오는 이정표다. 경희약국 건널목을 건너 좌회전을 하면 덕풍시장이 펼쳐진다. 오일장이 서는 그곳은 잔치나 명절이 찾아오면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언니와 함께 장날만 느낄 수 있는 묘미를 찾으러 활보하기도 하던 길이다. 명절이나 부모님의 생신이 있을 때는 동서들과 함께 덕풍시장을 돌아다니며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찬거리를 사서 잔칫상을 차리던 곳이었다. 추석을 앞두고 대목장이 열렸다. 근래에 드물게 큰 장이 섰는데 상쇠가 상모를 돌리면서 춤을 추니 한편에서는 무동도 함께 덩달아 추고 있었다. 장에는 제사상에 올려질 제물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여 모두가 넉넉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 ④ 마을의 이정표, 경희약국
- ⑤ 덕풍시장 입구
- ⑥ 덕풍 장날
- ⑦ 흙새기 마을 골목길

덕풍시장을 지나 흙새기 마을에는 재개발하기 위해 집집마다 텅 비어있다. 붉은색으로 X표를 하고 공가(空家)라고 써놓고 출입금지 철거 예정이라고 요란하게 써 붙여 지나가기조차 민망하다. 그런데 몇 집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 마을에 남아 있는 집들이 있었다. 작년 여름에는 ‘흙새기 마을 사랑방’을 취재하기 위해 열심히 찾던 이 길이 몇 달 새 흉물스러운 곳이 되었다. 몇 년이 지나면 하늘 높이 솟은 아파트가 세워지겠지. 그 험한 길을 가로지르니 하남문화원이 나를 기다리고 서 있다.

하남문화원은 대전에서 이사한 후 새로운 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 곳이다. 나는 대전에서 이사를 올 무렵부터 글을 써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 마침 마을큐레이터를 모집하는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고 시작한 큐레이터는 나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게 했다.





창우근린공원 배 놀이터

어느 날 쿵 소리와 함께 앞이 캄캄했다. 멍하게 있는 내게 누군가 다가와 “괜찮아요?” 하며 소리쳤다. 매캐한 냄새와 연기가 코를 자극해 앞을 보니 에어백이 터져있었고 자욱한 연기에 불이 났다고 생각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자 사람들이 몰려와 부축해주어 병원으로 실려 갔다. 자동차가 필요했던 나는 소형차를 사서 개인사무실처럼 쓰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폐차시켰다. 이후 사고 후유증으로 운전을 할 수 없었다. 학습지 교사를 하는 내게 창우근린공원은 수업 중간 중간 빈 시간이 생기거나 결원(缺員)이 생길 때 자주 찾아가 새 활력을 찾는 소중한 장소가 되었다.

배 놀이터라고 불리는 창우근린공원은 1994년 완공되었다. 하남시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창우근린공원이 생겼는데 근린공원은 1만㎡ 이상의 규모에만 호칭할 수 있는 명칭이라고 한다. 공원에는 많은 나무와 꽃을 심고 종합놀이기구와 운동기구를 설치하였다. 바닥은 흰색 보도블록 사이에 회색 보도블록이 깔려있어 딱딱한 이미지가 보인다. 공원의 왼편에 자리한 커다란 게이트볼장은 초록색 인조 잔디를 깔아 놓아 시원한 느낌을 준다. 이곳은 오전에 노인들이 모여 게이트볼을 즐기고 오후가 되면 청소년들에게 양보해 준다.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여러 친구가 함께 모여 축구를 즐기는데, 가끔은 퇴근하는 아빠들이 찾아와 함께 하는 정겨운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



2



창우근린공원은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삶의 활력소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정류장으로 통하는 지름길로 이용하기도 한다. 때로는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찾아와 사랑을 속삭이기도 하고 가끔은 학생들이 짝 짜인 프로그램을 잠시나마 탈피하기 위해 근처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 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놀이터에 앉아있자니 자식들이 자라던 때가 생각났다. 내 아이들은 여름엔 물고기와 가재를 잡겠다고 집에서 가까운 약수터 근처 작은 실개천을 찾아가 돌을 뒤집으며 즐겨 놀았었다. 매미채 하나 들고 곤충 채집한다며 곤충들과 함께 쫓고 쫓기며 온 산을 누비다 흠뻑 땀 흘리고 돌아왔었다. 겨울엔 비료 포대 하나 들고 눈썰매 타다 넘어지고 뒹굴던 아이들은 빛바랜 사진 속의 주인공이 되었다. 28년 전 얘기다. 내 아이들이 자랄 때는 찌그러지고 녹슬고 구멍 난 놀이기구가 많아 다치는 사고가 종종 있었다. 작은아들은 망가진 놀이 기구에 얼굴이 찢어져 몇 바늘을 꿰매기도 했었다.

아이들의 놀이 문화는 시대의 따라 달라지고 마스크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창우근린공원 안에 배 모양을 닮은 놀이 기구는 해적선을 타고 모험을 하는 것처럼 그곳을 이용해 많은 학생이 지탈이며, 경도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1



“너희 뭐 하고 노는 거니?”
 “지탈이요”
 “지탈이 뭐야?”
 “지옥 탈출의 줄임말이에요.”
 “경도는 뭐니?”
 “경찰과 도둑이요.”

② 경도하자

③ 지탈하자

요즈음 줄임말 표현을 많이 쓰고 있음을 실감했다. 아이들은 친절하게 놀이를 설명하더니 사진 속에 서 주었다. 아이들은 술래잡기, 얼음 땡, 등 여러 놀이를 했고, 한편에서는 커다란 물총을 들고 서로를 향해 쏘아대며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신나게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동안 부모님은 정자에 모여 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의 주제는 자식들의 일상을 교류하며 알림장은 잘 적어왔는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좋은 학원이 어디 있으며 오늘 저녁 메뉴는 어떤 것이 맛있는지 레시피를 주고받는 등 정보를 나눈다. 아이디어가 많은 젊은 세대답게 핸드폰을 활용하여 아이들을 안전하게 잘 지키고 있었다.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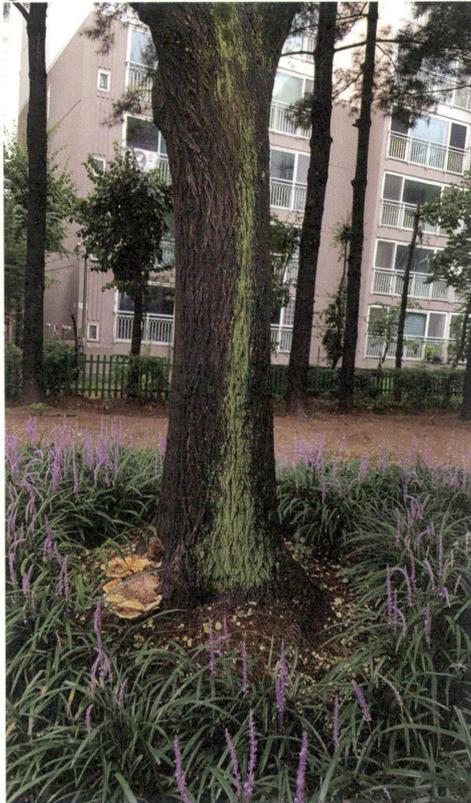


장마가 끝나지 않은 배 놀이터에는 매미 소리만 사이렌 소리처럼 요란하게 들린다. 매미는 2주에서 4주 정도까지 살면서 짝짓기를 위해 온 세상이 떠나갈 듯이 울다 짝을 찾아 나무껍질 속에 알을 낳고 생을 마친다. 매미는 스스로 청각을 훼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청각을 끄고 쫓 수 있다고 한다.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생은 매미를 손에 들고 열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나는 소년에게 다가가 “공원에 사는 곤충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권하며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창우근린공원에 사는 식물은 소나무, 자작나무, 맥문동, 영산홍, 라일락, 단풍나무 강아지풀 등등 많은 식물이 함께 공원을 지키고 있었다.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맥문동은 보랏빛 꽃대를 세워 고고한 자태를 뽐낸다. 우아하게 하늘을 향해 나무를 타고 오르는 이끼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텅 빈 공원을 지키는 수문장 같다. 창우근린공원의 작은 숲은 주변의 모든 생명체를 보듬으며 편안하고 안락한 놀이터가 되어준다.



2



2 공원을 지키는 수문장, 이끼

3 공원의 숲

3



아파트의 작은 놀이터

아파트마다 여러 군데에 놀이터가 있다. 수업을 같이하던 학생은 작은 놀이터에 사방치기 놀이를 그려놓고 왔는데 비가 와서 다 지워졌을 거라며 걱정하고 있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수업을 빨리 끝내 달라고 하더니, 돌만의 공간을 찾기 위해 극기 훈련을 하듯 철 구조물을 넘어 작은 지붕 위로 올라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소중한 시간을 갖는다.

두 친구는 다른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이다. 하지만 각기 할머니 댁에서 직장 다니는 엄마가 오실 때까지 반과 후 수업을 받으며 조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 뜻밖에 친구를 만났으니 얼마나 든든한 응원군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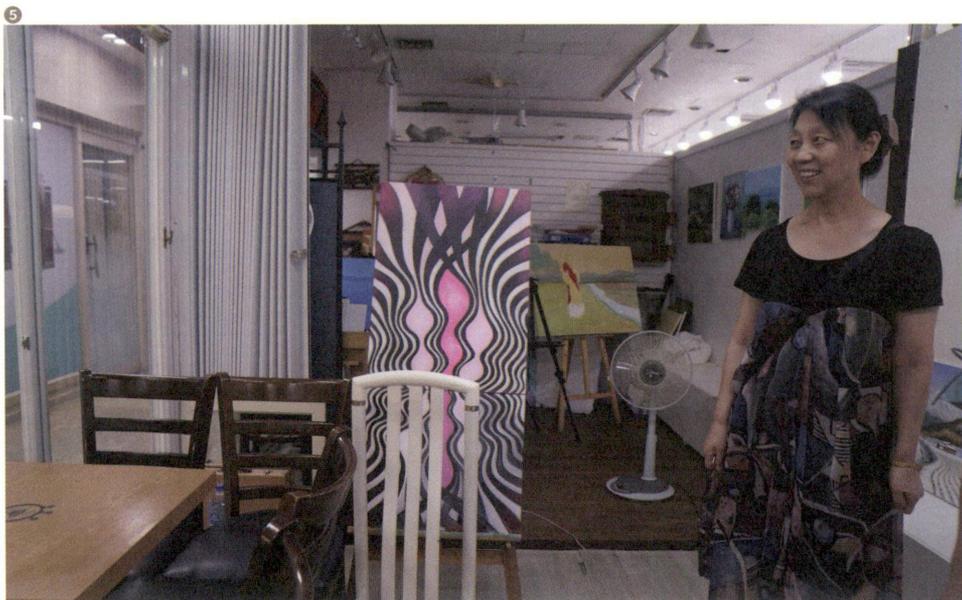
놀이터는 각각 다른 특징의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유아용 놀이기구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주로 유아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다. 좀 더 큰 놀이기구가 있는 곳은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해 게임을 하며 놀고 있었다. 아파트단지에는 4시쯤엔 어린이집에서 하교하는 유아들과 5시쯤 학원을 끝내고 오는 저학년 어린이가 있다. 작은 놀이터는 잠시 즐기는 놀이터라고 한다. 내가 놀이터를 찾아갔을 때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어린 유아들이 비를 맞으며 해맑게 웃음 지으며 물웅덩이를 침범 대고 있었다. 그때 내 아이들의 유아 시절이 떠올랐다. 물을 유난히 좋아하던 큰 아들은 물이 고여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 물장구를 치고 때로는 수로에서 놀다가 뚱뚱 떠내려가는 것을 이웃집 큰아이들이 건져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놀이터를 관심 없이 볼 때는 그냥 놀이터였지만, 관심을 가지고보니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들의 얼굴은 해맑게 웃고 있었다.

- ① 작은 놀이터
- ② 큰 놀이터
- ③ 둘이서 함께



나는 차 없이 일하는 동안 또 하나의 기쁨을 찾았다. 옷과 커피를 파는 아뜨레에 가는 것이다. 아뜨레를 운영하는 동갑 친구는 내가 학습지 수업이 없거나 갑자기 빠지는 학생이 생겨 빈 시간이 날 때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는 고마운 사람이다. 향긋한 커피 한 잔은 하루의 피로를 달래주고, 지난 시절 동안 추억의 이야기 거리는 시간을 가로지른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부모님은 “여자가 화가는 무슨!”이라며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했다. 그는 38살의 늦은 나이에 그림을 취미로 시작해 장사하는 동안 틈틈이 익힌 실력으로 국전을 준비했고, 그림을 전공하지 못했지만 며칠 전 국전에 입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지난날을 생각해 본다. 불혹의 나이에 한학을 시작해 명심보감을 배우겠다고 백화점 문화센터를 찾았었다. 스승님을 따라 여기저기 강의를 들으러 다닐 때 영등포학습관에서 논어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것이 있어 옆에 계신 할머니의 정리한 노트를 빌렸는데, 거의 한문으로 빼곡히 써 놓은 노트는 너무 어려워 읽어 보지도 못하고 다시 돌려야 했다. 나는 겸연쩍은 웃음을 지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선배님 지금 몇 학년이세요?”

“7학년 6반 이라우”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였다.

“연세도 많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한문 공부를 하세요?”

“음, 다음 세상에서 학자가 되고 싶어서 해”

지극정성을 다해 절에 다니시던 그분은 후생을 위해 삶을 준비하신다는 그 말씀이 한동안 머릿속에 맴돌았다. 내가 늦은 나이에 공부를 계속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을 때 쫓이었다. 할머니는 내게 공부해야 할 구실을 주었다. 그때부터 2시간 수업하는 동안 책 속에 나오는 본문과 주자주석(註釋)을 전부 손으로 쓰고 모르는 한자를 일일이 찾다 보니 옥편 4권을 해먹었다.

수십 권의 책을 전부 베껴 쓰며, 수천 년 전의 선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난 진정 즐거웠다. 그렇게 그분들이 남겨 놓은 귀한 글을 익히다 보니 한문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때 익혔던 한문 공부가 지금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뜨레 동갑 친구와의 공통점은 여자라는 이유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동갑인 우리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활동을 하지만 비슷한 경험 때문에 더 편한 친구가 되었다.

내가 만일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아이들을 만나는 기쁨과 배움의 희열을 느낄 수 있었을까 반문해 본다. 그저 실행했던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오늘 나의 손에 들린 학습지가 나의 날개처럼 내 작은 꿈을 싣고 사랑스런 아이들을 만나 친구가 될 수 있게 안내하는 도구가 되었다. 모든 것은 그동안의 수고도 있었지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응원이 없었다면...하는 반문에 우리가족에 대한 고마움이 따뜻하게 느껴진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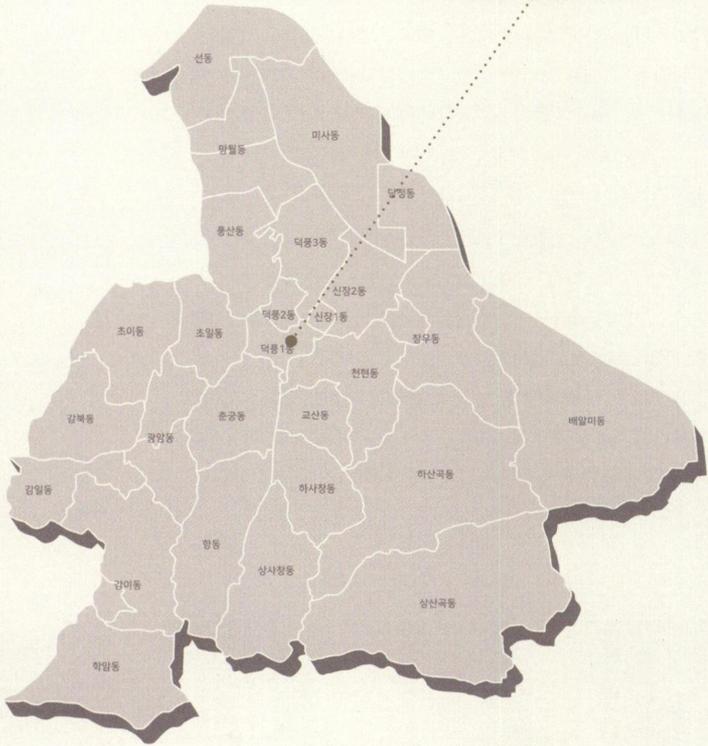
지도에는 없는 나의 산책길

글 조경희 · 사진 조경희, 남지우



남편이 직업군인이라 전국을 돌며 살았다. 마지막 근무지였던 이곳 하남에 정착하게 되면서 나의 인생2막을 시작한다. 우리 동네에는 이성산과 덕풍공원이 있어서 나만의 산책길을 만들어 걷고 있다. 건강과 취미생활을 찾아 오늘도 이 산책로를 한 바퀴 돌아온다.

덕풍공원 둘레길
(하남시 덕풍동 산 62-5)



*하남시 지도

힐즈파크푸르지오3단지 → 비탈진 텃밭 → 보랏빛이 진한 나팔꽃 → 이성산성과 수릿골 갈림길
→ 그늘 짙은 쉼터 → 말바위 → 둘레길 끝 삼거리 → 전망대 → 비밀아지트 → 덕풍동 주민센터
→ 선성군 묘 둘레길

○ 지도에는 없는 길

옛 공영사가 있던 자리, 덕풍터널 옆에 새로 지은 아파트. 이렇게 설명해 야 겨우 알아듣는 이곳이 내가 지난해 겨울에 이사와 터전을 잡은 하남 힐즈파크푸르지오다. 매일 아침 덕풍골로 향하는 길에 아파트 정원 한 바퀴를 돌아 덕풍공원까지 걷는다. 소요 시간은 나의 여유로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2시간 반쯤 걸린다.

2시간 반의 아늑한 나만의 산책길은 아파트 옆 비탈길로 통하는 쪽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아파트가 이성산 끝자락, 덕풍골이 이어지는 중간쯤에 지어져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발길에 의해 자연스럽게 쪽문이 생겼다. 쪽문을 통해 개척한 길은 경사가 급해 네발로 기어 올라 가고 싶을 만치 가팔랐는데 얼마 전 둥근 나무토막 흙계단이 생겨 오르 내리기 훨씬 수월하다. 이곳을 찾는 이들이 조금 더 쉽게 산책을 시작하고 끝마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완벽한 등산로는 아니지만 조금 투박한 들 어떠하라. 나는 안전만 하다면 이 정도의 투박함도 나름의 정취가 묻어나는 것 같아 지날 때마다 정겹다.

흙계단과 아파트 사이의 주변 넓은 들판에는 야생화꽃으로 뒤덮여 있어 그 정취를 더한다. 봄에는 보랏빛 물푸레꽃이 온 들판을 가득 메우더니 요즘은 노란 들국화로 뒤덮여 가을이 왔음을 화려히 알린다.



○ 비탈진 텃밭

비탈진 계단 길을 20m쯤 오르다 보면 테두리 너머로 텃밭이 가꾸어져 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로 길러진 온갖 채소들이 용기종기 심어져 봄에는 상추, 고추 그리고 감자꽃이 하얗게 피고 지더니 어느새 김장 배추와 무가 그 뒤를 이어 땅의 주인이 되었다. 흙계단을 지나오며 숨이 찰 때면 이 텃밭이 내 가쁜 숨소리를 잠시 쉬게 한다. 이곳을 지날 땐 지난날 앞마당에 작게 텃밭을 일구며 살던 때의 추억에 젖는다.

마당에 고추, 고구마, 배추를 심어 텃밭 가꾸며 살던 날들이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마치 옛그제 일인 것처럼 생생하게 떠오른다. 당시에 손가락만한 굵기의 고구마를 수확해서 신문에 말아 전자레인지에 구워 먹었는데 그때는 호박고구마가 처음 나와서 종자 자체가 손가락만큼 작은 줄로만 알았지 우리가 농사짓는 재주가 없던 것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때의 젊음의 무지이자 지금은 즐거운 추억이 된 작디작은 호박고구마 생각이 문득 떠올라 한껏 배가 고파졌다.

그 옆에 배추는 또 어떡했으랴. 속이 차지도 않은 작은 배추를 보며 우리 부부는 전문농사꾼도 아니고 유기농이니 괜찮다며 서로를 위로했고, 김치를 담아 먹었던 그해 겨울, 그리 시원하지 않던 김치도 맛있게 먹어주던 아이들이 오늘따라 새삼 고맙다. 작은 텃밭에 온갖 정성을 들였지만, 결과가 내 맘 같지 않아 속상했던 풋내 나는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 이 텃밭을 보면 괜스레 웃음 짓게 된다.

텃밭에서 내려오는 길은 누군가의 손길이 만든 흙 계단이 있다. 아마도 농작물을 키우는 농부의 따뜻함이 이곳 산책로에도 닿은 것 같다. 텃밭을 내려서 정면으로 향하면 경사가 80도 정도 될 법한 가파른 계단이 100계 정도 이어진다. 하남 구시가지로 연결되는 계단인데 워낙 가파르고 힘들어 이웃 주민들에게는 그닥 인기가 없는 듯하다.

① 계단을 오르면 나오는 텃밭

② 경사가 가파른 계단.

주민들에게는 그닥 인기가 없다.



○ 보라빛이 진한 나팔꽃

나의 산책로는 정면이 아닌 우측, 커다란 나무로 숲이 우거고 잡초가 우거져 자연그대로의 모습으로 도심 속에 남아있는 소중한 곳이다. 자이아파트가 보이는 쪽으로 걸어가면 이성산으로 가는 입구가 시작되는 셈이다. 드디어 아스팔트와 시멘트 사이에서 벗어나 들풀과 들꽃이 피어있고 호박과 칠닝쿨이 길 위에 서로 엉켜있는 자연 그대로의 둘레길이 시작된다.

하얀 개망초와 보라빛이 진한 나팔꽃이 핀 길을 20m 정도 걷다 보면 경사가 60도쯤 되어 보이는 오르막길이 나오는데, 길 한켠에 짙레꽃이 벌써 열매를 맺었다. 도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이름 모를 들꽃과 나무들이 우리를 반긴다.

○ 이성산성과 수릿골 갈림길

산능선을 따라 오르다보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이성산성과 수릿골 가는 갈림길이다. 나무 계단으로 향하면 하남 위례교로 이어져 이성산, 이성산성, 남한산성으로 길이 이어진다. 이곳에서 하남 위례교까지는 약 2km, 시간으로는 30분 정도 걸린다.

나는 왼쪽 길을 주로 산책하곤 하는데 이 길은 수릿골(덕풍공원)로 통한다. 큰 바윗돌들로 계단이 만들어져 있어 무릎이 아프지 않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주의해서 걸어야 한다.

돌계단을 지나 50m쯤 걷다 보면 큰 바위와 가로등 그리고 나무 계단이 보인다. 그리고 자이 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길을 만나게 된다. '이 좁으면 집에서 출발해 1km나 될까?' 씩씩한 걸음으로 거침없이 걸어왔더니 숨이 조금 찬다.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 마셔본다.



○ 그늘 짙은 심터

깊은 산속에 온 것처럼 굵은 상수리나무, 아카시아 그리고 밤나무가 무성해 그늘이 짙다. 잠깐 주변을 구경하는데 앞서 걸던 딸이 멀리서 다가와 밤 두 톨을 내 앞에 내민다. 아까부터 바다를 보며 걷는다 싶더니 알이 찬 밤송이를 찾는데 성공했는지 뿌듯한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 추석 제사장을 볼 때만 해도 올 추석이 일러 아직 밤이 익지 않았나 했더니 며칠이나 지났다고 어느새 산책로가 온통 밤송이 껍질로 가득하다.

밤 익어가는 것만 봐도 세월의 흐름과 연결 짓는 것을 보니 이제 나도 나이가 드는 것일까. 세월의 흐름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나마는 나이가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그 흐름이 더욱 아쉽고 소중하게 느껴져 생각의 맛이 조금 쓰다.

썩쓸한 생각을 뒤로 한 채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밤송이 중 알이 남아있는 밤송이는 하나도 없었다. 딸이 건넨 밤 2알 중 하나는 맛보고 싶어 까서 먹고 하나는 산책로 어딘가에 살고 있을 작은 동물 친구를 위해 멀리 던져줬다.

무엇인가 수확을 해온 딸에게 지지 않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다 눈에 보이는 아카시아 나뭇잎 두 가지를 따왔다. 무언가를 할까 말까 할 때 아카시아 잎을 떼면서 조마조마하던 옛 놀이가 생각나 딸과 산책 후 커피사기 내기를 했다.



이전의 생각들이 어떠한 간에 지금 이 순간 딸과 투닥거리며 걷는 오늘 아침 산책길 공기가 너무나도 싱그럽다.

10m 정도 지나다 보면 큰 상수리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그늘이 짙은 넓은 공터가 나온다. 나무 아래에는 쉬었다 갈 수 있게 긴 의자도 두 개 놓여 있다. 쉼터가 있는 곳에서 말바위 체력단련장, 약수터, 덕풍공원 세 갈래로 길이 나뉜다. 나는 주로 덕풍공원 길을 택하곤 하지만 종종 말바위 쉼터에서 잠시 몸 풀기도 하고 운동기구를 이용하기도 한다. 공터가 넓고 운동기구들도 잘 되어있어 활용만 잘한다면 이름처럼 꽤나 체력단련이 된다.

말바위 쉼터, 말바위 체력단련장을 말하다 보니 말바위가 무엇일 까 궁금증이 생겼다. “딸. 말바위가 뭘까?” 하고 물었더니 큰 고민 없이 “말처럼 생긴 바위겠지 뭐.” 하는 딸의 대답이 들려왔다.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말바위의 유래를 찾아봤다. ‘말바위’는 큰 바위를 뜻하는 말인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떠들면 말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산울림이 되고 그 울림 소리가 마치 바위가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여 이 곳에 있는 큰 바위를 ‘말바위’라 하였다고 전해진다 한다.

말바위에 얽힌 다른 설화로는 옛날 한 스님이 어느 마을의 부잣집에 가서 시주를 부탁했는데 욕심 많고 인정 없는 주인 영감이 시주는 커녕 물벼락을 안기고 머슴들을 시켜 물매를 때리게 했다. 느닷없이 봉변을 당한 스님은 혼잣말로 “뒷산의 바위를 부수면 이 집에 자자손손 정승이 날 텐데.”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주인 영감이 석수장이를 데리고 가서 바위를 부수려고 망치를 내리치는 순간 짹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가 깨지며 영감과 석수장이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그날 밤 뒷산에서 구슬픈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가보니 옛 바위의 형상은 간데없고 대신 말이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모습의 바위가 우뚝 서 있었다. 그 뒤로 마을에는 재앙이 끊이질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스님을 학대한 영감 때문이라 생각하여 인심을 후하게 쓰자 차츰 안정을 되찾았다고 한다는 것이 전해진다.

하지만 이는 딸의 생각처럼 말(馬)의 형상을 딴 바위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로 하남 이곳에 있는 말바위와는 관련이 없다.

삼거리에서 덕풍공원으로 향하는 길로 건다 보면 제비꽃 산딸기 물망초 장미 넝쿨에 때늦은 장미가 한두 송이 남아있다. 장미꽃에 코끝을 대어본다. 이곳부터 선성군묘역이 있는 돌레길 200m는 지난여름에 새롭게 단장해 흠길이가 아닌 포장도로다. 흠길의 정취는 조금 덜 묻어나지만 덜는 바닥에 흠이 없어 비 오는 날 걷기는 좋다. 새롭게 단장하면서 아파트 쪽 펜스 너머로 넝쿨장미가 심겨 있어 지난여름 장미꽃들로 이 좁은 길을 가득 메웠었다.

- ❶ 그늘 짙은 쉼터
- ❷ 말바위
- ❸ 삼거리에서 덕풍공원으로 향하는 길



돌레길에 끝에는 또 다른 삼거리가 모습을 드러내고 저 아래로 덕풍동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 삼거리에는 이 전 산길과는 달리 덕풍공원 전망대 가는 길, 선성군묘역 가는 길, 덕풍동 가는 길까지 이정표가 알아보기 쉽게 아주 잘 되어있다. 이곳에서 전망대까지는 140m인데 전망대로 가는 길은 경사가 심하기도 하고 여름이면 그늘이 없어 걷기 힘들어 여름 내 선성군 묘역이 있는 길로 걸어 다녔다.

이번에는 선선해진 가을 날씨를 뒷배 삼아 전망대로 가는 길을 선택해보았다. 전망대로 오르는 길에는 꾸지뽕나무 열매가 빨갭게 익어 가고 대왕 강아지풀도 멋지게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생긴 것은 강아지풀이요 크기는 부들 식물 같아 무엇일까 했더니 아까처럼 딸이 “큰 강아지풀!” 한다. 이름을 먼저 알아내 알려주려고 넬름 휴대전화를 꺼내 포털사이트에 식물 이름 검색을 해보았다. ‘대왕 강아지풀’ ‘수크령’ 사람의 생각들이 다들 비슷한지 이름과 별칭이 딸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 놀라며 갈대밭 같던 수크령밭을 지나 계속 걸었다.

경사가 심한 언덕길을 지나면 나타나는 전망대에는 멋진 팔각정자와 운동기구도 설치돼 있어 주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터가 넓게 펼쳐져 있어 동호회에서 같이 모여 체조하기도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망대에서 100m쯤 내려가다 보면 하남 시내가 다 내려다보이는 곳이 있는데 전망대도 좋지만 이곳이 나에게서는 비밀 아지트 같은 장소다. 여기서 내려다보면 멀리는 남한산성, 객산, 검단산이 보이고 가까이에는 덕풍동의 어르신들이 즐기는 게이트볼장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나의 아지트에서 100m쯤 내려가면 내가 매일 찾는 덕풍 주민센터가 있다.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중에 나는 커피를 배운다. 품미 넘치는 커피를 내려 매일 아침 사랑하는 이와 함께 마시고 싶어서다. 이곳과 연결된 산책로를 걸을 때마다 이 길이 나를 더욱 멋지고 향기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아 나의 산책로가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② 수크령밭

③ 나의 비밀 아지트



○ 돌아오는 길

덕풍동 주민센터를 전환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선성군 묘로 향하는 돌레길이다. 이 길은 대략 100m 남짓 길이의 그늘 길로 이루어져 있는데 발 지압을 위해 조성해놓은 자갈길이 산책의 재미를 더한다. 간혹 신을 벗어두고 걷는 이도 있지만 아직 도전해 보진 못했다.

선성군 묘역을 지나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은 상수리나무가 마치 동굴처럼 우거져있어 여름철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었다. 길에 가을을 맞은 도토리가 떨어져 데굴데굴 구른다. 이 길을 따라 한 바퀴 돌아오면 아까 마주한 세 갈림길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나의 산책 여정은 이곳에서 다시 하남 힐즈파크푸르지오, 집으로 가는 길로 마무리된다. 여기까지 만보기를 확인하니 걸음으로 6130보, 거리로는 4.3km가 기록되어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운동 삼아 가벼이 걷기에 적당하고, 아늑한 나의 산책로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 지나오며 보았던 나비가 여전히 그곳에 꼼짝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른 아침 산책을 마중해주고 배웅해 주는 나비가 반가워 사진에 담았다. 나비는 아침에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로 증명된 것 같아 신기하다. 전환점을 향해 바빠 가던 때와는 다르게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껏 여유롭다. 나비를 사진에 담을 여유도, 그 옆에 거미까지 발견할 여유도 있다.

중년을 지나고 있는 나의 삶도 이처럼 여유 있는 시절인 듯해 산책의 마무리가 기분 좋다. 이곳, 지도에는 없는 나의 애정 어린 산책길을 거닐며 여러 생각과 감정들을 마주한다.

이 길을 지나는 누군가 역시도 그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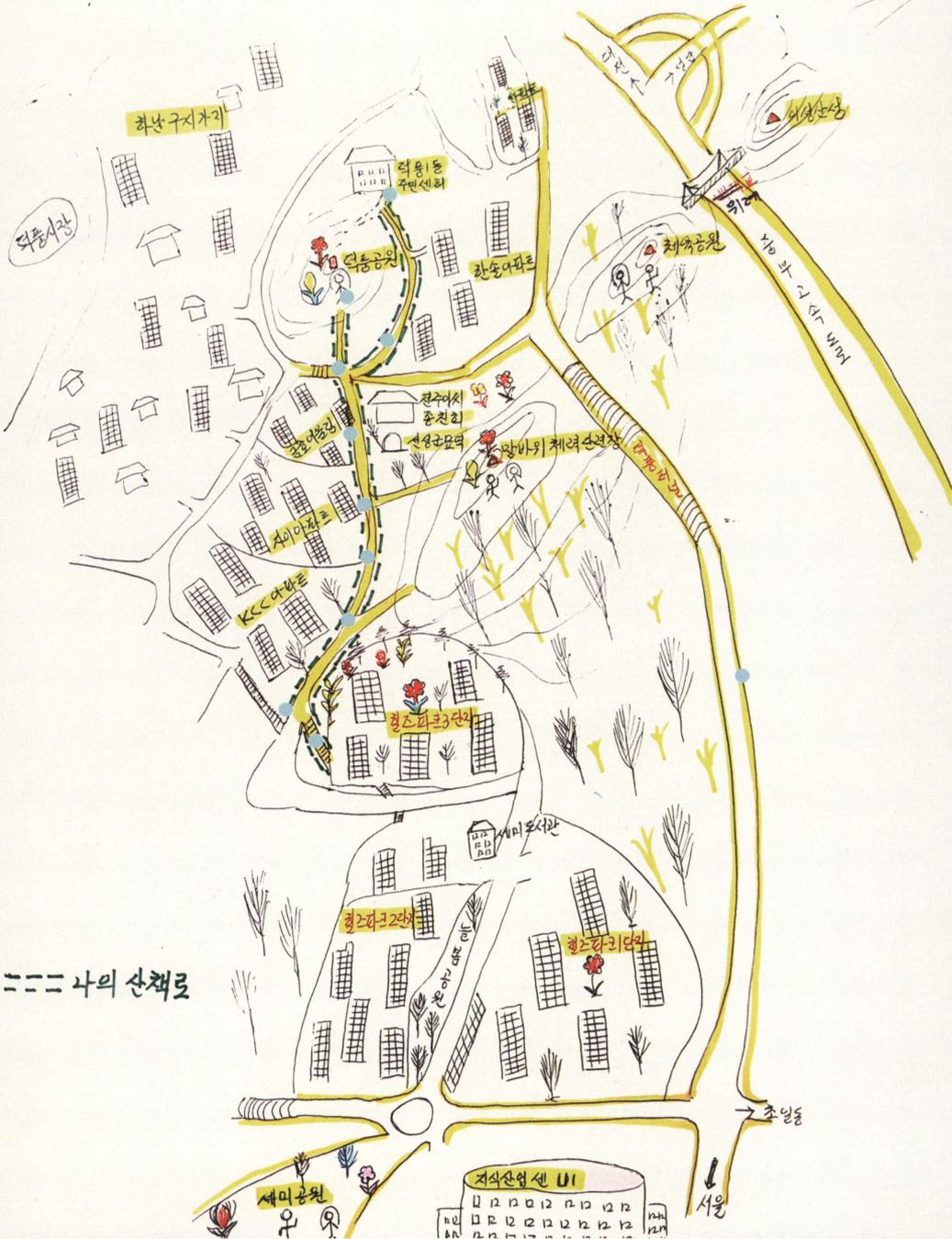




도시속 나의 산책로

△ 책단산

도
△ 남산공원
도



도시속 나의 산책로

여 백

늘 그녀의 산책

글 · 사진 장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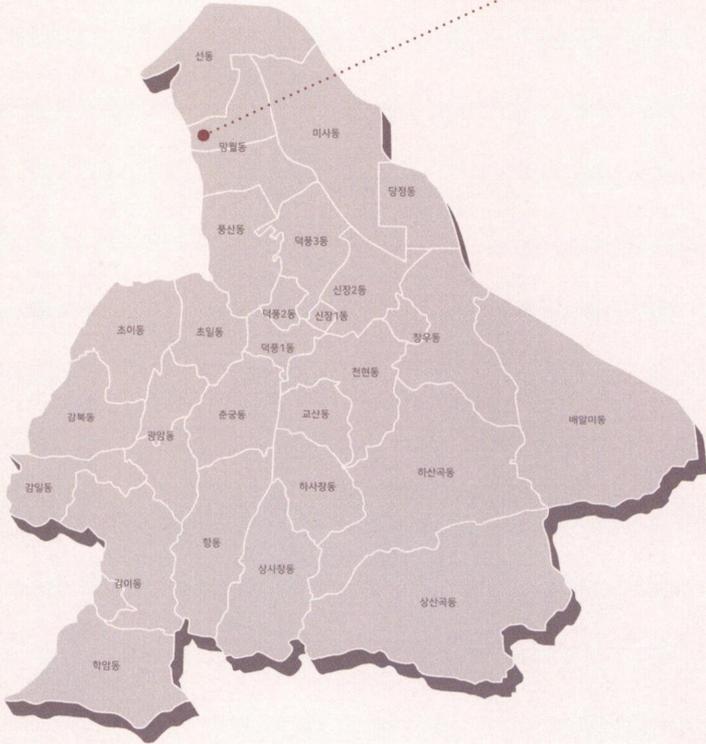


매일매일 육신 이곳저곳이 불편해지고 있다. 그 중 요즘은 눈이 많이 불편하다.

하여 시답잖은 글 쪼가리도 마음으로는 끄적거리는 시간이 올듯하다.

이제 그 시간을 준비 해야겠다.

망월천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하남시 지도

우리집 → 산책로 → 망월천변 → 아치형 다리 → 얼음골 → 무지개다리 → 망월호(음악분수)
→ 동백섬 → 미아리 우동집 → 망월천변 → 우리집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받치고 있는 이어

정현종 <비스듬히> 전문



5년 전 회사를 그만 둘 때 나의 허리는 굽히지도 펴지도 못 할 정도로 아픈 상태였다. 정년을 채워 볼 요량으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한 것이 벌써 3년 정도 지났었고, 허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다. 그리던 어느 날 또 병원을 찾았다.

“선생님! 왜 이렇게 낫지 않는 걸까요?”

“네, 환자분의 허리는 완치는 안되는거구요. 평소 생활 하시다가 허리가 아프시면 지금처럼 병원에 오셔서 물리치료 받으시고 주사 맞고, 약 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병원을 다녔음에도 허릿병이 낫질 않아서 살짝 의심은 했으나 직접 들으니 뒷목이 뻐뻐해지고 화도 났다. 의사에게 대 놓고 뭐라 하진 않았으나 마음속에선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럼 이제부터 병원은 끝이다.’ 하고 있었다. 그래도 허리는 계속 아프니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날 고민 했다. 그러다 생각한 것이 ‘적극적으로 걸어보자’였다. 마침 집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미사리 생태공원 산책로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엔 많이 걷지도 못했고 걷고 나면 훨씬 더 아파서 끄끙 앓았다. 궁여지책으로 허리에 복대를 차고 걷는 날도 있었고, 30분 정도만 겨우 걷고서 그만두는 날도 허다했다. 그렇게 8개월쯤 지났을 때였다. 산책로의 코스 중 제법 긴 코스인 2시간짜리를 걷고 들어 왔는데 아픈 곳 하나 없이 아무렇지도 않았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허리가 아프지 않다는 것을 알아 차렸을 때 무엇보다 신기하고 또 신기했다. 그 후 하남 시의 곳곳을 발로 누볐고, 이 모든 길은 시간이 되는 한 남편과 함께 했다.

12 우리집에서 망월천 가는길 입구



진등으로 이사 와서 우리가 망월천을 찾은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매일 걷는 습관이 있었으니 ‘근처에 걸을 만한 곳이 없을까?’ 부터 찾았다.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 이곳저곳을 무작정 걸었고 가까이 있는 망월천을 금방 알게 되었다. 게다가 집에서부터의 거리가 짧게 걸으면 1시간, 맘먹고 전부를 걸으면 2시간 정도 걸리니 걷는데 걸리는 시간도 내가 그때때 조절 할 수 있어서 편했다. 이제 늙은이들의 망월천변 일상을 가벼운 숨으로 훑아보고자 한다.

↓ 망월천 윗길과 아래 천변길

망월천 산책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면 신도시의 계획된 도로인 넓은 산책로를 만나게 된다. 이 도로엔 차도 안 다니고 길 양켄엔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긴 의자 또한 군데군데 놓여있다. 길 가운데는 수로를 만들어 하루에 두 번 정도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어떻게 끌어 올려져서 이곳에 흐르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다만 그냥 보기엔 물이 깨끗하여 수돗물인가? 아님 한강물인가? 추측만하며 이곳을 지나친다. 이 길 끝에 건널목이 있고 이곳을 건너면 바로 망월천이다. 우리의 망월천 산책 시작점인 이곳이 아주 상류는 아니지만 종류라 보기에도 애매한곳이다. 어땠든 늙은이들의 망월천 산책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망월천을 전체적으로 보면 천변과 망월호를 중심으로 마치 지네의 다리처럼 양쪽 마을로 모든 길이 연결되어 있다. 산책로 하나만 보면 언제 어느 때나 쉽게 망월천 산책로를 산책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산책로도 천변 바로 옆에서 물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밑에 길과 역시 천변이지만 좀 높은 곳으로 다른 주변 공원과 높이를 맞춘 산책로도 있다. 우리는 더위가 심할 땐 윗길로 걷고 좀 선선할 땐 아랫길로 걷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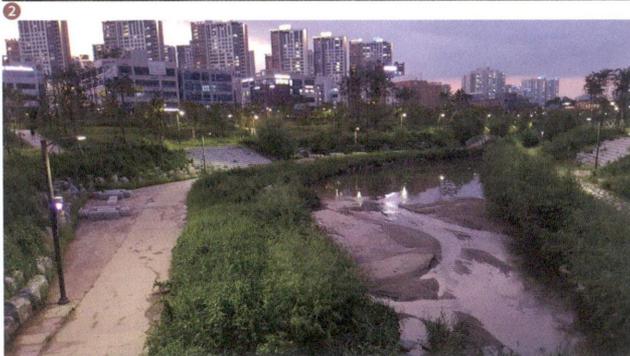


같이 산책을 하지만 보는 것이 다른 우리는 자신의 관심사에 집중 한다. 나의 경우는 작은 길과 꽃, 곤충, 나무, 그리고 하늘 보기를 좋아하고, 남편은 새, 동물, 길, 나무, 주변공원 보는 것을 좋아한다. 망월천을 걸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작점이긴 하나 나의 관심사가 아니니 무심코 지나친 그곳에 오리 열다섯 마리가 살고 있는 줄은 몰랐다.

그저 오리 몇 마리가 살고 있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칠 때마다 오리의 수가 줄어든다고 했다. 영문도 모른 채 노상 안타까워만 했는데 급기야 지난번 내린 비로 오리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역수로 쏟아진 비는 하천에 토사가 쌓여 물이 겨우 흐를 수 있는 물길만이 남았다. 사는 곳이 척박해지니 이사를 간 모양이다. 옆에서 남편은 ‘어디로 간다고 살짝 말이라도 하고 가지’ 그런다. 망월천 어딘가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 하며 꽃과 곤충, 새 등이 많아서 재미가 쏠쏠한 물길 따라 걷는 아랫길로 내려갔다. 이 길이 망월호까지 집으로부터 약 1.7Km거리이다. 망월천 자체는 정비를 했지만 그래도 자연 그대로의 생태가 많이 보존 되어 있는 곳이다.

① 오리 열다섯 마리가 살던 곳

② 지난번 비로 지금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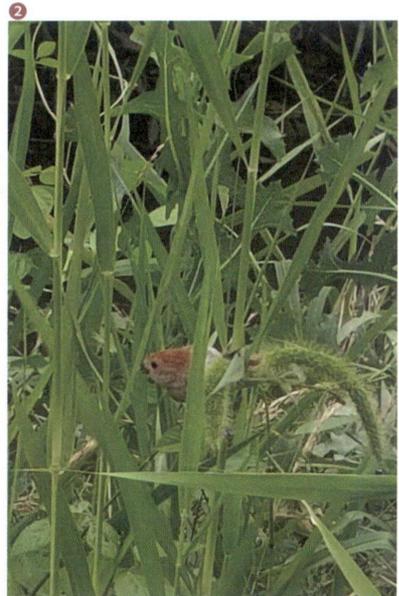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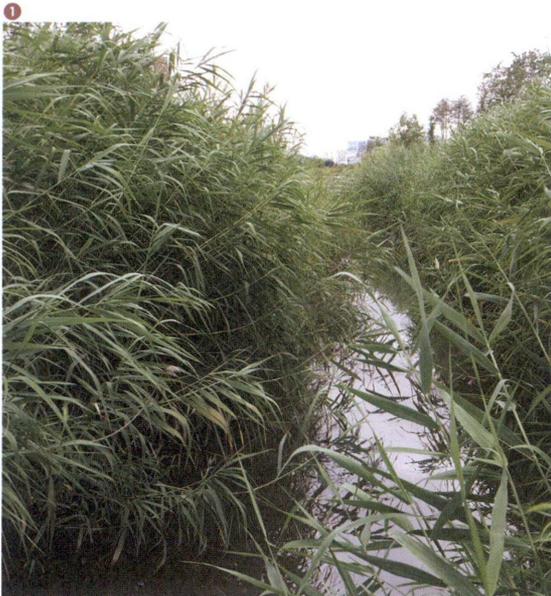


여름 망월천변은 우리 키 보다 높게 자란 갈대가 있어 산책길에선 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 갈대를 볼 때마다 시골서 자란 남편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낙동강변의 갈대를 베어다 지붕을 엮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갈대 줄기는 짚보다 단단해서 짚으로 지붕을 엮으면 한두 해 밖에 못 가는데 갈대 줄기로 지붕을 엮으면 3년 이상은 끄떡없었다고 한다. 내 경우 갈대라고 하면 배호의 '갈대의 순정'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자신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요즘 유난히 아버지 얘길 많이 한다.

천변 위 아래로 지천인 하얀 개망초가 바람에 한껏 흔들리고 바스락 바스락 갈대 잎 사이로 바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던 날 갑자기 한 무리의 새들이 우리 발소리에 놀라 후드득 날아올랐다가 다시 내려앉았다. 가까이 있는 새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작은새 오목눈이가 조그만 몸을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한다. 빼꾸기가 하필 꼭 오목눈이 등지에 탁란을 하여 자기 몸보다 몇 배나 큰 빼꾸기를 키우는 오목눈이를 TV에서 본 적이 있다. 그 오목눈이가 이곳 망월천에 저렇게 한 무리가 있다니 무심코 발소리를 내어 놀라게 한 것이 미안했다.

1 망월천 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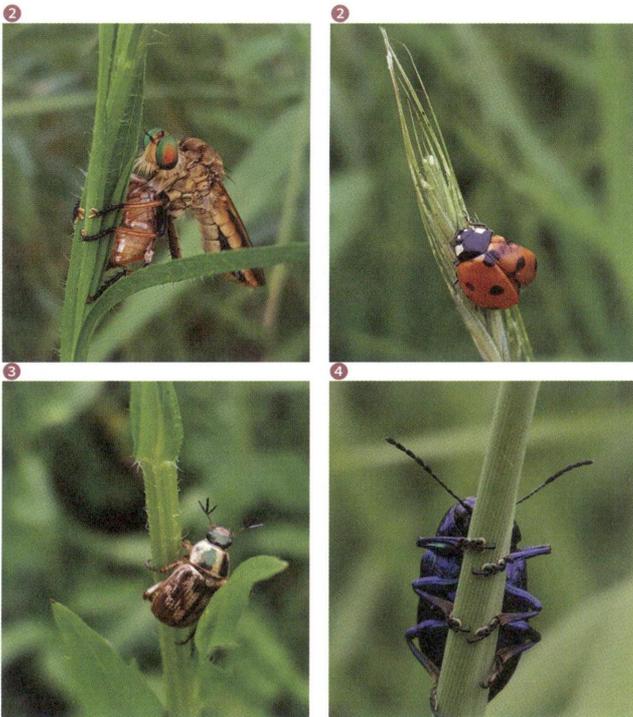
2 오목눈이



곤충이나 야생꽃 또한 이곳 망월천변에서 많이 발견된다. 특히 보물찾기 하듯이 곤충 보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 걷는 것이 뒷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달맞이꽃처럼 꽃이 피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꽃을 제외 하고 꽃을 보는 시간은 특별히 제약이 없는데 곤충은 그렇지 않다. 곤충이 앉아 있는 것을 사진으로라도 남기기 위해서는 곤충의 활동이 덜한 아침 이슬이 마르기전 이거나 오후5시 이후여야 한다. 한 낮에는 곤충들의 활동이 활발하여 꽃에 앉은 모습을 보고 다가갔다가는 이내 날아가 버린다. 대신 낮에 굳이 곤충사진을 찍고 싶다면 날긴 날더라도 기어 다니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곤충을 찍으면 된다. 망월천변에서 본 곤충 중에는 호랑나비, 부전나미를 비롯한 나비 종류 5~6가지와 무당벌레, 육식곤충인 호랑무늬 파리매, 노랑나방, 그 외 잠자리, 노린재과 아이들, 개미, 방아깨비, 거미, 벌 등등이다. 숲에서 다양한 곤충이 살고 있다는 것은 숲이 건강하다는 의미이니 망월천도 신 생태 청정지역이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다.

↓ 나비들





- ① 호랑무늬 파리매
- ② 무당벌레
- ③ 등 얼룩 풍뎅이
- ④ 중국 청남색 잎벌레

위의 곤충사진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곤충인 ‘호랑무늬 파리매’는 남편이 발견 하여 찍은 사진인데 그 생김새가 기괴하다. 자세히 보면 초록색 눈에 주황색 눈동자, 머리는 조각조각 나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엔 털이 삐죽삐죽 나 있다. 영락없이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괴물처럼 생겼다. 게다가 뭔가를 잡아먹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것을 본 남편이 “역시 자연은 양육강생이야” 한다. ‘어, 양육강생이 뭐지?’ 하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다. 이미 얼굴엔 계면쩍은 표정으로 가득 찼다. 나는 놀리느라 짓궂은 표정으로 가득 찼고, 그것은 다름 아닌 약육강식을 그렇게 발음한 것인데 점점 나이가 들며 발음이 꼬이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런 것이었다. 그 날은 산책하는 시간 내내 양육강생으로 남편을 놀려댔다.

상대적으로 망월호보다 관리가 덜 되어 있는 망월천변에 유난히 많은 것이 한삼당굴, 토끼풀 등 몇 가지의 녀굴식물이다. 이들도 생태계의 일원이니 저 생김 대로 살아가게 놔두어야 하다가도 다른 식물들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퍼져 나가 가끔은 구박을 받기도 한다. 집에서 1km쯤의 망월천변에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토끼풀이 지천이다. 풀이 많으니 하얀 토끼풀꽃도 많이 피어 가까이 가면 벌들이 웅웅대며 위협을 준다. 그런데 그곳의 토끼풀은 감히 특별하다고 말하고 싶다.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고 싶은 마음에 우연히 들여다봤다가 10여분 만에 11개를 채취했다. 네잎클로버가 모여서 자생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사실일 줄이야, ‘오늘 복권을 사야 하나?’ 사실은 특별하긴 하나 정상은 아닌 네잎, 다섯잎 클로버를 따고서 우린 고래등 같은 집을 지었다 헐었다를 했다.

5 네잎클로버 집중 자생 지역

6,7 얼음골 아치형 다리

행운을 가방 가득 넣고서 10m정도 더 가면 위가 차도라서 생긴 다리를 살짝 지나 망월천 이쪽 저쪽 물이 다 만나는 아치형 작은 다리를 만난다. 이곳은 이상하다. 아치형 다리를 넘어 끝나는 지점 1m전 쯤 인 것 같다. 그곳에 서면 에어컨을 틀어 놓은 듯 시원한 바람이 쐬—아 불어 온다. 큰 하수구가 길 양쪽으로 있고 그 가운데로 망월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하수구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하수구라 해서 냄새가 난다거나 그렇지 않다. 우린 이곳을 ‘얼음골’이라 부른다. 열대야가 있었던 날 밤에 산책을 나갔었다. 밤의 망월천 산책길은 망월호 쪽에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가 다니는 망월천변은 간혹 사람이 있을 뿐 많지는 않다. 이 얼음골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남편이 “여기서 음기가 느껴지는데” 했다. 어떻게 됐겠는가, 나의 손은 이미 남편 등쪽에 스매싱을 날리고 있었다.





이곳을 지나 망월호 아치형 큰 다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100m전쯤의 지점에서 우연히 바라본 하늘을 한참동안 목이 꺾이도록 본적이 있다. 그곳엔 파란 하늘에 운동주의 시어 같은 구름이 흐르고 식재 되지 얼마 안된 성긴 나무가 검은 실루엣으로 알팍한 둔덕 위에 있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 하늘은 아주 오래전 우리가 설악산 양폭산장 계곡에서 야영을 하다 바위에 누워 바라본 해삼 모양 계곡의 하늘을 떠오르게 했다. 해삼을 닮은 하늘엔 별들이 촘촘했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가늠도 어려운데 한순간 어느 한 느낌은 빛의 속도로 그 시간을 소환시켰다. 이곳에서 나는 하늘을 앉아서도 보고, 서서도 보고 한참을 서성였다.

↑ 설악산 양폭산장 계곡이 떠오른
망월천변 하늘

이제 드디어 망월호를 알리는 다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 다리는 우리 집 쪽에서 보면 망월호의 시작점에 있다. 산책길에 있는 조그만 다리가 아니라 이쪽 동네와 건너편 동네를 연결하는 꽤 큰 아치형 다리다. 우리는 그 다리를 ‘무지개 다리’ 혹은 ‘구름다리’라고 불렀다. 어느날 이름이 궁금하여 다리에 올라가 다리 양쪽 이름이 있을만한 곳을 살살이 다 뒤져 봤는데 다리 이름이 없었다. 왜 다리 이름을 안 지었을까? 궁금하긴 했는데 딱히 물어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럼에도 다리 이름이 없으니 한동안 다리 밑에 앉아 이름을 지어봤다.

“망월교’라 할까요?”

“안돼요, 중국의 무술 분파 같잖아요”

“그럼 ‘달빛이 내리는 다리’라고 할까요?”

“그건 이름이 이쁘긴 한데 너무 길어요.”

“그럼 ‘월하’는 어때요?”

“그건 조선시대 기방이 생각나는데요?”

워낙 산책을 하며 많은 얘길 나누니 다리 이름도 지어 봤는데 이내 그만 뒀다. 필요하다면 누군가가 짓겠지. 아마 지금은 안 필요한 모양이다. 나는 다리의 모양을 보고 떠오른 인상대로 그냥 무지개다리라고 부르려고 한다. 이 무지개다리는 밤이 되면 교각에 설치된 전등에 불이 들어와 색다른 멋을 주고 망월호가 한 눈에 조망되어 시원한 맛을 주는 곳이다.



산책길에서 이 무지개다리를 지나면 바로 망월호이다. 내가 보기에 망월천 전체 중 시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신경 쓰는 곳이 아닌가 한다. 그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우선 망월호 물 한가운데 분수가 설치되어 있다. 그동안 산책하며 분수가 가동되는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늦은 오후 시간 하루에 두 번 시험가동하고 있다.

분수에서 물이 나오기 전 이 분수 시설에는 백로, 왜가리, 물까마귀, 가마우지 등등 새들의 쉼터였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새가 있으니 새를 좋아하는 이에게는 멀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새를 보느라 한참을 머물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분수가 가동 되면 아마 새 똥이 먼저 하늘 높이 솟구칠 거야.” 하며 킁킁대고 웃었다. 분수를 처음 틀었을 때 과연 어땠을까 궁금하다.

망월호는 아직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봄에는 바닥의 개흙을 다 들어내고 자갈을 깔기도 했다. 그럼에도 물은 탁하고 가까이 가면 물 썩는 냄새도 심하다. 아마도 망월천 공사를 하며 물의 흐름을 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많은 노력에도 물이 깨끗해진 건 없으니 물을 정화시키는 작은 물레방아 같은 모양의 기계를 설치해 놨다. 하루 종일 썩 없이 돌아가는데 색깔조명까지 설치해 밤이면 기계가 돌며 생기는 하얀 포말에 조명이 더해져 망월천이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

1 2 망월천 음악분수 시험 가동

3 망월호



또한 망월호 주변을 느릿느릿 걷다보면 계획된 조경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망월천변에서는 대부분 자연생태 그대로의 야생화만 보게 되는데 망월호의 시작점에 이르면 같은 종류의 꽃들이 무리지어 식재되어 있다. 무지개다리 밑에는 망월호에 기대어 아기나리꽃이 100m정도 심어져 있다. 꽃이 제대로 피어 있는 모습을 보진 못했다. 아직 자리를 못 잡았는지 가뭄에 콩 나듯이 드문드문 피었다. 이 아기나리꽃이 끝나면 패랭이와 또 뽕가를 심어 놨는데 꽃이 피지 않으니 무슨 꽃인지 모르겠다. 이곳을 지나면 창포가 무리를 짓는다. 이 꽃 역시 많이 피진 못했다. 어쩌다 피어난 힘 썬 애들의 꽃을 겨우 볼 수 있을 뿐이다. 이 창포는 망월호 주변에 조성되어 있다. 창포 주변 호수와 떨어진 곳에는 비비추와 쑥부쟁이가 심어져 있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망월호를 에둘러 식재되어 피고지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꽃들이 사위고 우복히 자란 풀 숲에 보라색 쑥부쟁이 몇 송이와 노란 벌노랑이 몇 만이 겨우 보이고 있다.

④-⑦ 망월천변의 야생화들

⑧-⑪ 망월호 주변에 계획적으로

식재된 꽃들.

아기나리, 부처꽃, 창포, 비비추





이제 마지막으로 시에서 나름 큰 공을 들인 동백섬을 보고자 한다. 호수 중심에서 하늘나리꽃을 심어 놓은 방향에 인공 섬 2개를 만들어 놨다. 망월호가 큰 편이 아니니 이곳도 섬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작다. 이 섬에 잔디인형 머리처럼 동백나무를 빼곡히 심어 놨다. 동백섬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하여 붙여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섬만 민망한듯 멀뚱히 있었는데 요즘 이곳에는 오리와 백로들이 날아와 쉬고 있다. 날이 추워지면 과연 빨간 동백꽃이 피려나 기대가 되는 곳이다. 동백꽃은 꽃이 필 때의 강렬한 인상 뿐 만이 아니라, 꽃이 질 때 다른 꽃들처럼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빨간 꽃이 통째로 똑똑 떨어져 바닥이 온통 붉게 물들어 슬픈 느낌을 준다. 과연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을까? 만약 본다면 산책길에서 만나는 의도치 않은 감동을 받겠지. 혹시 우리 남편은 미당의 선운사 동백꽃을 읊으려나.

↑ 두 개의 동백섬에 식재된 동백나무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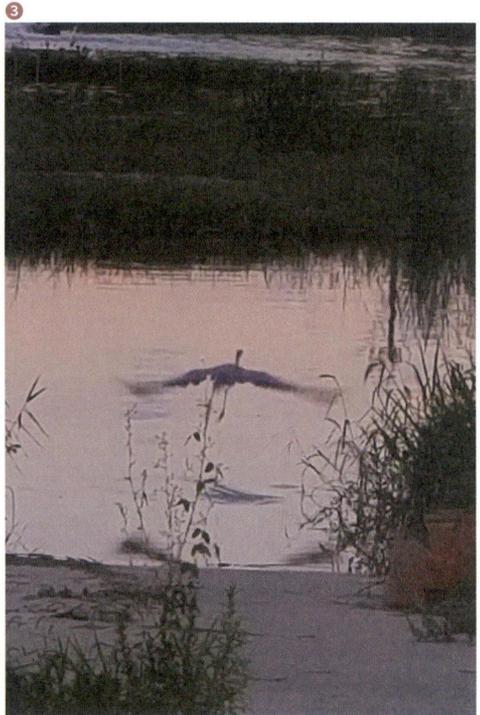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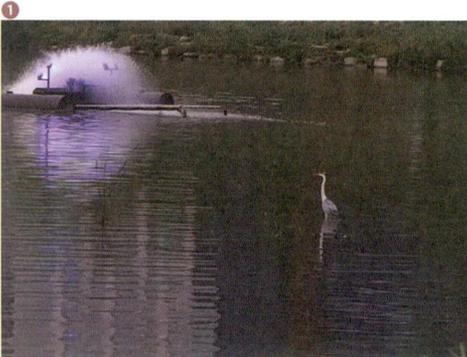
망월천 산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망월호는 주변 아파트에서 산책 나온 사람들이 반드시 찾는 곳으로 언제 어느 때고 사람들로 붐빈다. 남편도 망월천 산책길 중에서 이곳 망월호를 유난히 좋아한다. 탁 트인 조망으로 시원한 맛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망월호에서는 좋아하는 새들을 멀리서나마 맘껏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잘 보이지도 않는 새의 종류를 헤아리고 숫자를 세느라 침침한 노안이 열일을 하는 곳이다. 열심히 새들을 보니 개네들의 생태도 조금은 알게 된 모양이다. 오리는 가족인 듯 5~7마리가 무리를 지어 다닌다. 백로는 항상 혼자서 긴 목을 꼴꼴이 세우고 천천히 움직이고, 왜가리는 왜 그러는지 어린 백로 새끼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일이 흔하다. 그리고 어린애들은 백로든 오리든 겁이 없어 사람들이 다가가도 도망치질 않고 오히려 사람들과 눈 맞춤을 하고, 그러노라면 어느새 어미새들이 와서 수- 데려간단다. 듣고 보니 별것도 아닌 것을 무슨 강의 하듯이 갈 때마다 이야길 한다.

①② 망월호 백로, 오리

③ 어느 날 마침

날아오르는 백로를 찍었다.



망월호에서도 나의 관심사는 남편과 다르다. 날이 추울 때는 집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하고, 더울 때는 오후 6시에 산책을 시작하니 망월천변을 걸으며 이것저것 딴 짓을 하고 망월호에 도착할 때쯤이면 해가 아파트 넘어 서쪽으로 열심히 기울고 있는 시간이다. 망월호의 시작인 무지개다리 밑에 있는 하늘나리 꽃밭을 지나, 반대편 상가 밀집 지역 밑에 있는 비추 꽃밭 앞에서 천천히 지는 빛이 만든 하늘과 그 하늘에 기대어 서 있는 아파트를 꼭 한번 보길 누구에게나 추천한다. 처음 봤을 때 나도 모르게 튀어 나온 말이 “어! 스톤헨지네!!!” 였다. 영국의 거석 유적인 스톤헨지가 이곳 망월호로 옮겨 온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바람이 많이 불어 구름의 움직임이 바쁜 날에는 그 웅장함이 더욱 배가 된다. 나만의 느낌이겠으나 이곳을 볼 때마다 스톤헨지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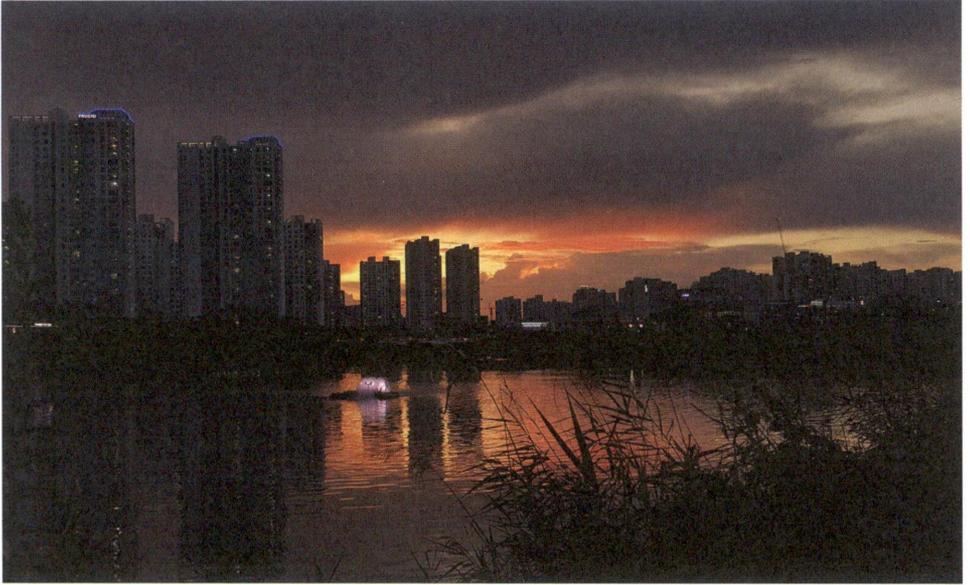
그리고 비비추꽃이 있는 곳에서 움직이지 말고 시간을 조금만 더 하늘에 줘보자. 아파트 너머로 붉게 물든 하늘이 망월호에도 스며들어 침착한 고요에 몸과 마음을 의지하는 시간, 세상 어느 곳인들 해가 이우는 시간이 끊지 않은 곳이 있을까 만은 어디 푸근히 눈 둘 곳 하나 없이 그저 딱딱한 느낌의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는 신도시의 예외 없는 차거움에 ‘너무 나쁘게만 보진 마,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이런 곳도 있어’ 하는 듯 노을은 차분히 위무한다.

① 나만의 느낌이겠으나

이곳을 볼 때마다 스톤헨지 같다는 생각이 든다.



3



해가 골짜기 넘어가 어둠이 내리면 우리 대부분 저녁식사를 먹기 위해 상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올라간다. 거창한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고, 간단하고 가성비도 괜찮은 것을 주로 선택하는데 그것이 ‘미아리 우동집’에서 파는 ‘소고기 김밥’ 한 줄과 뜨거운 ‘잔치국수’ 한 그릇이다. 우리 둘다 먹는 양이 많지 않은 편이다. 이렇게 시킨 소박한 식사는 음식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국물까지 다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한다. 게다가 가격은 만원이 안된다. 이런 가성비 식사의 종류가 좀 더 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부부의 소망이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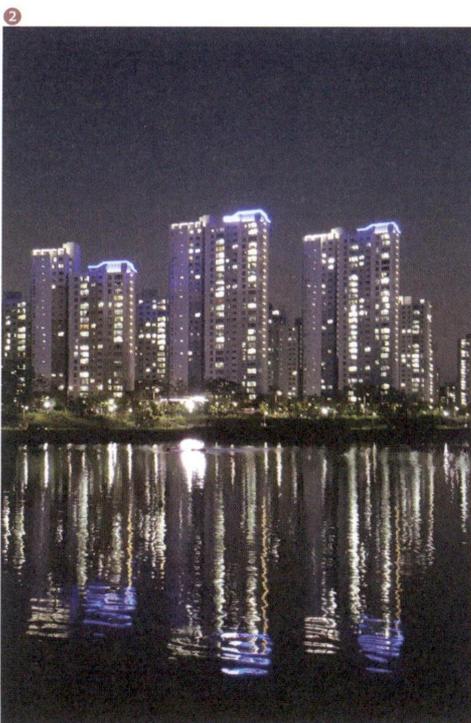


- ③ 망월천의 하류쪽으로 해가 지고 있다.
- ④ 이곳에서 저녁을 자주 먹는다.

이제 저녁까지 해결 했으니 망월호의 마지막 하이лай트를 보러가자. ‘아니, 망월호의 노을보다 더 멋지게 있단구?’ 그건 더 멋지다기 보다는 노을과는 다른 풍경이다. 어둠이 내린 망월호의 주변은 아파트와 주변 상가들에서 밝힌 불빛으로 어디에 내놔도 쳐지지 않는 야경을 연출한다. 여느 야경처럼 그저 무수히 많은 건물에서 내뿜는 불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빛들이 망월호에 그대로 반사되어 아래, 위로 같은 불빛이 대칭을 이루는 야경이다. 호수가 주는 선물이다. 이곳에 보름달이라도 뜨는 날에는 내리는 달빛과 함께 하늘에 있는 달과 물에 비쳐 일렁이는 달까지 함께 보는 진풍경을 만난다. 이곳의 지명이 과연 망월(달을 바라본다)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

무심히 달구경을 하던 남편의 뜬금없는 한마디. “초승달이 었게였는데 달이 많이 자랐네” 한다. 아마 망월호의 노을과 야경도 날이 추워지면 보는 일이 드물 것이다. 날이 따뜻하니 밤에 산책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 칼바람이 분다면 한낮의 가장 별이 좋은 시간에 겨우 걷게 될 테지.

12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망월호의 야경



요즘 망월천은 벌써 가을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껏 들떴던 풀들이
жат아들고 성마른 아이들 몇은 붉은빛을 띠기 시작했다. 꽃도 더울 때 피
었던 애들은 이미 다 저서 머리에 굵은 씨앗을 이고 있고, 마른 가지에 꽃
보다 이쁜 왕관모양의 씨앗을 달고 있기도 한다. 어미 백로 옆에서 놀던
아기 백로도 제법 컸다. 오리들은 어미와 새끼들의 크기가 비슷하여 우
리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다. 이렇듯 시간이 놓고 있는 길 위에서 우린
참 많은 이야기길 한다. 40여년을 같이 살았으니 소소한 이야기를 하고 있
으나 시간이 많이 지난 이야기 들이다. 늙느라 그런지 남편이 이즈음 많
이 하는 얘기는 어린 시절을 보낸 시골이야기이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온 동네 사람들을 전부 소환시킨다. 그 마을이 씨족 마을이어서 대부분
친척들이 살았던 모양인데, 들어도 들어도 난 누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
겠다. 가끔은 서운한 일이 있었는지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 특히 부
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린 나이에 형님 댁에서 조카들과 함께 자란
얘길 할 때는 표정이 어두워지기도 한다. 가끔은 같은 이야기길 반복해서
지루하기도 하지만 자기와 관계없는 내 얘기도 잘 들어주니 나도 되도록
들어주려고 애쓴다.

이제 우리의 지난 시간은 가뭇없다. 앞으로 놀 수 있는 시간을 지
나간 시간과의 비교도 이미 의미 없다. 다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으니
어제 그랬던 것처럼, 1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40여 년 전 풋풋할 때 그
랬던 것처럼 서로 기대어 시간을 맞을 것이다. 그러함에 굳이 망월천일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서로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
고, 집에서 가기도 편한 망월천을 걸으며 앞으로도 얼마간의 시간을 쓰
게 될 것임을 알겠다.

끝으로 시리지만 고운 신혼생활을 노래한 시 한편을 올리며 산책
을 마무리 하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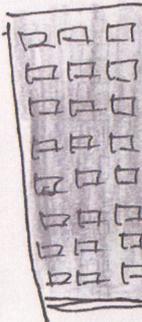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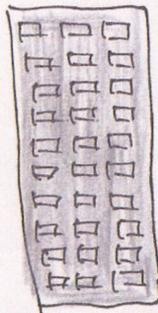
아파트 단지

운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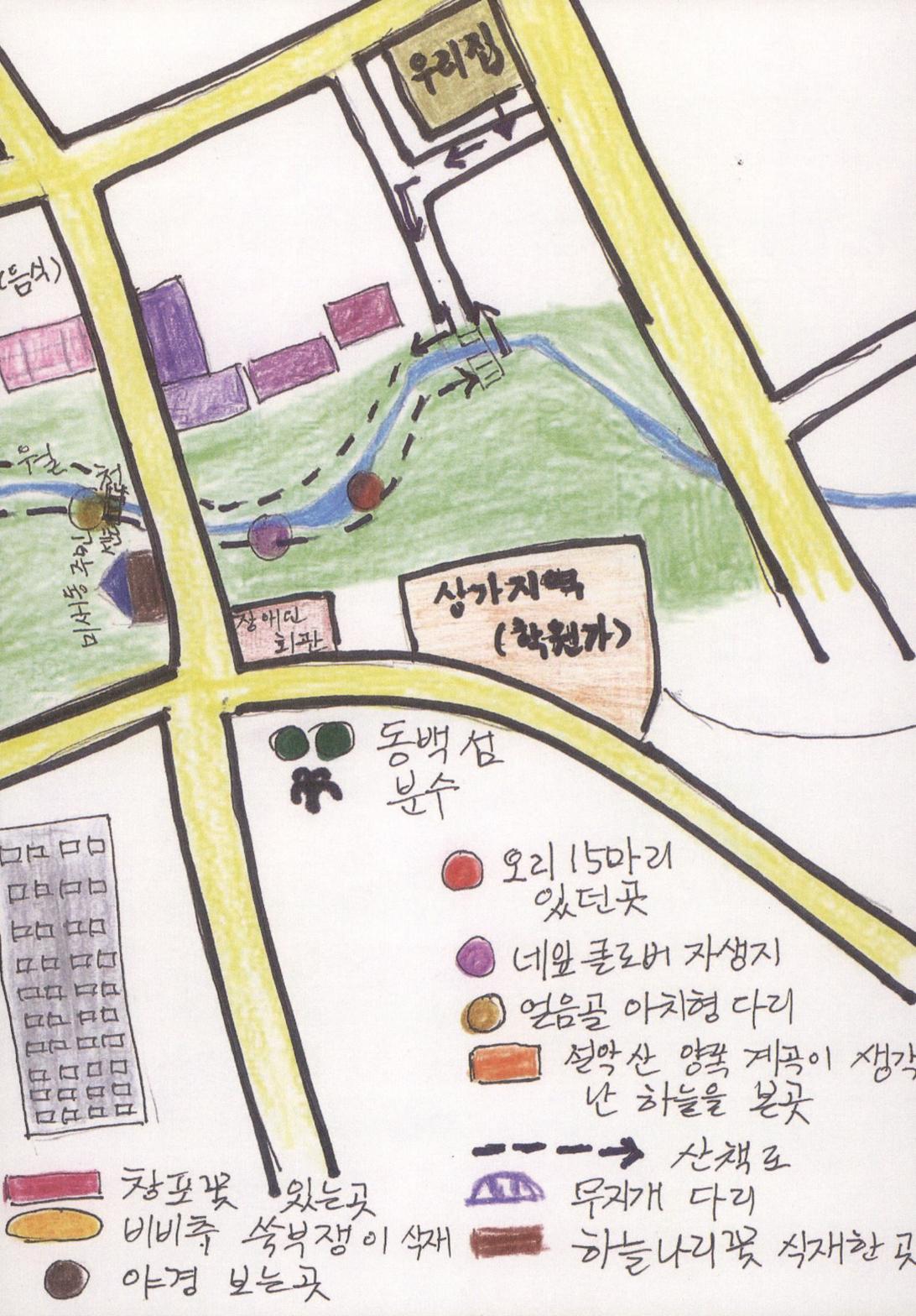
오피스텔
상가지역

망월천 주변 상가

망월천 주변



망월호에 바친 야경과
스튜디오를 연상시키는
아파트들



우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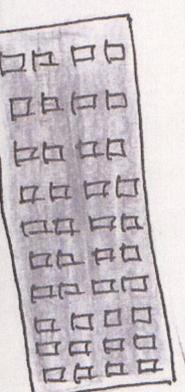
(음식)

우물
천정
미서동 주민
미서동 주민

상대면
회관

상가지역
(학원가)

동백
심
분수



오리 15마리
있던곳

네앞 콜로버 자생지

얼음골 아치형 다리

설악산 양쪽 계곡이 생김
난 하늘을 본곳

산책로

무자개 다리

하늘나리꽃 식재한곳

창포밭 있는곳

비비추 썩부쟁이 썩재

야경 보는곳

반려견 별이가 남겨준 산책길

글 이상숙 · 사진 이상숙, 남지우



삶을 산다는 것은 즐거울 때도 물론 있지만 힘든 일을 극복하는 매 순간이기도 하다. 극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법이라면 어떤 역경이 와도 행복을 찾아 삶을 풍요롭게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풍요로움은 장기간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 같은 것을 보고 얼마만큼 감상할 수 있느냐에 따라 삶의 풍요는 감상의 폭이기도 하다. 별이와 함께 영원할 줄 알았던 시절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지금은 보이기 시작하여 입원한 환자 중 모집자들과 함께 걸으며 추억의 길을 보여 주고 싶었다. 입원하기 전이 두렵고 고통이었다면 지금은 즐겁고 행복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고 퇴원한다는 편지 한 장에서 나는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 나라에서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하는 별이가 느껴진다.

덕풍공원 둘레길
(하남시 덕풍동 산 62-5)



*하남시 지도

하남SD병원 → 하남덕풍역파크어울림아파트 → 말바위 → 학유정 → 희령군묘 → 덕풍공원

○ 해피와의 추억

어렸을 때부터 소심했던 나는 친구가 없었다. 그러나 단 하나, 유일한 친구는 해피라는 개였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절, 등이 누르고 입 주위가 까만 5살 된 해피는 나와 친구가 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교실은 1층에 있었는데 공부하다 집에 가고 싶어 몰끄러미 밖을 쳐다보면 유리창 너머 두리번거리는 해피가 있었다. 나랑 눈이 마주치면 해피는 엄마처럼 다정한 얼굴로 머리를 끄덕여 주었다. 나는 학교 가는 것이 겁났다. 분리불안 증처럼 엄마를 떠나 학교에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는데 교실너머로 지켜봐 주는 해피 때문에 많은 위안이 되었다. 4교시 이후가 되면 해피랑 놀 수 있었다. 4교시가 끝날 때 까지 아이들이 해피에게 돌팔매를치고 괴롭혀도 어딘가에 숨어 있다 하교시간에 맞추어 나타나곤 했다. 둘이 집에 오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 그렇게 1학년을 무사히 마쳤다.

4학년 쯤 해피는 사람을 무는 습관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항의로 어쩔 수 없이 개장수에 팔아야만 했다. 그 이별의 슬픔은 지금까지도 문득 문득 떠오른다.

○ 별이와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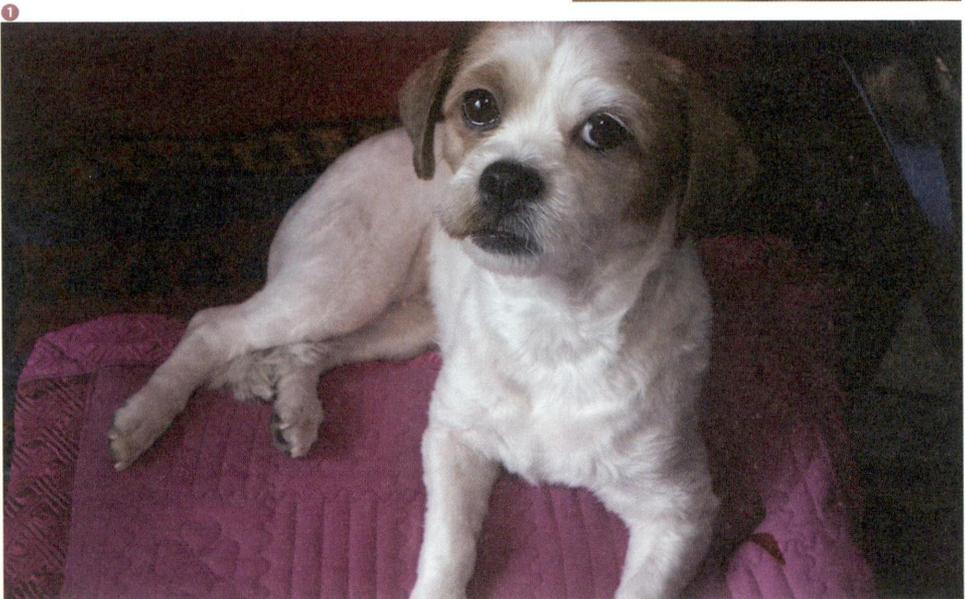
7년 전 어느 날 운명인지 나에게 또 다른 만남이 찾아왔다. 일에 집중하고 있던 오전 10시경 전화가 왔다. 1층에 개를 누가 버렸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시설팀 직원의 전화였다. 개는 아침부터 집에 가질 않고 여기에 있었다고 했다. 개에 대한 아픔이 있는지라 망설이다가 내려가 보았다. 절대로 개는 다시 키우지 않겠다는 마음 다짐을 하면서.

검은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닌, 너털너털한 더러운 개가 배를 보이며 드러누워 있었다. 복종하는 자세로 여러 사람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필사의 살고자하는 애교를 부리고 있었다. 직원은 버려진 강아지 같은데 너무 불쌍하다며 배가 많이 고프는 것 같다고 했다. 안된다 안된다 하면서 마음은 겁지도 희끄므레하지도 않은 개를 나는 어느새 안고 있었다. 데려와 먹을 것을 주니 한 3일은 굶은 듯 먹었다. 자기 집인 양 먹고 바로 잠든 개는 마치 여기서 살기로 마음먹은 듯 보였다. 고심 끝에 목욕이라도 시키자 라는 생각으로 직원들과 합심하여 목욕을 시켰다. 물을 좋아하고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 목욕을 쉽게 할 수 있었다. 얼마나 까맣고 더러웠던지 몇 번의 행굼을 마치고 보니 귀는 갈색이며 몸은 하얀 강아지였다.

까만 눈을 보면서 벌써 정이 들어버린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개에 관한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감염으로 인한 병원 내 불상사에 대비해야 했다. 버려진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만 사흘만에야 주인을 찾았고 예방접종 정보부터 별이의 탄생까지 듣고 돌아왔다. 옛 주인은 키울 능력이 없다고 하며 잘 키워 달라고 내게 부탁했다. 그때부터 나는 떳떳한 주인으로 별이와 우정을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반짝이는 별이 되라고 별이라고 지어줬다. 나의 별이는 어디서든 함께 있었고 어디를 가든 데리고 다녔다.

① 첫 만남, 경계하는 눈빛

② 별이와 일상 동행



○ 별이와의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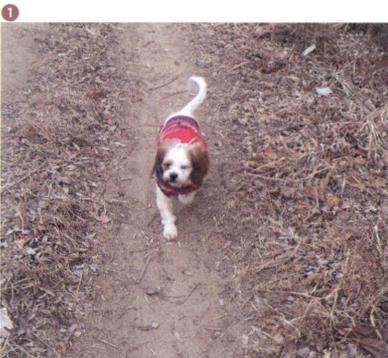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강한 스트레스가 밀려오면 별이와 함께 산책을 했다.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은 동부제일교회의 나무벤치였고 그 다음은 덕풍공원의 가장 높은 곳인 팔각정이다. 별이에게 하루 동안의 일을 이야기한다. 대부분은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가 아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화나는 일이었다. 직원들에게나 가족에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였다. 이철수 작가가 쓴 ‘개소리’ 작품 전문에 따르면 “깊은데 마음을 열고 들으면 개가 짖는 소리도 법문”이라 하였다. 내가 마음을 열고 별이에게 말을 할테면 낮게 짓거나 나를 깊게 바라보는 눈빛에서 분명한 법문의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는 늘 평화로웠으며 나를 행복하게 해 주었다.

언젠가 해질 무렵 석양을 바라보며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울었던 것 같다. 그럴 때면 별이는 슬픈 눈으로 안쓰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다 오히려 큰 상실을 경험했던 나에게 차라리 별이가 더 나왔다. 별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다. 모든 이야기를 별이에게 들려주고 돌아오는 길은 마음도 가볍고 행복했고 때론 노래도 흥얼거렸다. 성이 난 채 길을 가다가 작은 풀잎들의 추위 속에서 기꺼이 바람맞고 흔들리는 것을 보면 화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별이에게 의지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었다.

오솔길을 지나 반대편 길은 별이가 항상 관심을 갖는 곳이었다. 희령군 묘 앞의 모지기집인데 거기에는 철조망에 갇혀 있는 세 마리의 개가 있다. 그 앞으로 가서 한참이나 물끄러미 쳐다보곤 하였다. 처음에는 이상하였지만 나중에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한참 쳐다보다가 돌아설 때 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산책을 하였고 그 집 앞에 그강아지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된 우리 산책의 마지막 코스였다. 나에게는 별이는 친구이자 절실한 동반자이며 생활전선에서 의리로 맺어진 전우였다.

① 산책하는 별이

② 희령군 모지기집의 개를 바라보는 별이



그러던 어느 날 별이가 숨을 못 쉬고 기침을 심하게 하여 병원에 갔는데 폐암이라고 했다. 비가 오는 날 너무 슬퍼 땅에 주저앉아 멍하니 별이 눈만 쳐다보았다. 어떡하지...미안해...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모든 아픔을 별이에게 털어버리고 그 이야기로 스트레스 받아 아픈 것이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정말 너무 미안하여 내리는 비만큼이나 소리 내어 엉엉 울었다.

별이는 토요일 저녁에 떠났다. 진단 받은 지 삼일 만이다. 함께 했던 산책길도 안녕이었고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언덕배기 팔각정의 벤치도, 함께 맛있게 먹던 고구마 간식도 안녕이었다.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그 산책길을 가지 않았다. 아니 가지 못했다. 꼭 초등학교 때 해피처럼 어디에 숨어있던 별이가 나타날 것 같았다.

한동안 나의 사무실 이곳저곳에서 별이의 온기가 느껴졌다. 내가 안타가워 먼 곳으로 못 갔는지 앉아있는 모습이 자꾸만 보였다. 나는 혼자 외롭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냈다. 이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였는지 직원들의 정성으로 조그만 강아지가 내 곁으로 왔다. 새 강아지를 보면 잊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별이가 더 생각나서 많이 힘들었다. 정을 준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 그때의 길로 나서다

1년이 되어 다시 마을큐레이터 과정이 시작이 되었다.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여졌다. 나뭇가지를 들고 이파리를 한 장씩 뜯으며 한다, 안한다를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마지막 남은 잎은 ‘한다’였다. 이파리가 나의 마음을 잃어서 일까 다시 도전해 보자는 신중한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큐레이터의 첫 번째 과제는 내 일상의 투어였고 스스로 모집자를 모집해 안내해보는 것이었다. 나는 누구를 모집자로 할지 진지하게 생각했다. 역시 직업의 특성 상 병원 입원환자와 함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은 내가 안내할 장소를 어디로 할까 고민하였다. 그러자 희령군묘 묘지기집에서 키우던 갸혀있던 개들을 바라보던 별이의 모습이 생각이 났다. ‘그 개들은 거기에 다 있을까? 우리 개는 없는데 아직 살아있을까?’ 생각하니 그 장소가 갑자기 궁금해졌다. 도저히 가볼 용기가 나질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픈 마음이 들었다. 혼자서는 못가지만 누군가 함께여서 가는거라고 명분을 세운 것이 더 적합한 해석일지 모른다. 바로 나는 덕풍공원역사 투어자모집을 하게 되었다. 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원환자 중 지원자이며 목적은 입원자의 원활한 빠른 쾌유이며 투어코스는 병원에서 말바위 학유정을 거쳐 희령군 묘까지의 거리였다. 그러자 두 명의 참가자가 모집되었다. 직원 한명(사진 찍어 주는 역할)과 모집자 2명, 나 이렇게 네 명과 새로운 강아지, 별이2와 함께 투어를 시작하게 되었다.

① 투어자 모집공고

② 투어 코스설명

1

春年詞賦動 宮筵山川會 大滙 承 地 坡 部 相 會 逢 氣 日 下 懸 飛 我 大 滙 承 地 坡 部 相 會 逢 氣 日 下 懸 飛 我

투어자 모집

(덕풍공원 나들이)

2

덕풍공원역사 투어자모집

모집기간: 2017년 6월 17일~20일까지

모집참여자: 하남 00 병원 입원자

모집목적: 입원자 문화권 배양과 배양

모집코스: 하남 00 병원 - 말바위 - 학유정

접수처: 희령군묘 - 덕풍공원입원

접수처: 010-5007-0002 현직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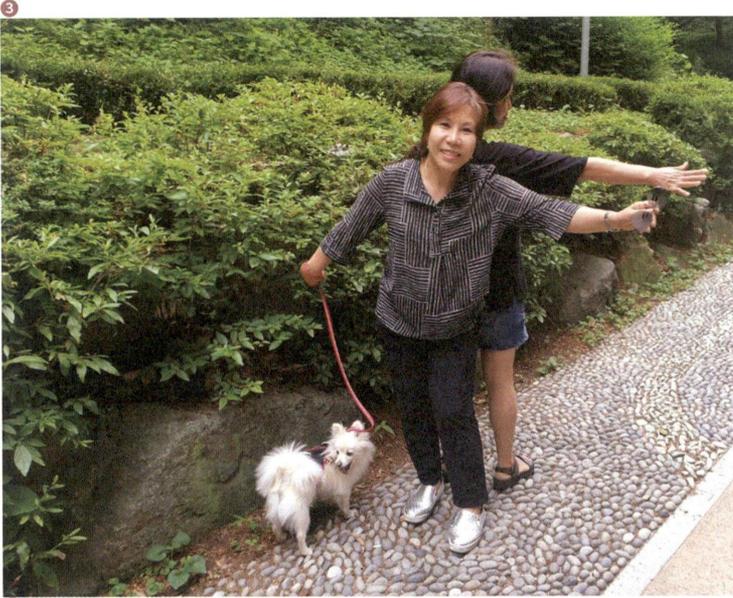
① 투어참여자에게 산책길 설명

② 별이2 (나이: 한 살, 특기: 술방울 물기)



슬렁슬렁 걸어 볼래요?

34 휴일의 포근함과 태양도 가리는
시원한 숲솔길



운동과 거리가 먼 두 사람은 말바위 올라가기 전부터 숨을 헐떡였다. 나는 이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천천히 보조를 맞추어 걷기 시작하였다. 아픔과 쓸쓸한 세월 속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별이의 추억과 함께 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여기 저기 함께 하였던 장소가 눈에 들어왔다. '별이어나 혼자 왔다. 너랑 함께 걸었는데 너는 어디로 갔을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저기 핀 꽃들을 바라보았다. 작년에 그 꽃은 아니지만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었다. 우리 별이도 똑같이 피어났으면 좋겠다. 저 꽃들처럼! 눈물이 핑 돌았다.

모집자들은 오랜만에 햇볕을 받으며 걸으니 땀이 나고 행복하다, 퇴원하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즐겁게 살 것이라고 한다. 연신 모든 병이 남편을 잘못 만나서, 고생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제부터는 자식이고 남편이고 나에게는 없고 오직 나를 위하여 살 것이라며 주문을 외우듯 크게 반복하였다.

지난 세월의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 놓는 사이 희령군 묘지기집에 도착하였다. 여전히 쇠철장에 가두어 놓은 세 마리의 개들은 살아 있다. 또 한번 싸한 아픔이 밀려온다. 나도 모르게 읊조렸다. '우리 별이는 없는데 여기 개들은 가두어 길러도 잘 살아 있잖아! 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 좀 더 기쁜 이야기를 해주어 웃게 해주어야 했어. 그러면 아프지 않고 내 곁에 있을 수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미안함이 밀려왔다.

↓ 별이와 함께하던 팔각정에서
별이2와 함께



밖에서 개가 많이 짖으니 묘지기 할아버지가 나오셨다. 나를 담방 알아 보시고는 쭈뼛 거리는 나를 향해 먼저 눈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네, 예고 개가 바뀌었네! 옛날 그 개는 귀에 색깔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주 개장 앞에 앉아있다 가서 눈 여겨 보셨단다. “아 ~네 그렇게 되었어요.” 힘 없이 말을 하자 자그마한 소리로 읊조리신다. “개든 사람이든 너무 사랑하면 안돼, 우리 할멈도 너무 사랑하였더니 그만 이별을 고하는 구만 그 나쁜 병 중에 치매가 걸려서, 쯤쯤… 뭐든 적당한 것이 좋아. 많이 이빠라 하던데 마음 아프겠수. 온 김에 들어와 차 한 잔하고 가시유” 하면서 먼저 집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투여자들의 모습을 보자 모두 그러자 하는 호기심 어린 눈을 하고 있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끌리듯이 할아버지를 따라 들어가게 되었다. 파란 페인트가 벗겨진 양철문으로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가면 흙으로 된 마당에 큰 돌을 딛고 올라서면 거실이 나온다. 거실에 들어가자 할머니가 연신 우리 더러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였다. 거실은 오랜 시골의 정취와 냄새가 났다. 예전 우리 할아버지 덕에 갔을 때의 그 냄새였다.

1 희령군 묘

2,3 희령군 묘지기 집

1



2



3



차를 타주시겠다고 분주한 할아버지에게 괜찮다며 자리에 앉히고 할머니도 옆에 앉게 하였다. 할머니는 내가 끼고 있던 결혼 반지가 반짝이며 이쁘다고 달라고 조르시다가 눈이 안 좋으니 선글라스를 주면 안 되냐고 심할 만큼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세상에 둘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숲한 세월 속에서 인내의 사랑으로 뭉쳐진 사랑이었다. 내가 치매에 걸리면 내 남편이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 줄까? 아니면 남편이 이렇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갑자기 현재의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결혼한 이야기며 사는 이야기를 행복하게 말씀하시고, 알아들었는지 연신 맛장구를 치며 웃는 할머니는 세상 걱정 없이 최고로 행복한 분처럼 신나 하셨다. 돌아오면서 모든 모집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갈 때에는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비난을 하려고 아우성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걷는 소리만 들렸다. 뚜벅 뚜벅, 나는 어색하여 시원한 커피 한잔 씩 하자고 제안하였더니 고개만 끄덕였다.

덕풍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유일하게 주소이름을 딴 558-28 카페가 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름다운, 늘 상냥한 신혼부부가 운영하는 곳이다. 앞만 보고 달리던 젊었던 시절이 그리워질 때면 이곳에 와서 맛있는 빵과 정성이 깃든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 동안 과거로 돌아가는 곳이기도 하다. 어떻게 그 시절을 보내고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다시 살아보라 하면 못할 것 같았다. 방금 노부부집을 본 느낌과 젊고 삶의 의지가 살아있는 신혼부부의 밝은 모습은 느낌이 사뭇달랐다.

- ① 덕풍공원 가는 길
- ② 558-28 카페
- ③ 카페를 운영하는 부부



날씨가 더워서 모두 냉커피를 주문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뜨거운 커피를 주문하였다. 와, 모두가 이 더위에 뜨거운 커피로 만장일치라니, 냉커피가 모든 것을 차갑게 잘라버리는 거라면 뜨거운 것은 웬지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숙명이라고 생각이 왜 든것인지…

남편에게 불평이 가장 많았던 참여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두 노부부를 보면서 왜 그렇게 나의 미래가 그려지는지,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남편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고…. 병이 생긴 이유를 남편에게서 찾으려는 심정이었다고…. 산책길에서의 원망의 고음이 아닌 안정된 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눈빛 속에 눈물이 비쳤다. 그때 커피숍 밖으로 무엇을 보았는지 일어서며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밖의 풍경으로는 검정 비닐을 들고 병원쪽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이 보였다. 행복한 미소를 머금으로 말하였다. “우리 남편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네요!” 밝은 표정으로 말을 할 때 두 볼이 밝게 빛이 났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라며 폴작 폴작 뛰면서 팔장을 끼고 남편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뒤에서 쳐다보면서 우리는 서로 누구랄 것도 없이 소리 내어 웃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참여자가 말을 열었다. “덕풍공원 역사 투어자 모집에 잘 참여한 것 같아요. 우리 자주 갈까요? 퇴원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더 가고 싶네요. 정말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고마워요. 진실로”

나는 두 손으로 말하는 투어자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잡은 손에 맑은 기운을 넣어주는 말을 하고 싶었다. 지금처럼 삶을 급하게 살아간다면 피폐한 과정만 되풀이 된다. 순간 순간 행복을 찾아야 한다. 어떤 역경이 와도 행복을 찾아 삶을 풍요롭게 살도록 장기간의 훈련이 필요할 것이며, 그 풍요로움을 찾는다는 것은 같은 것을 보고 나만의 풍요로움으로 의미있게 감상할 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렇다. 삶의 풍요는 감사의 폭과 비례한다.

별이와 함께 영원할 줄 알았던 시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보이기 시작한다. 벌레 먹은 나뭇잎, 함께 앉아있는 벤치의 온기, 푸드득 날아가는 새 소리, 가을철 단풍잎의 절정은 연두색이라는 것이 제는 모두가 아름답고 소중한다는 것을 이제야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도 프레젠테이션을 잘 만들어 훌륭한 강의의 박수도 아니고 부와 명예는 더더욱 아닐거라고 생각한다. 차갑고 무거운 침대에 누워서 어느 가을날의 나뭇잎이 떠오를 것이며, 태양의 따스한 온기, 별이와 거닐던 공원의 산책길, 가족간의 사랑의 대화, 표정이 떠오를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여 살아있으면서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아 풍요롭게 살다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함께 하였던 참여자들이 지금의 병마를 이기고 나면 풍요로운 삶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것을 깊이 있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추억의 덕풍공원을 함께 걸으며 참여자들 덕분에 힐링이 되었고 나 또한 이제는 별이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고마웠다. 참여자 분들과 함께한 힐링의 시간들이 나의 아픔을 빛나는 추억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 뒤로 나는 참여자와 함께 추억의 길을 걸었고 참여자가 퇴원을 하면 그 다음 투어 참여자와 산책을 하였다. 벌써 5차가 되었다. 참 이상한 것은 올라 갈 때는 원망의 산책길에서 돌아올 때는 감사의 산책길이 되어 내려온다는 사실이다. 나는 우리 별이가 마음을 바꾸어 주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나는 참여자들에게 우리 별이와의 추억과 희렁군 묘지기 부부의 각별한 사랑이야기를 꼭 들려준다. 왜 이 길을 걷게 되었는지, 노부부에서 느끼는 따뜻한 사랑 얘기를 하면서 길지 않는 인생, 오늘 하루의 감사에 대해 습관처럼 말하곤 한다.

우리가 죽음으로 한 번 가는 길은 정해 졌다는 진리의 길에서부터 시작하여 걸을 수 있음의 감사의 산책길이 되어갔다. 인생이란 그 진리를 안다면 기분 좋게 즐겁게 살 수도 있고, 모르고 그냥 산다면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서로 미워하며 가시밭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우리가 꼭 가야하는 길이라면 사랑으로 빛나는 추억의 길이 낯지 않을까 생각하여 본다.

모든 참여자들은 말한다. 쌓여 있던 모든 말들을 쏟아 내는 만큼 병도 줄어들어 몸이 가벼워 진 것 같다고. 입원하기 전이 두려움과 고통이었다면 지금은 즐겁고 행복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고 퇴원한다는 편지 한 장을 받아들고 나는 하늘을 바라본다.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하는 별이가 느껴진다.

“우리의 추억의 길이 누군가의 치유의 길이 되었어, 정말 대단하지 않니? 이제는 너의 별로 돌아가도 좋아, 그동안 나에게 주었던 충분한 사랑 모두에게 나누어 주고 있단다.” 별이가 멀리서 웃으면서 이제서야 떠나가는 것을 느꼈다.

“잘가렴 우리 먼 훗날 꼬옥 만나자꾸나 그때는 나의 딸로 태어나 주렴.”

✪ 투어 참여자가 보내준 글

잡동사니에 묻혀버린 삶

내 삶이 증거다.
불필요한 잡동사니를 제거했더니 좋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배로 늘었다.
그 결과 만족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
어쩌면 당신이 원하는 삶도 수많은 잡동사니 아래에 묻혀 있을지 모른다

조슈아 베커의 <작은 삶을 권하다> 중에서



당쟁이 산책길

글 임경재 · 사진 임경재, 임형수



세 딸들의 공부방이 필요했다. 1기 신도시 분양 시 분당으로 4표(아내와 딸들), 하남시로 1표(나), 한강이 좋아 남자의 권위로 하남시로 추진해 분양을 받았다. 입주 후 한가람 주말농장을 운영하며 산곡 2교 복단 산책길에 해바라기를 가꾸며 전원생활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새벽에 집에서 나와 한강을 따라 만보 정도를 걷는다. 기분 좋게 한강의 일출을 보며 친구와 함께 산책길을 걷는 일은 나의 소확행이다. 우울증도 치료 되는 기분이다.

당정섬, 한강주변
(하남위례길 2코스)



*하남시 지도

- ① 메타세콰이아길
- ② 덕한하(덕풍교-한강-하류) 길
인라인-낙하산 길
- ③ 당쟁이 일출 뚝방 길
유니온 호수 내부 길 산한덕(산곡교 - 한강 - 덕풍교) 길
- ④ 야자 카펫 길
- ⑤ 조류관찰대와 어도

꽃이 해마다 피는 곳

WALK ON.

맘쟁이 워킹



산곡천

HOME

검단산

덕풍천

시원

유은호수

스타 필드

메타 세카이어 길

(산곡) (한강) 산 한 덕 길
(덕동) 길

한강

검단산

미도

대교

5

산책길 3Km



- ☆ — 우레탄 길
- ✱ — 콘크리트 길
- 흙 길
- — 정자
- ▲ — 화장실



산책길은 많은데 적절한 명칭이 없어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고, 매일 산책 루트를 정한다.

보건소에서 건강 증진을 위한 ‘워크온’ 프로그램으로 걸음 수 통계를 내보니 하루 평균 2만보가 넘는다. 그런데 하남에 이렇게 멋진 산책로가 있다는 것을 하남 사람들보다 분당에 사는 외지인이 더 잘 알고 있었다. 부끄러운 마음에 하남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당쟁이(당정리) 산책길을 소개한다.

당쟁이는 당정리의 경기도 사투리이다. 88올림픽대로를 건설하면서 당정섬(당정동)이 골재 채취로 없어지고, *배견지 낚시하던 당정여울도 함께 사라졌다. 새롭게 산곡천 및 덕풍천 하류(약 3km 한강 하구로부터 70km ~ 73km 사이에 당쟁이 둔치)에 접하여 거대한 둔치(하천부지)와 모래톱이 생성되었다.

***배견지 낚시: 댐의 방류나 적당한 유속을 가진 강에서 살아있는 미끼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유인하는 낚시 방법**



① 야간에 산책하기 좋은 [메타세콰이아 길]

하늘을 보며 메타세콰이아 열매를 찾는 놀이가 재미있다. 열매 달린 나무가 20% 정도다. 열매 방울은 아이들의 놀이감이 된다. 또 하나의 재미는 볼라드등 번호로 위치를 추적하며 고라니, 야생고양이, 땀꿍이 소리, 꿩 같은 야생동물을 찾아가며 산책로 분기점을 시작해 전망대, 유니온호수, 발 지압장, 갈대 관찰대를 산책하는 것이다.

덕풍천 어도 동측, 올림픽대로와 평행하게 있는 야간 조명(볼라드)길은 여름에도 시원한 그늘과 멋진 줄기를 자랑한다. 아파트 인근의 그늘 길로, 야간에 조명이 잘되어있어서 산책객이 제일 많다. 유니온 연못과 목재 데크길로 연결되어 있다.

① 메타세콰이아 열매와 뿌리구근



② 우레탄이 깔려 자전거나 인라인타기 좋은

[덕한하(덕풍교-한강-하류) 길(A), 인라인 남 길(B)]

새벽에 집에서 나와 일출을 즐기며 산책한다. 초록우레탄이 깔린 A와 B 길을 걷고 나면 만보를 초과한다. 친구와 함께 이 길을 매일 걷고 있다. 걷고 나면 우울감도 잊는다.



A - 덕한하 길(덕풍교 - 한강 - 하류)

한강 하구로부터 70km지점에서 한강 상류 - 덕풍천 하류 서안 - 덕풍교 까지 자전거를 타며 한강 수면위로 일출을 볼 수 있다.



B - 인라인(낙하산) 남측 길

인라인 전용 길이 깔려 있는 길이다.

지나다 보면 특전사들이 낙하산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③ 걷기 좋은 흙길 [당쟁이 일출 뚝방길, 유니온 호수 내부 길]

당쟁이 일출 뚝방길 (덕풍교 - 한강하구로부터 70km)





유니온 호수 내부 길 (호수 주변 목재 데크길 포함)





④ 운동하며 걷기 좋은 [산한덕(산곡교 - 한강 - 덕풍교) 길, 아자 카펫 길]

산한덕 (산곡교 - 한강 73km - 덕풍교) 길

산곡천 부터 덕풍천을 연결하는 흙길이다.

운동기구가 있어 걷는 중간에 몸풀기를 하기 좋다.



야자 카펫(매트) 길

↓ 맨발 지압도로

새로 생긴 길이다. 뚝방길과 조정경기장 사이 뚝방 소단에 맨발로 걷기 좋은 야자 카펫(매트)이 깔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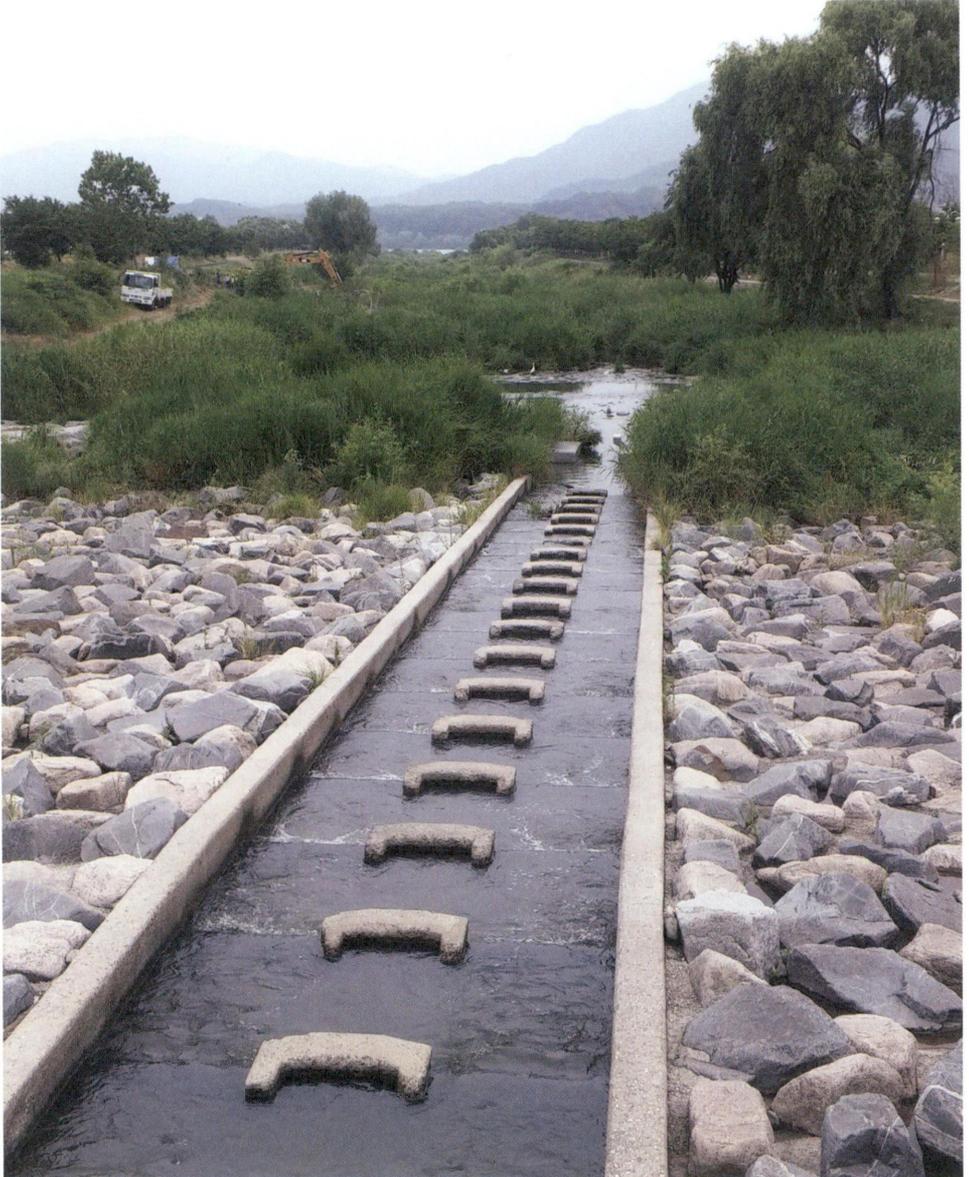
한강 물새, 갈대 관찰대

관찰대가 있어 망원경으로 물새와 갈대를 관찰할 수 있다.
고라니 촬영에 제격인 장소다.



어도 (산곡천, 덕풍천)

어도는 잉어, 장어 등 민물고기의 산란을 위한 물계단 장치이다. 어도에 서는 잉어 산란, 민물 게, 보호종인 맹꽁이를 관찰할 수 있다. 산곡천에는 100개의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점프해서 오르는 잉어의 모습이 장관이다.



여 백

천년 은행나무 고향의 노래

글 강신숙 · 사진 강신숙, 남지우



인생의 가을 문턱에 들어서서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을 꿈꾸며 늘 뭔가 보고, 배우고, 느끼고 싶은 마음을 간직하며 살고 있다.

서울 상계동에서 나고 자라 40여 년 전 내미길로 시집 와 시부모님 도와드리며 툼툼이 마을사진을 찍었다. 예전에 느꼈던 아름답고 정겨운 농촌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생존형 창고가 늘어나는, 도시가 되는 중간 어디쯤 있는 듯하다. 바뀌는 것들 사이사이에서 옛 모습을 간직하거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 마을을 보며 추억에 잠기고, 지금 이대로의 마을을 가슴에 담고 싶어 걷고 또 걸었다.

내미길
(하남시 대성로)



*하남시 지도

.....
 천년 은행나무 → (재광네) → 태창네 → 문규네 → (훈아네) → 미녀네 → 목도노인정
 → 두손어닝(재영네와 연당) → 상은네 → (재우네) → (옥이네) → 상경네 → (도연네) → (동호네)
 → 윤정네 → 소나정(현옥이네, 새마을회관) → 영미네 → 미애네 → 나뭇길카페(은정네)

***() 기억 속의 사람들**

○ 천년 은행나무의 아침

나는 새벽이면 새들의 속삭임을 들으면서 잠에서 깨어난다. 까치, 산까치, 까마귀, 뱀새, 공새, 새매, 참새, 딱따구리, 뺨꾸기들이 은행나무에 놀러 온다. 내가 모르는 새들의 소리도 가끔 들리곤 한다. 결혼하면서부터 새벽밥을 했는데 38년이 지난 지금도 새벽밥을 하고 있다. 전에는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느라 일찍 먹었고, 정년퇴직을 한 지금은 투석을 하는 남편이 약을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 시간 전에 아침을 먹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남편이 정년퇴직 했을 때, 생계대책을 위해 집을 다시 크게 짓기로 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곳에서 살 생각으로 남향으로 살기 편하게 집을 잘 지었다. 식탁에 앉으면 멀리 남한산성이 보이고, 집 앞에는 천년된 은행나무가 있다. 눈과 귀가 호강하는 이런 공간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밤에 마루에 누워 하늘을 보면 별이 반짝이고, 비행기의 지나가는 자리, 달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된다. 특히 은행나무 위에 달빛이 내려앉으면 은행나무가 신비한 빛을 발하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2018년 12월 19일 내가 사는 고골이 제3신도시(하남교산지구)로 발표가 되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계동이 아파트 단지로 수용이 되어 모든 것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했던, 친정 부모님의 아픈 마음을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 식탁에서 자연을 내다보며 즐기며 살고 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신도시 발표 후, 처음에는 충격으로 몸이 아파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고, 머리도 계속 아파 치료도 한참을 받았다.

아쉬움과 그리움이 밀려왔다. ‘동네가 없어지기 전에 눈과 마음에 담아 깊이 간직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동네를 기록하려고 식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니, 작은 동네 안에 2019년 6월 현재 우리가 먹는 채소가 70여 가지, 과수를 포함한 나무가 50여 가지, 야생화가 70여 가지가 넘는 것에 놀랐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1년 동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 나와 내미길

대대로 하남의 내미길에서 살고 있는 남편과 1981년에 결혼을 하였다. 신접살림은 남편의 직장관계로 성남시 단대3동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내미길에서 농사일과 구멍가게를 같이 하셨던 시부모님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농사일로 매우 바쁘셨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고 내미길에 자주 가서 가게를 봐드렸다. 토마토를 따서 상자에 예쁘게 담아 놓으면, 저녁 때 현옥이네 아저씨가 동네 사람들의 물건을 모아 차에 싣고, 성내동 농산물시장에 가져다주시고 돈을 받아 오셨다. 농사일이 더 많이 바쁠 때에는 10-15일정도 고골에 와서 자면서 가게를 보며 일을 도와드렸다. 아침이면 개울에 가서 빨래를 하며 동네사람들과 얘기도 했었다.

① 화랑 예식장(1981)

② 은행나무와 가게

(담배표지판이 붙은 곳이 사랑채이자 구멍가게. 1980년대)



3



3 가게집 안채마루, 어릴적 남편(1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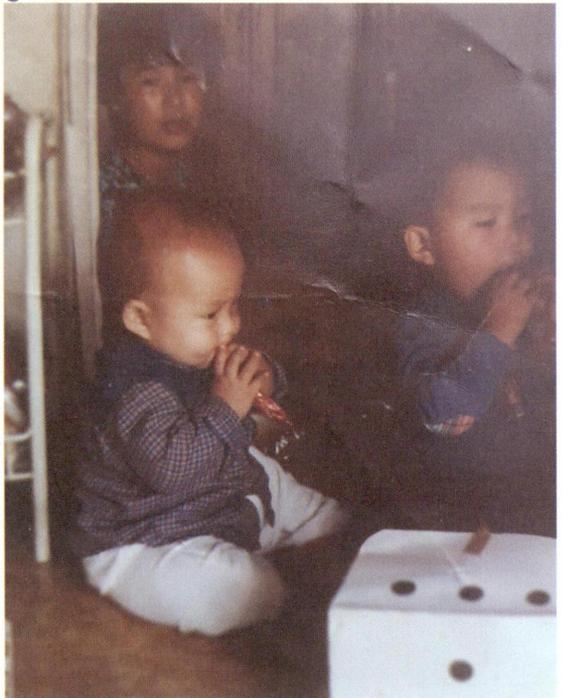
4 가게 앞(1982)

5 가게 안에서 나와 두 아들(1985)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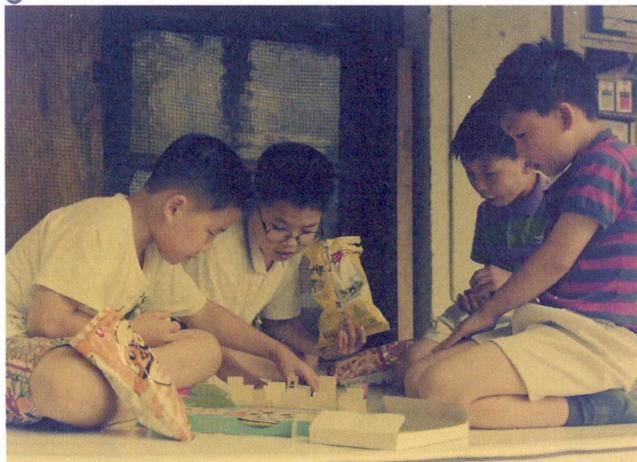




2



3



2 가게 앞 평상(1993)

3 가게 앞 평상에서 아이들(1993)

1984년 10월에 하남시 신장으로 이사 온 후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면, 나는 작은아들을 등에 업고, 큰아들은 손을 잡고 기저귀 가방을 들고 8시 반 버스를 타고 매일 고골에 출근하여 가게를 보고, 저녁때가 되어야 집으로 돌아왔다. 농사 일이 아주 더 바쁠 때면, 남편도 퇴근 후 고골로 와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밤에 우리들과 같이 집으로 돌아왔다. 휴일에도 아이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고골로 향했고, 여름휴가 때도 무조건 고골로 오라고 하시는 부모님 말씀에 여행을 다니지 못했다.

- ① 개울가의 미류나무와 객산(1993)
- ② 안마당 포도나무 아래 서 있는 나
- ③ 큰아들을 안고 개울로 가는 길.
뒤에 객산이 보인다.(1982)



4



5



6



4 개울에서 시아버지와 남편(1957)

5 개울에서 노는 우리아이들과 조카들(1989)

6 개울에서 노는 우리아들과 조카들(1990)

일을 하고 시간이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개울에 가서 물놀이를 했다. 시부모님께서서는 나의 개인적 시간을 용납 못하시고 무조건 당신들 일만 도와야 한다며 고골에 오라고 하셨다. 남편은 자나 깨나 부모님 생각, 고골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내 속사정을 몰랐던 신장동 이웃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매일 나가는 내 모습을 보고 놀러다니는 줄 알았다. 팔자가 늘어졌다며 많이 부러워했다는 말을 몇 십 년이 흐른 후에 들었다.

지금은 논과 밭이 모두 창고로 변하여 농촌마을의 운치는 사라졌지만 내가 시집오던 40여 년 전, 논에는 개골개골, 멍-공 멍-공하며 개구리와 맹꽁이가 울었고, 논에 물풀이 나고 그사이에 예쁜 꽃도 피어 한참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 ① 개울에서 노는 아이들(1993)
- ② 제기 차는 동네 아이들(1990)
- ③ 은행나무 아래서 막걸리 한잔하는 마을 사람들



농사철에는 어린 아들을 봐줄 수 없어 보행기에 태워 마당에서 놀게 하고 어른들은 일을 했다. 시어머니는 큰손자가 태어났을 때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이셨다며 큰손자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셨다. 농한기인 겨울철이 되면 큰손자를 오래 데리고 계시고 싶은 마음에 “소 보러 가자”하고 어머니께서 큰아들을 업고 소가 있는 까까네 집으로 나가시면 우리는 작은 아이만 데리고 성남 집으로 왔다.

- ④ 보행기를 탄 큰아들(1982)
- ⑤ 어머니의 보물 큰손자
- ⑥ 소를 키우는 태창네(까까네.1995)

구멍가게 옆 대문 안에 항아리를 묻어 놓고 농사철에는 막걸리를 팔았는데 그 모습을 봐서인지, 우리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며 술장사를 하고 있어 깜짝 놀라 멍모삼천지교가 생각나기도 했다.

1990년 하남시에서 사진 강의가 있어 배우기 시작하였다. 시부모님은 내가 밖에 나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셔서 어렵게 눈치껏 일하는 틈틈이 우리 집이나, 동네 어르신들 일하시는 모습, 아이들 노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4



5



6



1



1 1970년대 초 시부모님과 남편

2 모판에 볍씨 넣는 아들(1994)

3 모판에 물을 주는 남편(1994)

4 손으로 모내기(1993)

5 기계로 모내기(1993)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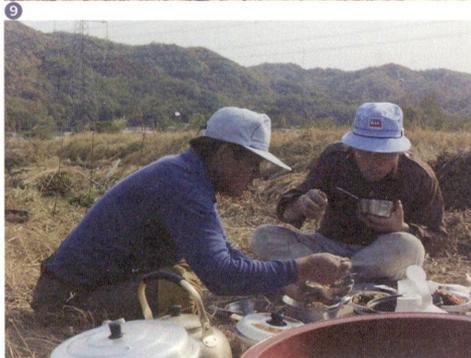


4



5





- ⑥ 피살이 풀 뽑기(1993)
- ⑦ 벼 베기(1992)
- ⑧ 새참시간(1992)
- ⑨ 타작하기(1994)
- ⑩ 벼 나르기(1992)
- ⑪ 벼 말리시는 시부모님(1992)

20여 년 간 뇌경색으로 고생하시던 시부모님의 몸이 집안일을 하시기에 많이 불편해지면서, 우리와 같이 살자는 말씀을 하셨다. “네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 같이 살자. 신장에서 살자고 하면 신장에서 살께...” 이런 상황을 아이들에게 얘기 했더니 “엄마가 힘이 드셔도 고골에 가서 모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파트로 오시면, 밖에도 못 나가시고 간혀서 아무것도 못하실 텐데 사시던 곳에서 사시면 밖에도 나가시고, 동네사람들도 만나실수 있으니 두 분을 위해서는 그게 좋을듯해요.” 내가 많이 힘들겠지만 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는 기특한 마음을 받아들였다. 애들은 아파트에 그대로 살게 하고 2009년 1월, 우리 부부는 침대와 옷가지만 가지고 고골로 들어왔다.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시간이 흘렀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5년 차이로 돌아가셨다. 시부모님 두 분이 사시던 자리에 이제는 우리 부부만 남아 내미길을 지키며 살고 있다. 어머니 가시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방에 시부모님 사진을 놓아두었더니 손자 손녀들이 얘기 때 뵈었던 증조할머니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 ① 시부모님(1960년대)
- ② 시부모님 결혼 50주년(1993)
- ③ 시어머니와 손녀 소율이(2014)



우리부부에게는 꿈이 있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면 캠핑카를 사서 국내 여기저기를 유람하기로 했다. 재미 같은 남편을 쉬게 하며 여유를 찾게 하고, 베풀이 같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퇴직한지 4일 만에 남편의 몸에 큰 이상이 생겼다. 신부전이니 투석을 준비하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그 해는 우리부부의 회갑이 되는 해이기도 했다. 아이들은 가족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다. 그러나 여행날짜를 열흘 남겨 놓고 남편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 응급실로 가게 되었다. “이제 투석을 해야 합니다.” 앞이 캄캄해졌다. 아이들은 가족사진을 찍자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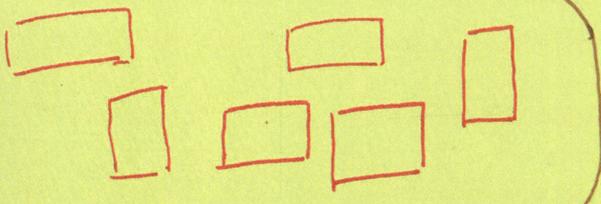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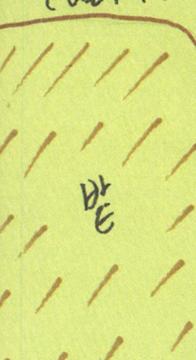
덕 풍천

남향

교동
사거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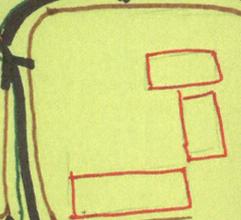


신창
(교동사거리) ←



문정네
(나뭇길카페)

상문네



마녀네
마을
히만
(휴먼점)

연당
(두손어님)

재광네
(천년화점)

재근네

태창네

문주네

훈아네

비밀장소

지영네
(이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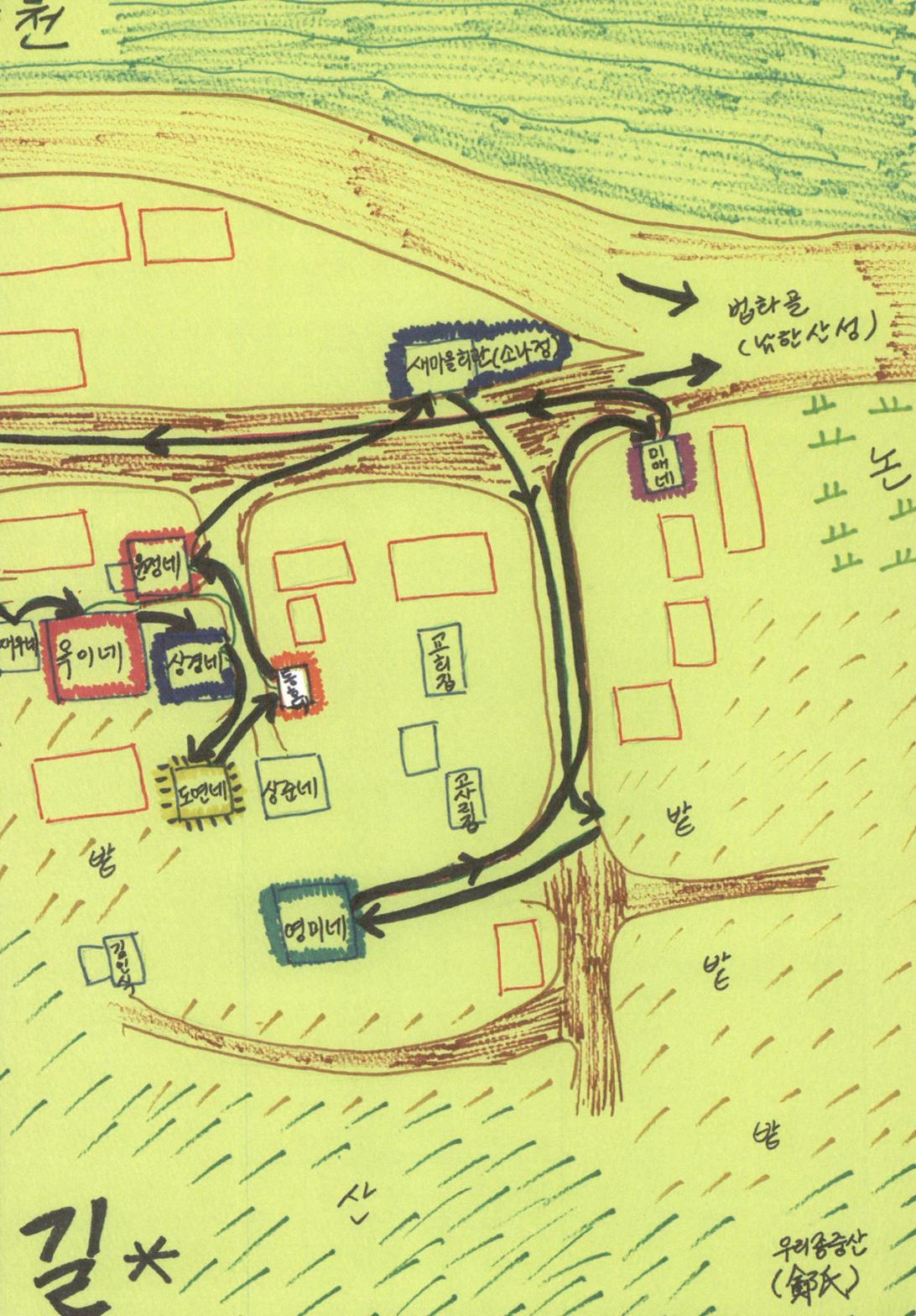
산

산

황골

밭

*내미



새마을회관(소나정)

법라골 (뽕산산성)

유미네

윤정네

우이네

상경네

공희점

도연네

상준네

공자점

영미네

밭

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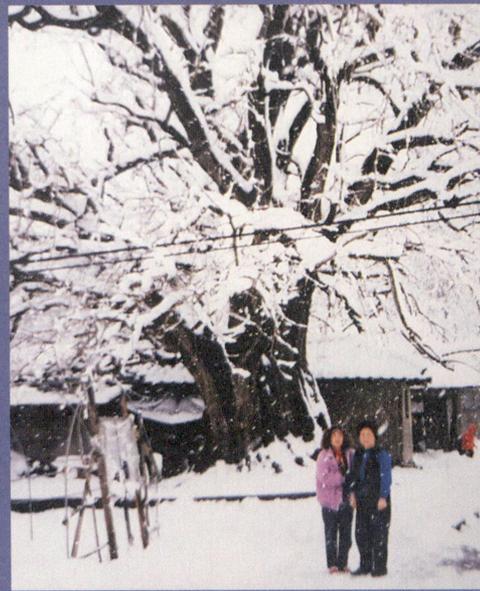
밭

밭

논

길 *

우리중산 (鄭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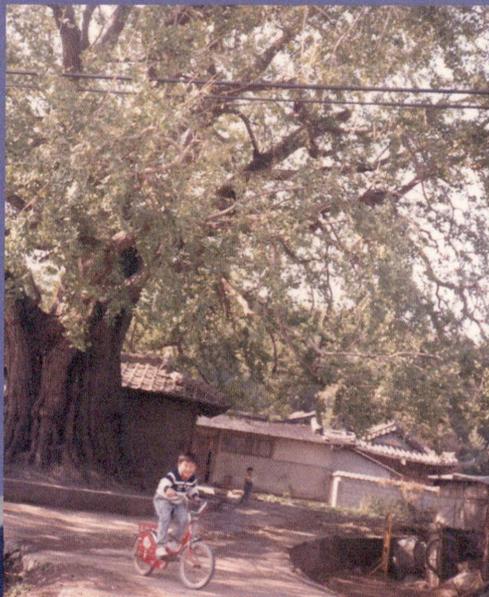


↑ 봄, 여름, 가을,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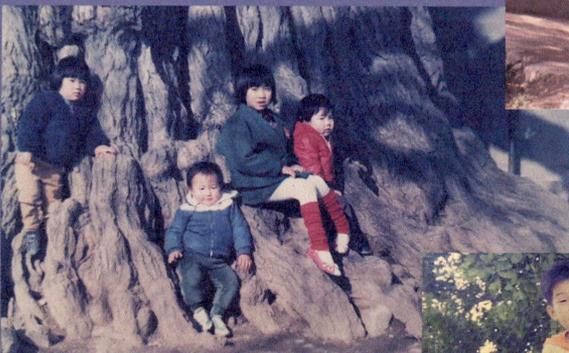
← 60년대



↓ 1989년



↓ 198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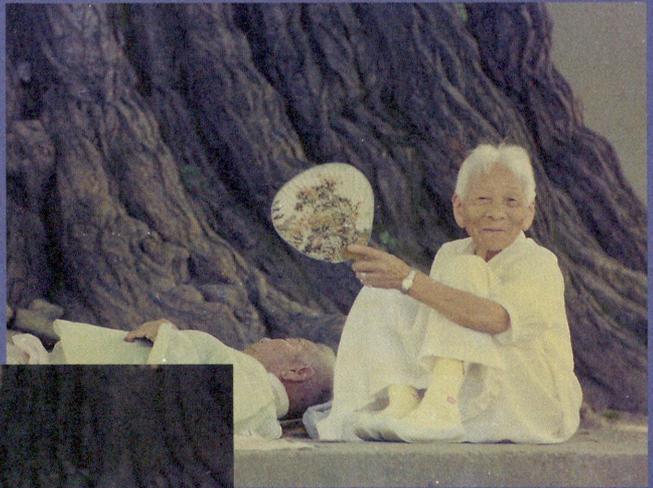
1993년 →





← 1993년

↓ 1993년



← 1994년

재광네와 천년의 집

은행나무의 주인이었던 재광네가 집과 땅을 팔고 나가면서 '천년의 집'이라는 식당이 들어섰다. 몇 년 후 감북동 사람이 이 집을 사서 크게 건물을 짓는 다며 뒤에 있던 훈아네 집까지 사서 모두 헐어내었는데, 제3신도시 발표로 건축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지금은 풀이 무성하고 고라니가 뛰어노는 풀숲이 되었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 집 앞에서 제기차기, 고무줄놀이, 자전거타기, 사방치기 등을 하면서 놀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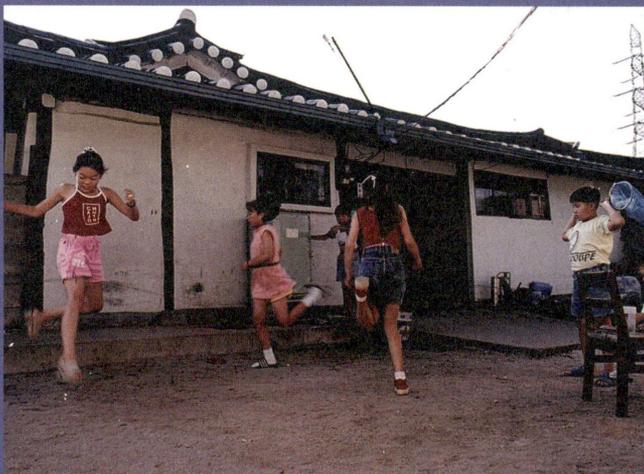


← 재광네 집(1993)

재광네 당숙모,
왼쪽이 나의시어머니 →



← 재광네 집 앞,
고무줄 놀이 하는 아이들(1995)



재광네 집 앞,
제기차는 아이들(1990) →



↓ 은행나무와 재광네 집



천년의 집(2011) →



← 허물어지는 천년의 집(2016.11)

태창네(까까네)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신 태창네 아줌마는 내미길 아래모퉁이의 제일 끝에 사신다. 강원도 화천에서 사시다가 6.25때 엄마와 둘이 피란 나와 고골에서 살기 시작하셨다. 돌아가신 엄마가 사탕장사를 하셔서 까까네라 불리게 되었다. 혈혈단신이신 아저씨가 외롭다고 아이를 많이 낳으셨다.

태창네 아줌마는 아침 7시 반이 되면 버스를 타러 나오신다. “이렇게 일찍 어딜 가세요” “병원에 가요.” “병원이 이렇게 일찍 문을 열어요?” “그럼 8시면 열지.” 고골 사람들이 애용하는 **의원 원장은 아주 친절하고 어르신들의 아픈 곳을 잘 봐드린다. 아줌마는 다리가 아프셔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덩이로 다니시면서 발일을 하신다. 그것도 아주 많이.

“아줌마, 아프신데 이제 그만하세요.” “집에 있으면 더 아파요, 그래서 나오는 거야”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으시고 일을 많이 하신다. 올해부터는 그냥 걷기가 힘들어서 구루마를 밀고 다니신다. 매일 개울 건너에 있는 논을 들러 노인정으로 가신다. 물이 있나, 비가 잘 자라나 궁금하기도 하고 운동 겸해서 노인정으로 가신다.

↓태창부모님 결혼식





← 태창네 집

↓ 병원에 가시는 태창네 아줌마



↓ 젊은 시절 아줌마 부부



← 식구들이 많아 매우 바빴던 맷들



태창네 아저씨와 사랑하는 손주들 →

태창네와 문규네 사잇길

태창네서 문규네로 가는 사이에 황골로 넘어가는 산의 입구가 나온다. 그곳에 창고가 들어서서 길이 아주 웅색하게 되었다. 나는 봄이 되면 새벽에 봄나물을 캐러 그 곳에 자주 간다. 나만의 비밀장소이다. 여름이 되면 원추리 꽃이 피고 칩과 다래냉쿨이 늘어지고 풀이 우거져 오솔길이 된다. 밤나무가 많아 가을에 아람이 벌면 새벽에 밤을 줌의 재미가 있었다. 예전에는 산 넘어 동네 황골마을과 농사일도 같이하고 모든 것을 공유했다.

내가 가게를 보던 예전에, 농사철이 되면 막걸리를 사러 황골에서 이 고개를 뛰어 넘어오시던 똥똥이 아줌마가 계셨다. 황골에 있는 논에 새참을 이고 다녔던 길이었고, 나의 시어머니는 뜨거운 소죽을 이고가다 데여서 머리가 빠졌던 길이다. 황골에는 논이 많아 내미길 사람들도 그곳으로 일하러 많이 다녔다. 많은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자동차로 이동하니 이 길을 이용하지 않는다. 겨울에는 낙엽이 쌓여 푹푹 빠지고, 여름이면 풀이 우거져 길을 덮고 있다.



문규네

문규네 집에는 갖가지의 꽃이 계절에 따라 피고지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다. 키다리병장나물, 잠나리, 풀헝죽도, 방풍나물, 상사화, 비비추, 접시꽃, 감, 앵두, 머루나무, 파, 고추, 가지, 오이, 밀, 감자, 마, 더덕 등 다양한 야생화와 채소, 과수가 자라고 있다.

우리 동네서 유일하게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집이다. 결혼하여 큰집에서 살다 아이 낳고 60년 전 살림하면서 지은 옛집을 유지하며 사신다. 예전에 집을 지을 때에, 낮에는 일하고 저녁때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에-헤라, 지경이여!”하며 밧줄을 맨 큰 돌을 여러 사람이 들어 올렸다 농기를 반복하면서 땅을 다지는 지경다지기를 한 후에 집을 지었다고 한다.

문규네는 남이 짓다가 만 덜된 집을 샀는데, 마루며 작은방은 아줌마 아저씨가 손수 지으셨다.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회상하시는 아저씨. 젊었을 때 농사를 지으면서 둔촌동으로 일을 다니셨는데 “그때 아주 더운 날에 힘든 일을 많이 해서 지금 이 병이 걸린 거예요.”하신다



← 겹 접시꽃



문규네 집.
자식들이 와서 일을 거든다 →

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마당에, 감나무와 여러 가지 꽃들이 있고, 봉당이 있으며, 2017년 여름까지 불을 때는 아궁이가 있던 부엌이 지금은 입식으로 편리하게 바뀌었다. 마루 벽에 식구들 사진액자가 주욱 걸려있어 새로 짓기 전, 내가 시집 왔을 때의 우리 집과 똑같다. 그 액자의 사진 속에서 우리 집에도 없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발견하고 매우 반가웠다. 아저씨는 내 시아버지와 동갑이시고, 아줌마는 내 시어머니와 동갑이시다. 친목을 같이 하시며 관광을 같이 다니셔서 시부모님과 함께 있는 사진이 많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마루나 방에 액자를 많이 걸어두었는데 이곳이 그래서 추억의 집이 되었고, 나의 새댁 시절을 생각나게 해 주었다.

아줌마 아저씨 두 분 모두 아프셔서 몸이 불편하지만 아줌마는 어찌나 부지런하신지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신다. 가날픈 몸매에 어떻게 그렇게도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저혈당이 오면 정신을 못 차리시고 고생을 하신다. 아저씨는 걷는 게 불편하셔서 문밖을 나오실 때면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뒷발을 돌아보면서 채소가 잘 자라나 살펴보시며 아줌마나 아들이 일하는 것을 감독 하신다. 대문 앞과 옆 발에 의자가 놓여있어 그 곳에 앉아서 일광욕도 하시고 또, 나를 만나면 말씀도 잘하신다. 기억력이 좋으셔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저것 여쭙보기도 한다.

↓ 문규네 마루(2018)



“아저씨 귀찮게 해드린 거 아닌가요?” “아니예요, 나는 좋아요. 나 혼자 말 안하고 있으면 치매 올 수도 있어요.” 하신다. 아저씨는 학구적인 면이 있으셔서 나의 호기심과 궁금증에 대답을 아주 잘해주신다. 기억력이 아주 좋으셔서 많이 알려주신다. 내게는 매우 고마운 분이시다. 신장에 사는 큰아들이 아침저녁으로 올라와서 일을 도와드린다. 창밖으로 자전거가 보이면 큰아들이 와있는 것이다.

나는 작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으로 문규네 대문이 열렸나 보는 버릇이 생겼다.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아줌마가 저혈당으로 밤에 응급실에 다녀오신 이후부터 아줌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나만의 방법이다. 아침 일찍이 대문이 열려있으면 안심을 하고 나의 일상생활이 시작된다. 며칠 동안 아줌마를 만나지 못하면 걱정이 되어 밤에라도 잠시 뵙고 와야 마음이 놓이곤 한다.

↓ 아저씨, 문규, 아줌마 그리고 자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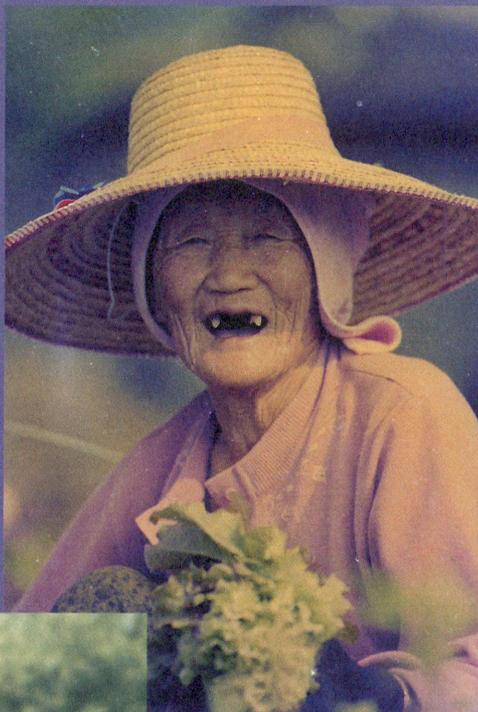


훈아네

문규네 옆에 훈아네가 살았었는데, 몇 년 전에 집을 팔고 신장으로 이사를 하셨다. 훈아네 할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100세를 넘기며 장수하셨다.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신 우리 시어머니를 잘 챙겨 주셨다. 훈아네는 우리와는 먼 친척이 된다.

아저씨와 아줌마는 내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 내가 동네일을 보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 두 분이 신장으로 이사 가신다고 했을 때, 마음이 매우 허전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동네 행사나 큰일이 있으면 두 분이 오셔서, 여전히 잘 도와주신다. 훈아네 집 뒷걸에 배나무가 자라고 큰꽃아리가 꽃이 핀 것을 올해 봄에 처음 발견했는데 보물을 발견한 듯이 기뻐다.

↓ 훈아네 할머니(1993)



↓ 훈아네 아줌마. 부추밭에서(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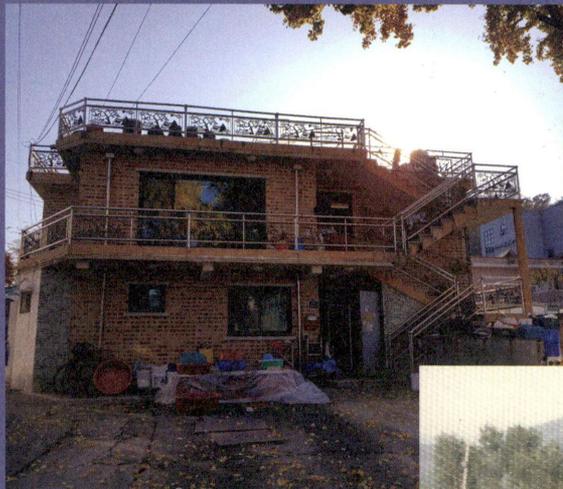
↓ 큰꽃아리꽃



미녀네

은행나무 옆에 사시는 미녀네 아줌마도 얼마 전부터, 구루마를 끌고 운동 삼아 동네를 다니신다. 허리와 다리가 많이 아프셔도, 아침저녁으로는 농사일을 많이 하신다. 이른 봄 어느 날 옥상에 앉아 계시는 아줌마를 발견하고 올라가 보니, 장을 담그시고 힘이 드셔서 앉아 계시는 거라면서 하소연을 하신다. “신도시가 되어 수용되면 나는 못가. 나 산도막에는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나를 끌고 다니느라 자식들이 고생하잖아.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나는 못살아. 여기가 좋지.” 마음이 매우 아프다. 몸이 아프시니까 자식들이 일을 못하게 말리는데, “어떻게 안 해. 내가 안하면 안돌아가. 안할 수가 없어” 하신다. 하나같이 안타까운 말씀만 하신다.

↓미녀네 집



↓김매시는 미녀네 아줌마



목도노인정과 동네사람들

미녀네 집과 등을 대고 있는 건물, 마을회관 겸 목도 노인정이 있다. 어르신들의 쉼터이며 노년에 여가를 즐기는 곳이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하고, 놀이도하며 매일매일 모이는 곳이다. 신장으로 이사하신 분들도 매일 같이 오신다. 일주일에 한번 젊은 사람들이 모여 켈트나 뜨개질 등 취미생활도 한다.

↓ 현재 노인정



↓ 옛날 마을회관(1970)



← 복달임(1970)



↓ 복날 물놀이(1970)



↓ 고골 잔치 때 동네사람들(1993)



↓ 강화도 야유회(2018)



재영네와 연당

마을회관 골목 안으로 올라가면 재영네가 살던 곳이 나오는데 집 앞에 연당이 있어 논농사에 도움을 주었고, 봄에는 꽃이 만발하여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지금은 연당자리에 두손어닝건물이, 재영네 집 자리에는 이화원 등 아주 큰 건물이 들어서 있다.



↕ 재영네 집(1994)



← 부서진 재영네 집 자리(2011)



↓ 연당(1980년대)



*연당: 연못

↓ 연당에 지어진 두손어닝 건물(2019)



상은네

골목을 돌아 나와 골목 입구 큰 길가에 사시는 상은네
아침마는 아침진지만 드시면 밖으로 나와서 어디라
도 걸어 다니신다. 아래로는 서부농협, 하남시노인복
지관까지, 위로는 중촌마을까지 지팡이를 짚고 천천
히 다니신다. 젊어서는 농사일도 많이 하셨지만 지금
은 농토가 없어 일은 못하시고 오로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네를 걸어 다니시는 일만 하신다.

↓ 상은네 옛집(출처:하남시)



↙ ↓ 상은네 집(2019)



옥이네

큰 길을 따라 가면 동네 가운데 웃모퉁이가 시작되는 곳에 옥이네 집이 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었다. 아랫모퉁이 재영네 집 위쪽 산 중턱에 아주 큰 한옥에서 살다가 오래 전에 그 집을 헐어 동네가운데로 아우형제(옥이네, 재우네) 두 채의 집을 짓고 내려 오셨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마당 안쪽에 자리공 꽃이 자란다. 그 아래에 연자방아의 부자재가 바닥에 있고, 아주 커다란 벼 향아리가 여러 개 담장 옆으로 놓여 있다. 옥이네 아저씨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아줌마는 허리가 아파 여러 번 허리 수술을 하셔서 독한 약을 드시며 어렵게 생활 하셨다. 몇 년 전에 노인정에 가셔서 평소 보다 그날 저녁에는 고기가 맛있다고 더 달라고 하면서 아주 맛있게 잡수시고 수박까지 잘라 달라고 하여 잘 드시고 집으로 가셨는데, 그 다음날 소파에 앉은 채 돌아가셨다.

자식들은 밖에 나가서 살고 있어 지금은 나그네들만이 그 집을 지키고 있다. 안마당에는 풀헝죽도, 참나리, 도라지꽃이 피어있고, 채소들도 자라고 있었다. 담장 밖으로 보라색 도라지꽃이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활짝 핀 참나리 꽃에 나비가 앉아있다. 6월에는 넝쿨 장미가 예쁘게 피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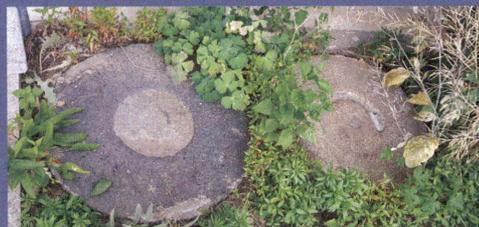
↓ 옥이네 아줌마와 손자(1992)



↓ 옥이네 집



↓ 연자방아 부자재



재우네

옥이네 바로 옆에 재우네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장으로 이사하시고 그 자리에 물류창고가 들어서있다. 옥이할아버지께서 새끼 꼬는 기계를 작은 아들네 집에 두고 새끼를 꼬셨다. 재우네 아저씨는 농사일도 많이 하셨지만 밖으로 나가 일을 하셔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셨다. 살림이 어려웠던 우리 집은 아이들 옷도 잘 사주지 못했는데, 재우네 남매는 예쁘고 좋은 옷만 입혀서 우리 시어머니의 부러움을 사곤 했다. 마음씨가 착하고 넉넉하신 아저씨는 항상 웃으시며 마나님과 함께 여기저기 맛집을 다니신다. 아마도 우리 동네에서 가장 호강하며 재미있게 사시는 부부시다. 그곳에 다녀와서 아줌마는 이런저런 자랑을 많이 하신다. 동네 아줌마들은 부럽기도 하고 샘을 내기도 하신다.

↓ 재우네



↓ 재우네 사촌 동서들



상경네

옥이네 옆에 있는 상경네 밭에는 부지런하신 아줌마의 손길이 닿아,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자라고 있고, 안마당에도 더덕이며 참나리, 도라지, 대추나무 등이 예쁘게 반겨주고 있다. 몸이 불편하신 아저씨는 대문 밖 의자에 앉아서 오고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신다. 내가 “마늘은 어떻게 말리세요?”했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고 옥상까지 데리고 가서 동네 설명도 해주신다.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앞뒷집의 최씨가 일을 많이 도와줘. 아주 고마운 사람들이야” 하신다. 아마도 몸이 불편하신 아저씨를 거들어 드리나 보다. 사람이 그리워서 누구라도 보면 말씀을 많이 하신다. 대문 밖에도 접시꽃, 끈끈이 대나물, 참나리, 풀헹죽도, 자주달개비등 많은 꽃들이 눈을 호강시켜준다.

6월 말경 그 옆을 지나가다가, 신장에 사는 딸 상경이가 식구들과 같이 와서 부모님을 도와 마늘을 캐고 있어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아저씨는 신도시 발표 후 몸이 더 아프시고 텔레비전을 보며 울분을 토하신다고 한다. 신도시 발표가 여러 사람 건강을 해치고 있다. 평생을 몸 바쳐 휴과 함께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야 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 상경네 집



대추나무와 참나리 꽃 →



마늘 캐는 날(2019) →

도연네

상경네를 돌아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도연네가 살던 집이 나온다. 텃밭에 야콘, 고구마, 고추, 양배추, 케일, 돼지감자 등 여러 가지 채소들이 깔끔하게 줄지어 있었다. 도연네 집 뒤쪽 산에 몇 백 년은 되었을 느티나무가 있었다. 앞집 아저씨가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과 새알을 꺼내기도 하며 재미있게 놀기도 하던 곳이라는 말을 들었다. 피꼬리는 휘청이는 가는 나뭇가지에 알을 낳아서 꺼내기가 어려웠고, 알을 꺼내면 다른 새보다 사납게 저항하며 쫓아왔다고 한다.

도연네는 농토가 많아 기계로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도연이 손을 빌어 봄에 기계로 모를 내거나 가을에 벼를 베어 타작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우리 집 일을 할 때 내가 사진을 찍어 그 모습이 남아있다.



← 도연네 집

↓ 벼를 베는 모습, 왼쪽에 도연과 오른쪽에 선동(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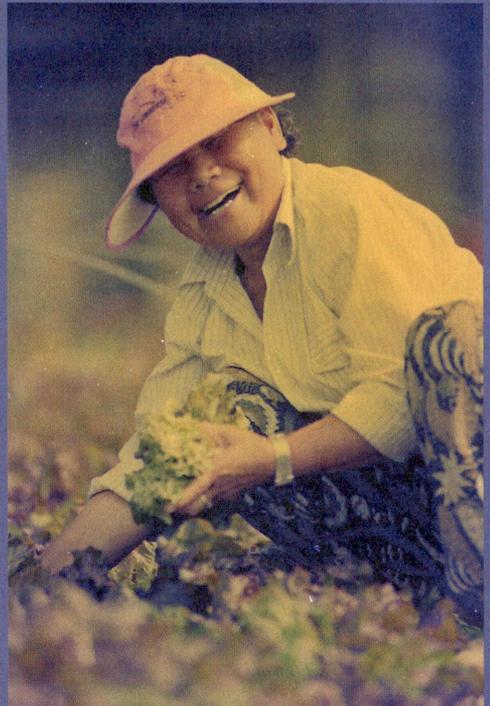


동호네

골목 끝집인 도연네를 돌아 나오니 동호네가 살던 집 붉은 벽에 담쟁이가 그림을 그리며 올라가고 있고, 그 옆으로 해당화가 피어있다. 마당 입구에 따지 않아 새 빨간 앵두가 사람의 손을 기다리고 있다. 동호네 아줌마는 자식들을 따라 도시로 나갔지만 고향이 그리워서 가끔 우리 동네 노인정에 오셔서 며칠씩 계시다가 시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건강이 안좋으신지 못 오신다. 젊은 시절에 동네 분들과 상추를 따시면 일하시던 모습이 있다.



← 동호네 집



동호네 아줌마(1993) →

윤정네

골목 입구의 윤정네 밭에는 철이 지난 여러 가지 쌈 채소들은 장다리가 올라오고 가지가지 색깔의 꽃들이 피어있어 아름다운 풍경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참을 서서 바라보는데 꽃 위로 아주 많은 벌들이 꿀을 찾으러 앵앵거리며 분주히 날고 있다. 집 앞에는 따지 않아 자주색으로 말라버린 딸기, 상계동에서 보던 흰백합화, 흰색 천사의 나팔꽃, 톱니 같은 꽃잎의 색다른 접시꽃이 역광에 환상적으로 보인다.

구순을 바라보시는 윤정이 할머니는 노인정 관리 감독을 하시는 기둥 같은 존재이다. 우리 시어머니의 당고모이신 할머니는 시어머니를 이곳으로 시집오게 도와주신 분이다. 노인정에 먹을 게 있으면 잘 두었다가 내가 가면 손에 쥐어 주신다. “아범은 어찌니? 밥을 잘 먹어?” 항상 남편의 건강이 걱정이 되어 안부를 묻곤 하신다. 내 휴대전화 바탕화면에 막내 손녀 사진이 나오면, “아유 예뻐라” 하시며 화면을 꾸욱 누르셔서 곤란해지기도 했다.

항상 넉넉하고 여유로우신 마음의 소유자이시며 봉사를 많이 하시는 노인정 총무 윤정네 아저씨, 모든 일에 열심히 똑부러지게 노인들의 먹거리를 책임지시는 윤정네 아줌마. 내미길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 살고 있다. 윤정네 아줌마는 아저씨가 1977년에 서독에 일하러 가셨는데 시댁에 혼자 남아 장사를 하면서 시어른들 모시고 시동생들, 어린 아이들 키우다가 나중에 독일로 갔는데 그곳에서 가족이 함께 살던 때가 제일 행복했고 그리운 시절이라고 말씀하신다.

← 윤정네 집



↓ 1970년대 윤정네 아줌마와 아이들



↓ 윤정할머니와 노인정에서



현옥이네_옛날 새마을회관자리. 소나정식당

큰길로 나와 길가에 황기가 노란 꽃을 피우고, 하수 오 덩굴이 길게 번어간다. 지금의 마을회관으로 이사 오기 전 새마을회관 건물인 식당 '소나정'자리에 오니 복숭아, 살구가 익어가고 채송화가 햇빛을 받아 아름답게 보인다. 개량종 자주색 으아리꽃, 이름 모르는 화초, 화병에 꽂아 놓은 수국과 자리공이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회관이 이사 나가고 이곳에서 현옥이네가 몇 년간 사시다가 신장으로 이사하셨다.

몸이 아프셨던 아저씨는 고향이 그리울 때면 택시를 타고 우리 집으로 오셔서 시어른들과 말씀 나누신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점심으로 냉면을 해드렸다. 평소에 밥은 입에도 안대고 물, 술만 드시던 분이 냉면은 아주 맛있게 한 그릇을 다 잡수시곤 하셨다. 이제는 저 세상 사람이 되셨다. 마음씨 착한 현옥이네 아줌마는 가끔 노인정에 오시면 잔잔한 말씨로 반갑게 나를 맞아주신다.



↑ 옛날 우리 마을 회관



↓ 소나정 식당

← 현옥이네 아줌마(1993)



현옥이네 아버지(1992) →



영미네

웃모퉁이 맨 위 골목길을 따라 산 쪽으로 한 참을 걸어 영미네 집으로 올라가는데 왼쪽에 있는 밭의 작물들이 나를 유혹한다. 살구, 자두, 복숭아, 앵두, 옥수수, 대추, 토마토, 자주감자, 아스파라거스, 단호박, 토마토, 가지, 호박, 강황 등. 영미네 석축 사이에 분홍 연산홍이 피어있고, 마당의 소나무아래 맥문둥과 풀협죽도가 활짝 피어 있다.

영미네 집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 노인정 회장이신 아저씨와 마음이 넉넉하신 아줌마는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었고, 내가 가면 조카(남편) 먹게 가지고 가라며 이것저것 싸주셨다. 항상 좋은 얘기만하시고 노인정에도 반찬을 많이 해오셨다. 편찮으셔서 병원 출입은 하셨지만 2018년 1월에 갑자기 저세상으로 떠나셨다. 아줌마만 의지하던 아저씨가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자식들의 보살핌이 극진하여 이제는 잘 극복하시고 계시지만 몸이 여기저기 아프셔서 걱정이이다.



← 영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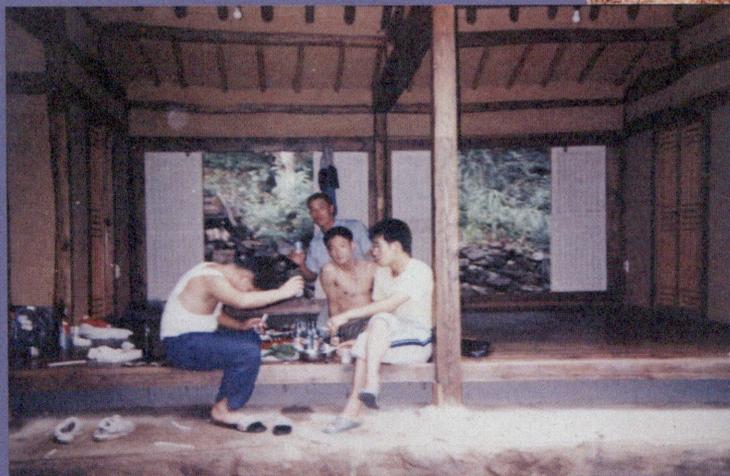


↑ 맥문동

↓ 영미네 옛집



↓ 영미네 옛날 집 마루



미애네

언덕을 내려와 내미길 끝에 있는 미애네 밭에 가보니 우리 동네에서 처음 보는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다. 부지런한 미애 엄마는 밖으로 일을 다니면서도 텃밭에 여러 가지 채소를 심어놓았다. 여기에 오면 미애네와 각별히 지내시던 성규네 아줌마가 생각한다. 성규네 집은 공원으로 수용되어 지금은 신장으로 이사 갔다. 폐지 주우실 때 남편과 함께 집까지 폐지를 가져다 드리고 행사 때마다 챙겨드렸더니 볼 때 마다 “이장님, 너무 고마워요. 잊지 못해요”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는 마음 착하신 아줌마. 고향을 떠난 외로움에 미애네 집에 오셔서 발일도 도와주고, 영미네 아줌마와 친구로 지내시면서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영미네 아줌마 돌아가시고는 밭길이 뜸해지더니 이제는 신장에서 시간을 보내시느라 내미길에 오시지 않아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다.

↓ 미애네 집



은정네_ 지금은 나뭇길 카페

다시 큰길을 따라 아랫모퉁이로 내려와 은행나무 입구에 있는 내미길의 마지막 코스인 나뭇길카페에 도착했다. 여기는 은정네가 살던 집인데 3년 전에 외부 사람이, 이집을 사서 리모델링하여 카페를 차려 아주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꾸며놓았다. 마당에는 길냥이들의 보금자리가 있고, 벚나무, 대추나무, 명자나무, 애기단풍, 대나무, 오죽, 백합, 박태기, 병꽃나무, 남촌, 꽃창포, 초롱꽃, 이름 모르는 야생화들이 가득하다.

은정네가 나뭇길 카페로 변하고 나는 가끔 이곳에 들러 담소를 나눈다. 얼마전 주인장에게 아흔이 넘어 시 쓰기를 시작한 시바타 도요의 시 중 '저금', '하늘', '비밀'을 읽어보라고 적어서 가져다 주었더니 좋은 시라며 아주 좋아했다. 몇 장을 인쇄하고, 코팅해 탁자에 놓으니 카페에 오는 손님들이 시를 읽고 좋아한다며 환하게 웃는다.

↓은정네 옛집(1993.봄)



↓나뭇길 카페(2019)



↑은정네 옛집. 돌담과 은행나무(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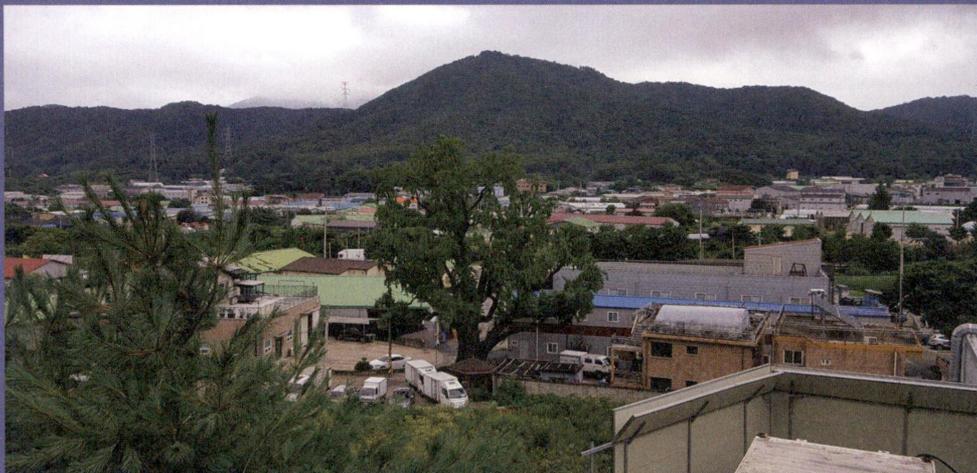


가게 집(우리집)

내가 글을 쓰는 새벽인 지금도 창문을 통해 남편이 김장발을 만드는 소리가 들린다. 몸이 아파서 밤새 고생하여도 새벽이면 작업복을 입고 아래층 뒷밭으로 날마다 내려가는데, 제3신도시 수용이 결정되어 소일거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아진다.

수용된 상계동의 우리 집 자리를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산을 보고 미루어 짐작해서 찾아갔듯이, 고골이 제3신도시로 수용이 되면 삼각형의 객산과 천년된 은행나무를 보고 우리 집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까? 창 밖에서 매미 소리가 처량하게 들린다.





↑ 멀리 객산이 보이고 마을 가운데 은행나무가 보인다(2019.07)

↓ 쌍무지개 사이로 보이는 객산(2019.08.15)



선린촌을 아시나요

글 박미미 · 사진 박미미, 임형수 · 자료제공 동부선린교회



한동안 마음의 여유 없이 분주하게 살았다. 이웃이 보내는 사랑의 언어, 몸짓을 느낄 수 없었다. 어느날 선린촌을 산책하게 되면서부터 오아시스에 물이 서서히 스며들 듯 잔잔하게 선한 이웃이 다가왔다.

이제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보니, 사랑의 언어가 정확히 들려 큰 울림이 되고, 사랑의 향기는 거대한 몸짓이 되어 온 누리에 퍼진다.

선린촌 이웃의 향기를 담아본다.



*하남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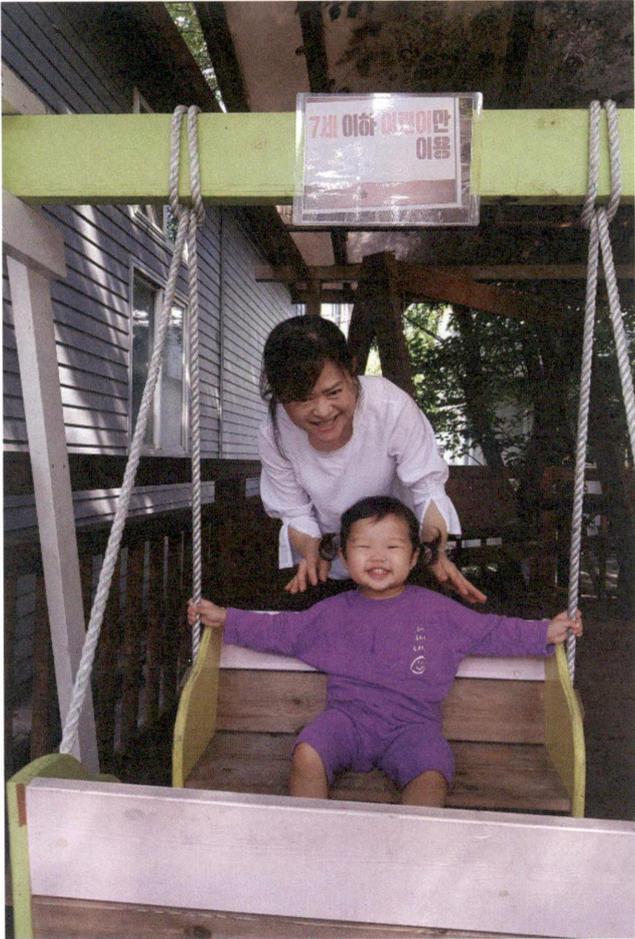
○ 나, 손녀 서은이와 선린교회

나는 요즘주 주말마다 교회 앞마당에서 이제 3살이 된 손녀 서은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걷곤 한다. 낮가림이 심해서 첫돌이 지나도 엄마, 아빠 아니면 어느 품에도 안기지 않던 서은이가 이제는 ‘할미, 할바, 삼~쫘’이라고 부르며 스스로 없이 안긴다. 성경에 나오는 식물 이름을 딴 ‘로템 나무 아래서’라는 예쁜 꽃말이 매달려 있는 선린교회 정원에는 나무로 된 미니 그네가 있다.

이제는 제법 목직해진 손녀를 들어 조심스레 그네에 앉히고는 살며시 그네를 밀어준다. ‘하나’ 하면서 밀면 손녀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할미의 입을 바라보며 조그마한 소리로 ‘하나’ 따라 한다. ‘둘’ ‘두~울’, ‘셋’ ‘세~엿’, 그 다음은? 하고 물어보면 ‘네엿’ 한다. ‘다섯’ 이제는 따라하지 않는다. 그 이상은 모르는 것 같다. 서은이가 금방 싫증이 났는지 두리번거리다가 시소를 태워달라고 한다. 옆에서는 서은이의 또래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다. 손때 묻은 세발자전거를 타는 아이, 덜덜덜 소리가 요란한 미니카를 타는 아이, 비눗방울을 후우~ 불며 비눗방울에 따라 움직이는 아이들, 평화로운 주일 예배 후의 정겨운 풍경이다.

오래된 나이테를 자랑하는 느티나무 아래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한풀 꺾인 무더위를 식혀주고, 어른들은 모여서 오손 도손 대화를 나눈다. 노란색 스틱의 믹스 커피 한잔이 교회 안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의 디저트 역할을 톡톡히 한다. 삼삼오오 모여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다. 입주가 지나서일까, 코발트빛 하늘이 조금 높게 보이며 멍게구름이 매우 아름답다. 매미 소리가 크게 들리니 서은이가 ‘매앵매앵’ 하며 따라 소리를 낸다. 땅바닥에 개미들이 먹이를 찾아다니며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운지 아장아장 걷는 서은이는 개미를 피해서 걸으려고 한다.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로운 속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정원에 예쁘게 피어있는 옥잠화와 초록잎들이 안정감을 더한다. 그중 맥문동꽃의 보랏빛이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나, 시어머니와 선린교회

내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시어머니는 함경도 명천이 고향이신 데 6.25 전쟁 이전, 어린 나이에 가족들과 함께 남쪽으로 넘어오셨다고 한다. 군인이셨던 시아버님에게 중매로 시집을 오신 후, 경상도 특유의 무뚝뚝한 할머니의 매서운 시집살이를 하셨다 한다. 6.25 전쟁 후 1950~60년의 가난한 시골 삶은 기록치 않았고, 결국 시어머니는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어느 날 보따리를 싸들고 산등성이를 넘어 야반도주를 해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 후 자식들을 서울로 데리고 오셨다고 한다. 시아버님은 제대 후 한때는 이름 있는 회사에 다녀, 근사한 집도 마련해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지만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단칸방 신세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시아버님이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다가 높은 곳에서 낙상 후 고관절을 다치셨다. 여러 차례 다리수술을 하며, 장기간 병원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생활은 더 어렵게 되었다.

이복이 고향인 시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매우 훌륭하셨다. 특히 가자미식해가 일품이었다. 참가자미에 소금 뿌려 하루 정도 절이고 무도 굵게 채를 썰어 절이고 좁쌀밥에 고춧가루 엇기름 등 각종 양념을 하여 항아리에 쪄켜이 넣어 삭혀 먹는 겨울철 별미, 가자미식해는 간장계장처럼 밥도둑이었다. 또 회를 좋아하시는 시아버님과 남편을 위해 가을철이 되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를 많이 사 오셔서 손수 회도 뜨고, 전어구이를 해서 가족들의 입맛도 챙겨 주셨다. 유난히 음식 솜씨가 좋은 탓에 집안이 어려울 때는 식당도 운영하셨다.

기쁨씩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음식을 하셔서 교인들과 나누어 먹는 일도 행복해 하셨다. 이렇게 음식을 해서 먹이는 일을 항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생각하시면서 늘 가스레인지 앞에서 요리를 해주시던 시어머니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도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다.

결혼 후 나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은 안색이 좋지 않은 상태로 내게 말을 건네셨다.

“어머야, 어머야, 내가 요즈음 살이 많이 빠지는 것 같다.”

“아~ 그래요? 어머님, 몸매가 날씬해지셔서 보기는 좋아 보여도, 나이 드셔서 살 빠지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 얼굴도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고, 다리가 유난히 말라 보였다. 감기를 앓고 난 후 잔기침을 계속하시는 줄은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기침 소리를 듣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종합 병원에 갔을 때에는 이미 폐암이 9cm 정도 자라 있었다. 의사는 항암 치료를 받을 것인지 의논하라 했고, 우리 가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것에 마음을 같이 했다. 시어머님은 여러 번 항암 주사를 맞고, 잘 이겨내서 4cm로 암의 크기가 줄었는데 결국에는 암이 재발되어 고생을 많이 하셨다.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지면서, 딸들과 같이 기도원에 가는 것 외에는 집에서 큰 고통을 감당하셨던 시어머님이셨다. 머느리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음에도 직장을 그만두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시아버님의 간호 속에 투병하셨다. 직장을 그만두고 시어머님을 돌봐드리는 것이 마땅하였음에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어느 날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신 시어머님은 스스로 주변 정리를 하셨다. 내게는 당신이 아끼시던 에메랄드 그린색의 예쁜 비취 펜던트로 귀걸이를 해 주셨고, 손자머느리에게는 모아 놓았던 금붙이를 녹여, 가늘지만 예쁜 팔찌를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는 주신 선물이 부족하게 느끼셨는지 현금 100만원을 내 손에 쥐어 주셨다.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시어머님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던 어느 날 우리가족은 시어머님을 호스피스 병원으로 모셨다. 그 당시 눈에 본 널찍한 호스피스 병동은 희색빛이었다. 입구부터 무겁게 가라앉은 듯한 분위기로 느껴졌다. 병실은 쓸씨넨스럽고도 고요했다. 호스피스라는 말이 친근감 있게 다가와 편안하게 돌봐주는 곳으로 알고 왔는데 이곳은 웬지 죽음이 가까운 곳으로 보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진통제로 고통을 이기는 것 외에는 말기 암 환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것일까? 아니다, 보살핌을 통하여 암을 이겨내는 기적을 보는 환자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렁였다.

시어머님에게는 가끔씩 목사님과 봉사자들이 찾아와 기도를 해주며 마음의 위안을 주고 가는 귀한 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 진통제 약 기운 때문인지 비몽사몽 상태로 견디시다가, 결국에는 77세의 나이에 하늘나라에 가셨다. 폐암 진단받고 1년도 채 못 사셨다. 남편은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일으켜 달라고 하시고 눈을 번쩍 뜨셔서 ‘어머니가 좋아지고 있구나’ 하며 순간 기쁜 마음이 들었는데 그대로 품에서 눈을 감으셨다고 했다.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난 후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셨다. 2년 정도 막걸리를 벗 삼아 외로움과 허전한 마음을 달래며 보내시다가 돌아가셨다. 나는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하리라 믿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은 때에 나는 비로소 철이 들었다.

나는 큰일을 치르면서 선린교회가 선한이웃으로 내 마음속에 잔잔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의 위안처는 선린교회였다. 가끔씩 선린교회를 둘러보는 날에는 유난히 시부모님 생각이 많이 난다. 시부모님의 흔적이 선린교회 곳곳에 보인다. 시원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며 시부모님의 향기로 느껴진다. 이곳이 재개발로 인하여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 올 때가 많다.

○ 사라질 선린교회

나는 며칠 전 지독한 감기를 앓고 난 후 자고 일어나니 눈에 눈곱이 가득 하여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가까운 안과병원에 가니 결막염이란 다. 눈에 안약을 넣고 며칠을 보내니 좀 나아진 것 같았는데, 그 후로 눈이 점점 나빠짐을 느낀다. 신문을 보니 글씨가 흐릿하다. 눈을 약간 찌푸리며 보니 조금은 잘 보이는데 양미간에 잔주름이 생긴다. 나이 60이 다 되어도 돋보기 없이 책도 읽고 신문도 잘 읽었는데 이제는 눈이 피곤하여 책과 서서히 멀어져 감을 느낀다. 몇 해 전 직장을 다니면서 휴식 시간에 책을 읽으려고 했던 나와는 달리 동료는 책을 거들떠도 보지 않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아 어느 날 물어봤다. 책을 좋아하지 않는냐고. 동료는 “노안이 와서 가까운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라고 대답을 했다. 이제 서야 그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드디어 나한테도 왔구나. 노안이…….’

돋보기 처방전을 들고 나오면서 안경점으로 향하지 않는 나를 발견한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아직은 돋보기를 쓰고 싶지 않다고...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세 살 된 손녀가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할머니로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일까. 오늘도 안경점으로 향해야지 하면서도 양미간을 찌푸리며 신문을 보고 책을 들춰내고 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나의 눈은 더욱 노화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두터운 안경을 맞춰서 써야 할 것이다. 돋보기를 사용함으로써 눈은 더욱 더 편안해지고 책보는 데도 두려움이 없으리라, 사물도 선명히 보이며 세상이 밝게 보일 것이다. 변화의 삶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더 나아가 밝고 희망찬 꿈같은 세상이 열릴지도 모른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협동하며 이어온 선린촌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신도시 개발 지구로 선정되었다. 머지않아 선린촌은 개발이 되어 이곳에 새로운 신도시가 세워질 것이다. 선린교회도 이러한 변화에 순응해야 할지 모른다. 이 자리의 선린교회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둘러보니 교회 건물의 쌓아 올린 벽돌 한 장에도 애착의 마음이 생긴다. 50년 함께 한 느티나무, 은행나무, 벚꽃나무가 유난히 멋있어 보인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선린촌이 내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많이 생각해 보았다. 한마디로 그리움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선린촌이 설립될 때부터 선린교회를 다녀 이제는 팔구십이 넘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통하여 느껴지는 선린촌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내게도 전달이 되었기 때문이리라. 그분들에게서는 사랑의 향기가 느껴진다. 그분들에게서 느껴지는 포근함, 너그러움, 성실함, 이웃사랑의 마음을 나는 읽게 되었기에 선린촌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리라. 한평생을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협동하며 선한 이웃으로 살아오신 이야기는 내게 커다란 표본이 되어 선한 이웃이 되어야지 하는 내게 아름다운 용기를 준다.

나는 그 옛날 1960년대 6.25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웠을 때 협동조합도 설립하면서 하나로 뭉쳐 경제생활도 같이 하고,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선한 마음과 사랑으로 이웃과의 소통을 하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어 한때나마 한국 지역사회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선린촌의 소중한 마을이야기가 오래오래 회자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는 말이 있듯이 선린촌이 없어지고 나서야 더욱더 소중함을 느끼며 그리워하지 않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리워하듯이.....

시간이 흐른다.
세월도 흐른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우리들도 변한다.
이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온다.

이웃사랑으로 뭉친 아름다운 터전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어온 삶은
계속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발자취라 해도 좋겠다.
그 발자취의 흔적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면 더욱 좋겠다.

선린촌 이야기가
선린교회 이야기가

해맑은 모습으로
뛰어 놀던 아이들이 자라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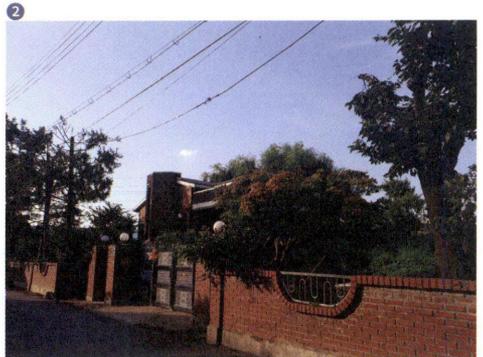
할미의 사랑이
손녀의 마음에 전달되기를...
이 선린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지금도 선린촌 곳곳의 골목들을 거닐다 보면 어디선가 ‘꼬끼오 꼬끼오’
닭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선한이웃(선린)들의 마을’이라
는 뜻의 그보다 더 아름답고 정겨운 지역명이 있을까? ‘선린’이라는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내가 처음으로 선린촌 안의 선린교회를 다니게 된 데에는 이제는 하늘 나라에 가신 시어머님의 영향력이 있었다. 결혼 후 남편이 고교시절부터 다녔던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하남시로 이사를 오면서 이북이 고향이신 한 권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시게 된 시어머님을 따라 가족 모두가 선린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선린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선린촌에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들과 선린교회 교인들을 통해서다. 선린촌은 과거 6.25사변 이후 황폐했던 시대에 기독교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형성된 협동촌이다. 우리나라 양계산업과 신용협동조합의 효시가 되어 그 당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말을 종종 들었다. 나는 늘 ‘선한 이웃마을’이라는 뜻의 선린촌(善隣村) 지역명이 낯설지 않고 정겹게 느껴졌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근거로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3차에 걸쳐서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하였는데, 선린촌 지역이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도시 추진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나마 희미하게 남아 있는 선린촌의 흔적들이 어떻게 될지 염려하는 마음이 앞섰다.

현재 이곳은 대부분 물류창고, 소규모의 공장들과 산업단지, 빌딩하우스 등으로 밀집해 있으며 선린촌의 흔적을 대표하는 선린교회와 낡은 주택 한 채만이 남아 있다. 이처럼 과거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신도시 개발로 인해 그 흔적조차도 사라질 거라는 사실이 안타깝워 남편과 함께 선린촌을 돌아보던 중 남편은 오래된 듯한 시멘트 블록으로 만들어진 건물을 가리키며 내게 말을 건넨다.



3



4



- ① 옛날 양계장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 ② 교산 신도시개발 반대 현수막

“저곳이 옛날 양계 하던 곳이야”

“어디요?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선린촌 지역 내 곳곳에서 교산 신도시 반대라는 현수막이 보인다. 신도시 개발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향과 같은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일 처리가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는 선린촌 현재의 모습을 담아 먼 훗날 그리워질 때 펼쳐보고 싶은 생각에 손은 자연스레 스마트폰을 찾아들고 발걸음을 멈추며 찰칵 찰칵 버튼을 눌러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나는 마을큐레이터 주제로 선린촌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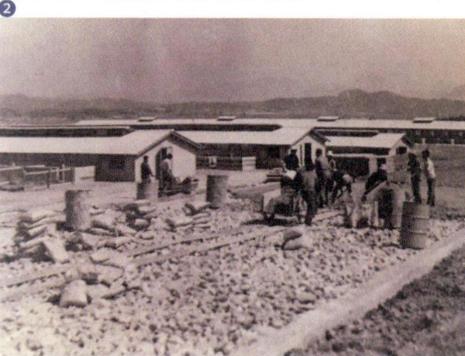


회원들과 함께 마을큐레이터 현지 답사 시간에 선린교회를 방문했을 때
에 반갑게 맞이 해주신 담임목사님은 먼저 우리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시
면서 선린촌에 대한 애정을 보이셨다. 그리고 선린촌과 선린교회에 대하
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선린촌은 함경도에 거주하시다가 한국전쟁으로 인해 친지들 교
우들과 남하하신 최문환 목사를 중심으로 세워진 마을이라 하셨다. 경
남 동래군 낙동강 강변의 갈대밭을 개간하면서 피난 생활을 하던 이들은
공동체로서의 이상촌을 구상하게 되었고, 전쟁이 끝나고 1954년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길리(현재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서 국유지 배 받음 불하
받아 10세대로 제1선린촌을 형성하였으며, 전쟁으로 폐허가 된 황무지
땅을 일구어 원예와 양계를 하였다. 그러나 점점 도시팽창에 따른 도시
계획으로 이주가 불가피하게 되어, 지금의 이곳 광주군 동부면 천현리에
대지 3만평을 구입하여 제1선린촌 9세대와 신회원 15세대를 시작으로
제2선린촌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제2선린촌에는 1968년 최문환 목사를 비롯한 성도 40여명이 선
린교회를 세웠는데 마을 회관이자 예배처소로 사용되었다. 마을 사람들
은 각자 땅을 사면서 십 분의 일을 기부하였고, 그 땅으로 교회, 신협, 공
판장, 도로 등을 만들었다. 마을 운영위원들이 강령을 만들어 공동체를
엄격히 관리하였고, 강령에 담긴 기독교적인 형제애와 봉사의 정신을 바
탕으로 주일이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마을 공동체를 일구었다 한다.

- ① 선린촌에 대해 설명하시는
선린교회 담임목사님
- ② 선린촌 양계축사의 건설 모습
- ③ 초창기 여신도 회원들



선린촌의 주산업은 양계사업이었는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을 일구어 개척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옥수수, 겨, 풀을 섞어서 만드는 사료의 확보도 어려운 일이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닭 100여 마리로 시작하여 3000마리 이상 사육을 하면서 수입이 되는가 하더니 전염병 때문에 그 닭들이 전멸 당하는 수난도 겪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협동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며 점점 잘 사는 동네로 소문이 나서, 각처에서 은행장, 교수, 마을 지도자, 학교 교장들이 견학을 왔고 최문환 목사님은 농촌지도자들과 교역자들을 모아서 농촌계몽활동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협동촌에 관심이 있는 여러 학자들은 논문도 쓰는 등 선린지역으로서 모범이 되어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동네였다고 한다. 그 당시 논문에 의하면 선린촌이 협동촌으로 불리게 된 근거는 신용조합,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을 결성하였기 때문이다. 최문환 목사와 이주신 목사는 1962년 부산에서 협동교육협회 제1회 신용조합 지도자 훈련회에서 교육을 받고 1963년 처음으로 신협을 조직하였다고 한다. 최문환 목사는 신용조합을 주민간 협동정신의 재확립의 수단으로 보았으며 또한 마을의 사회적 변동과 경제적 성장의 도구나 기구로 보았으므로 그의 교회에서 신용조합에 대한 아이디어와 필요성에 대해 자주 의논했다고 한다. 조합운영에는 거의 지역주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조합을 통해 돈을 융통했다 한다. 지금의 동부선린교회 형제의집 자리가 옛날 소비조합구판장과 신용협동조합이 있었던 곳이며, 신축 건물은 그 때의 건물의 이름을 계승하였으며, 신용협동조합은 지금도 선린신협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④ 선린교회 제 1성전(1968.8 완공)

⑤ 1988년 새로이 건축한

현재의 동부선린교회모습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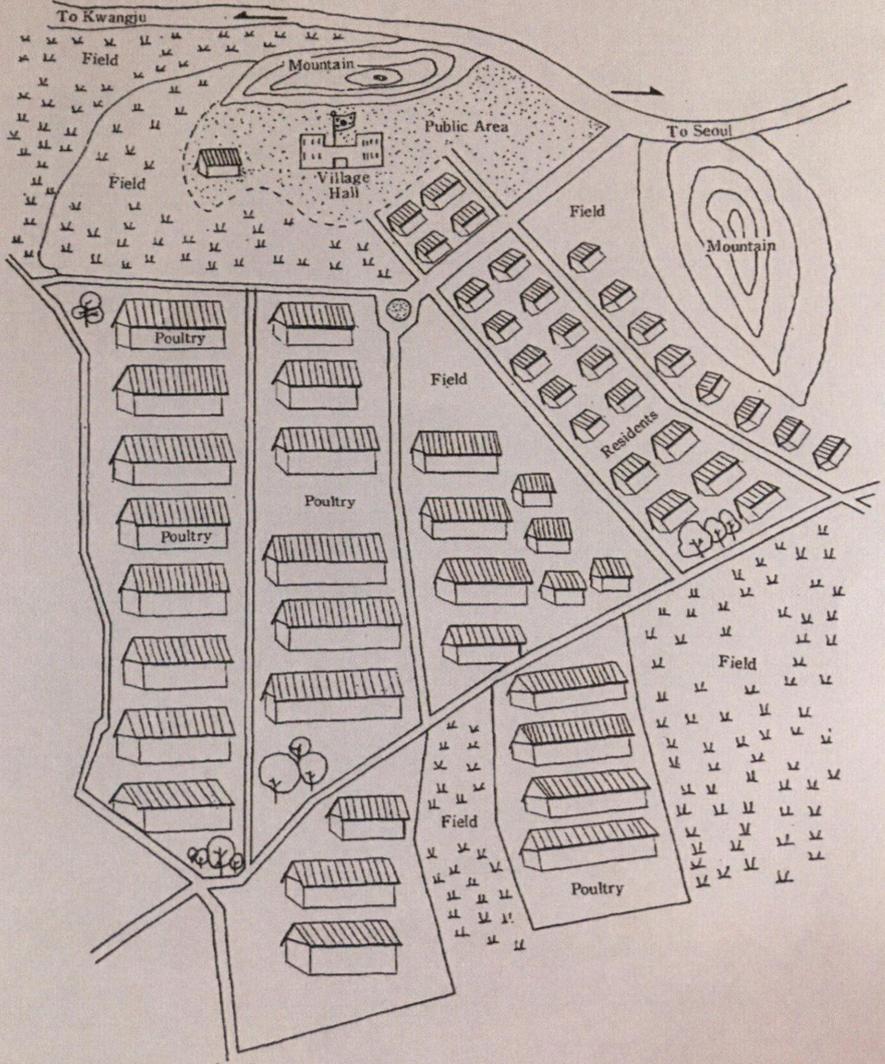
5





↑ 2019년 현재 선린촌의 지도상 모습
(구글)

Map 1. Lay-out of the Village of Sunlinchon



↑ 계사와 주택지가 분리된 선린촌의 개략도(류태영)

목사님께서 류태영 박사가 새마을 연구논문집에 기고한 논문의 선린촌 개략도를 보여주셨는데, 삼각구도형으로 그려진 그림에는 닭소리의 소음과 냄새나는 계사는 주택단지와 분리되어 있었고, 공공건물과 도로 등이 계획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체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개략도를 보면서 지금의 선린촌의 모습과 비교해 보니 50년여 년이 지나 계사와 주택단지가 소규모 공장, 창고 등으로 바뀌어도 선린교회와 그 뒷편에 있는 집 한 채와 도로는 그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집은 사람이 산 흔적이 남아 있는 선린촌의 상징이 된다고 하셨다.

또한 1966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연간 개인소득은 평균 123\$이었으나 선린촌은 이미 300\$ 이었다고 한다. 이는 서울시의 중류층 이상의 생활수준이어서 주민들 대부분이 한국일보, 코리아 헤럴드 등의 영자신문과 정기 간행물을 구독하고 거의 많은 가정이 TV를 시청하고 있었으며 상수도과 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지하수를 끌어올려 전기를 이용하는 등 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국 농업의 아버지라 불렸던 우장춘 박사의 제자였던 김성도 장로님이 씨 없는 수박을 처음으로 전수 받아 재배해서 청와대까지 납품했다는 말씀에는 나도 모르게 와~ 하는 감탄사가 나왔다. 지금도 선린교회에는 95세 되신 김성도 장로님의 부인이신 김희길 권사님이 계셔서 과거에 잘 살았다는 선린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 선린촌에서 양계 사업을 하시다가 곤지암으로 이사하셔서 양계 사업을 이어오신 80이 넘으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선린교회의 성도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업을 접으셨다고 하셨다.



이렇게 최문화 목사를 중심으로 기독교적인 가치로 잘 사는 농촌을 만들고자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설립하였지만, 농업의 축소, 지역의 변화, 공동체 구성원 자녀들의 성장, 타지역 주민들의 이주 등으로 선린촌은 더 이상 협동촌으로서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선린교회 담임목사님은 먼저 개발된 미사지구에서 100년 이상의 역사 흔적이 남아 있는 구산성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보호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자리에 아름답게 보존되었으면 하는데 까다로운 존치 요건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쉬워하시는 말씀에 나는 마음이 아팠다. 목사님은 선린촌이 신도시로 개발되어도 선린마을이라는 이름이라도 살아남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목사님은 교회 입구에 있는 선린촌 표지석을 소개해주셨는데 이는 공동체 설립시 만들어진 선린촌을 알리는 표지판이었다고 하시며, 만약 선린촌 지역 내에 공원이 들어선다면 이 표지석을 증표로 남겨놓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다. 정보에 의하면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는 훼손될 수 있는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도 진행한다고 한다. 나는 선린교회 주변에 있는 선린촌 설립과 함께 한 오래된 가로수 느티나무, 벚꽃나무들이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② 동부선린교회 앞 가로수 길

③ 동부선린교회의 작은 공원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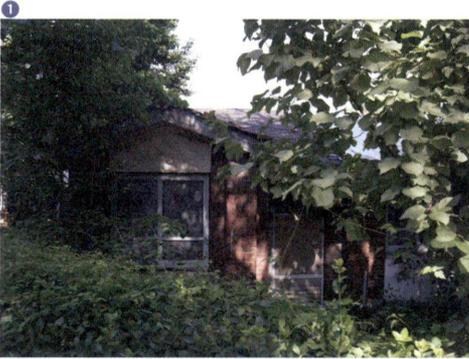


나는 무더운 날씨이지만 청량한 매미 소리를 들으며 교회를 둘러보았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뒷편에는 1968년대에 지어진 유일하게 남아 있는 주택이 있었다. 집주인이 살고 있지 않은 듯 풀숲이 우거져 주택 근처로 들어가 볼 수는 없었으나 그 당시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선린촌 주택 양식을 엿볼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형제의 집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선린교회 부속 건물로 갔다. 3층 건물인 이곳은 2층에는 아동부 예배실이 있고, 3층은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다. 건물 옥상에서 푸르른 하늘을 보면서 내려다본 선린촌의 모습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웠고 평화로웠다. 선린촌과 함께 한 시간은 행복했다.

처음 선린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은 '선린촌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까요' 하며 감탄을 한다. 나도 선린교회가 미사리 구산성지처럼 유적지가 되어 이 자리에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다.

- 1 2 현재 선린촌에 남아있는 주택 모습
- 3 교회 부속 건물 예꿈마을
- 4 옥상에서 내려다본 선린촌



5



6



7



<참고문헌>

- [1] 동부선린교회 40년의 발자취, 2008.
- [2] 류태영, Cooperative Village Sunlinchon: A type of village development from below by community itself, 새마을연구논문집, 제 2집, 1982.
- [3] 이희현, 선린 협동촌과 동막 어촌계 견학기, 1969.
- [4] 이근원, 선린 협동촌:Israel의 협동촌과 비교를 곁드려.
- [5] 동부선린교회 홈페이지(<http://dbsunlin.com>)

5-7 2019년 현재의 동부선린교회
전경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마을큐레이터 >

지역자원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축적되어진 결과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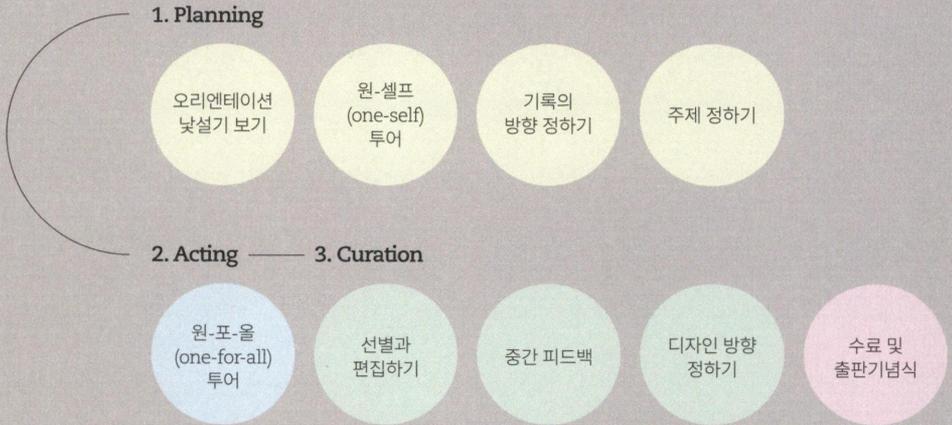
마을큐레이터는 지역의 현재(일상)를 조사하여 지역 자원(사람, 사물, 장소, 분위기, 커뮤니티 등)을 발견합니다.

발견한 지역자원을 새롭게 분류하고 재구성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특징을 만들고,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남 마을큐레이터, 3년의 시간>

하남문화원에서 올해 세 번째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2년차에 개별적으로 마을을 조사하고, 전시했던 과정들이 쌓여 올해는 ‘사적인 산책길’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강경숙, 강신숙, 박미미, 이상숙, 임경재, 장순란, 조경희 7명의 마을큐레이터는 기획부터 글쓰기, 편집까지 경험하며 익숙했던 ‘나’의 일상을 낯설게 보고,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1. Planning

1차

6.17 (월)

오리엔테이션 / 일상을 낯설게 보기
with. 박도빈(동네형들 대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3년차 과정을 소개합니다. 3년차에는 '나'의 일상과 관련지어 마을을 소개하는 것에 더 집중해보기로 했습니다.

1,2년차에는 참여자들이 조사와 기록만 했다면 올해는 편집 과정까지 참여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꺼내기 앞서 박도빈 퍼실리테이터가 지역 청년의 마을 살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을 큐레이터는 역사 자원을 소개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지역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박도빈 퍼실리테이터는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볼 수 있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일상적인 공간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연결하여 투어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원-셀프(one-self) 투어 미션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일상을 새롭고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보고 투어라는 형식을 통해 지극히 주관적인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1. 직접 투어프로그램을 기획
2. 간단한 홍보물을 만들어 참여자 모집
3. 함께 투어하기

2차

6.24 (월)

원-셀프(one-self)투어 발표하기

with. 박도빈(동네형들 대표)



각자 진행한 원-셀프 투어 진행 과정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접 모집 홍보물을 만들고, 지도에 코스를 표시하고, 가족 또는 지인들을 모집해 내가 다니는 길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원-셀프 투어를 소개하면서 각자의 이야기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부부싸움하고 답답할 때 산책하는 길, 7년을 함께했던 강아지와 다녔던 길을 몸이 아픈 환자와 다시 갔을 때 느껴지는 것들, 언니와 함께 걸으면서 도란도란 얘기했던 추억, 누구네, 누구네 내미길에 살았던 사람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남편과 함께 산책하지만 각자 서로 다른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 투어 코스를 결정한 이유에서 소소하지만 사적인 이야기들이 공유되었습니다.

지역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3차

7.1 (월)

기록의 방향 정하기



문학이 계속 읽혀지는 이유는 ‘은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화 ‘칠곡 가시나들’을 보면서 ‘나’의 이야기가 ‘시’로 표현되는 과정을 엿보았습니다.

민병은 퍼실리테이터는 당대성, 당사자성, 장소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마을 읽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 사람의 일상을 통해 읽을 수 있다.”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일상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병은 퍼실리테이터는 강상중 교수의 ‘도쿄산책’이라는 책을 추천하며 가볍게 나의 일상을 돌아보고, 일주일을 기록해보기를 권했습니다.

4차

7.15 (월)

주제 정하기



2주간 자신의 일상을 관찰하고 생각한 소재를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고민할 땐 풀리지 않은 것들이 무엇일, 왜 소개하고 싶은지 함께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주제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주제가 정해진 사람은 글의 초안을 잡아보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속도에 맞춰 주제를 정하거나 기록의 방법을 구체화 했습니다.

2. Acting

5차

원-포-올

(one for all) 투어

한 사람을 위해 모두가 떠나는 여행.

한 참여자의 제안으로 한 사람의 투어에 모두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더운 날에 진행해 땀을 뻘뻘 흘리며 다녔지만 이야기로만 들었던 길을 실제로 가보니 각자의 일상이 더 와닿았다고 했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 둘러앉아 서로 피드백을 나눴습니다. 혼자일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함께일 때 보이기도 합니다.

책자에 넣을 사진을 찍기 위해 남지우, 임형수 두 분의 사진작가가 동행했습니다.

7.22 (월)

내미길, 망월천 _ 마을큐레이터 : 강신숙, 장순란
with. 남지우 작가



↑ 강신숙을 위한 내미길 투어

↑ ↑ 장순란을 위한 망월천 투어



6차

7.29 (월)

덕풍공원 _ 마을큐레이터 : 이상숙, 조경희

with. 남지우 작가



↑ 이상숙을 위한 덕풍공원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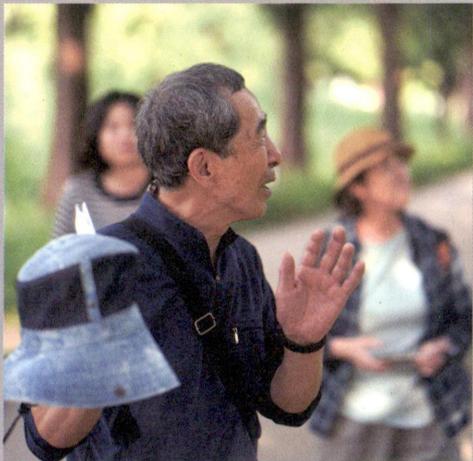


↑ 조경희를 위한 덕풍공원 투어

7차

8.26 (월)

선린교회, 창우동, 메타세콰이아길 _ 마을큐레이터 :
박미미, 강경숙, 임경재 with. 임형수 작가



↑ ↑ 박미미를 위한 선린교회 투어

↑ 강경숙을 위한 창우동 투어

↑ 임경재를 위한 메타세콰이아길 투어



3. Curation

8차

9.9 (월)
선별과 편집하기



각자 쓴 글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아주 사적인 산책길’이라는 책의 가제목을 잡았습니다. 글을 모아보니 전체적으로 ‘나’의 일상이 드러난 산책길을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전체 주제를 생각하며 각자 써 온 글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차

9.30 (월)
디자인 방향 논의하기
with. 장정은 디자이너



장정은 편집디자이너와 함께 책자를 통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참여자 각자가 쓴 글의 내용을 디자이너에게 설명하고, 편집 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독자의 입장에서 글을 한번 더 생각해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완성된 글을 교열, 교정하고, 디자인하여 출간합니다.

9차

9.23 (월)
중간 피드백

수료식

12.26 (목)
수료 및 출판기념식



▪ 마을큐레이터 3년, 그리고 새 출발

윤재민 하남문화원 담당자

2019년 6월 하남문화원에서 3년차 마을큐레이터 사업이 시작되었다. 기존 1,2년 차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모집해 진행하다보니 8명의 사람이 모였다. 지난 2년의 과정을 통해 '나'를 매개로 마을이야기를 풀어갔다면 3년차는 [사적인 산책길]이라는 주제로 '나'의 시선과 경험을 풀어냈다.

나의 산책길을 소개합니다. 강경숙

강경숙 마을큐레이터의 산책길은 생활길이다. 방문 교사인 강경숙님이 집과 일터를 오가며 느끼고, 눈에 담았던 것들을 소개한다. 줄지어진 계랑기, 나란이 선 음식물 쓰레기봉투, 동네의 사소한 풍경까지도 놓치지 않는다. 강경숙님의 동네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느껴진다. 내가 사는 동네이기도 해서 더 관심이 가기도 했다. 익숙하다고 느꼈던 그 길이 새삼 낯설고 신선하게 느껴졌다.

지도에는 없는 나의 산책길_조경희

조경희 마을큐레이터는 이사 한지 얼마 안되는 덕풍동의 신축 아파트에서부터 평소 많은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덕풍1동 주민센터를 조금 지난 선성군의 묘까지 돌아보는 코스를 소개한다. 원-포-올(one for all : 각자가 기획한 길을 모두가 같이 걷자는 참여자들의 제안을 받아 만들어진 동행 투어명이다)투어에서 무더운 여름날 조경희님 안내를 받으며 흘려 내렸던 땀이 어느새 수릿골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식혀주었던 게 생각난다. 말바위와 관련된 설화도 재미있다. 산책을 하며 지날 때 마다 생각이 날듯 하다. 계절이 여름이라 나무와 꽃 이야기가 많았다. 가을과 겨울의 산책길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하다.

늘 그녀의 산책길_장순란

장순란 마을큐레이터는 하남문화원과 인연이 깊다. 문화원과 함께 많은 일을 도모하며 문화원에서도 많이 의지 하는 분이다. 마을큐레이터 1년차부터 중심을 잘 잡아주셨다. 제목부터 센스가 넘친다. 늙은이, 늘 그니. 장순란님의 남편 분을 지칭 하는 말이다.

이 산책길은 무리 없이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좋은 풍경과 밤에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멋진 야경이 있는 도심 속의 산책길이다. 남편과 장순란님이 함께 걷지만 산책 중에 느끼는 관심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반려견 별이가 남겨준 산책길_이상숙

이상숙 마을큐레이터는 아픈 환자들과 산책길을 걸었다. 하남의 병원에서 일하는 이상숙님은 환자들과 산책하며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될 수 있음을 느꼈다. 이상숙님의 산책 코스가 특별했던 건 지금은 세상에 없는 반려견과 함께했던 길이기 때문이다. 버려진 별이를 키우면서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속내를 들어줬던 별이와의 7년간 사연이 이 산책길이 만들어진 숨겨진 이야기다. 병으로 이별한 별이의 추억 때문에 나서기 어려웠던 이 길을 별2와 함께 환자들과 걷게 되면서 별이와 편한 이별이 가능했다는 길이다. 누군가를 치유하기위한 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길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듣던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했다.

당쟁이 산책길_임경재

임경재 마을큐레이터는 참여자들 가운데 유일한 남성이었다. 그래서 처음엔 적음이 힘들시기도 했고 끝까지 함께하실까 걱정도 되었는데 다행히 마무리를 잘 지어 주셨다. 임경재님의 산책길은 하남에 스타필드가 들어오고 그 주변에 정비된 산책길이다.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이 길을 걷는다고 하신다. 어쩌면 노년기를 통과하는 남자의 외로움을 위로하는 길일지도 모른다.

천년 은행나무 고골의 노래_강신숙

강신숙 마을큐레이터는 40여년 동안 살았던 고골의 내미길을 소개한다. 마을의 이장이었던 강신숙님은 집만 봐도 누구네 집인지, 누가 살았던 집인지 모두 꿰고 계신다. 고골 역시 개발예정 지역이라 곧 사라질지 모르는 곳이다. 강신숙님의 지금 기록을 발판으로 40여년 간의 고골의 일상과 사람들이 기억되길 바란다.

선린촌을 아시나요_박미미

선린촌은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이 된 지역이다. 예전에는 양계사업과 신용협동조합의 효시가 된 곳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 설립된 교회와 양계장의 흔적만이 남아 있고 창고와 소규모 공장들이 즐비한 동네가 되었다. 큐레이터 2년차에 기록했던 흙새기 마을도 개발로 인해 동네가 텅텅 비었다. 박미미님의 마음처럼 선린촌이 개발 되더라도 그 이름과 의미는 기억되길 바란다.

3년의 여정이 끝이 났다. 마을큐레이터 사업은 3년간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하남문화원은 이후 마을큐레이터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거나 심화과정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우리 하남의 마을큐레이터 가족 분들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게 해 나아갈 수 있을듯하다. 지난 3년간 함께 해온 참여자 분들과 3년 동안 방향을 잘 잡아주고 이끌어 주셨던 민병은 선생님과 사업 담당자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오다예 연구원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 문화원과 지역주민의 연결 방식 변화

오다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담당자

하남문화원과 3년간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전역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연합회의 입장에서 한 지역의 문화원과 지속적으로 3년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남문화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관계 쌓기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던 문화원 직원들 덕분에 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험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첫째는 문화원과 지역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문화원은 시작부터 결과까지 자체적으로 세팅된 사업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모집해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양성과는 거리가있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욕망을 수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방식을 문화원이 모든 것을 기획해서 모집하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만 정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세팅했습니다.

때문에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에는 강사가 아닌 퍼실리테이터가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는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여자들의 생각에 질문을 던지고, 의미부여 하고, 피드백하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생각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는 사람이기에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게다가 단어까지 생소한 퍼실리테이터와 문화원의 관계 역시도 사업 지속성의 관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재 연구에 치중되어 있던 향토사 연구의 영역 확장이었습니다. 문화원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향토사 연구입니다. 하지만 연구의 시대적 배경이 상당수 근현대 이전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지역의 지금, 현재의 일상을 조사하는 것 역시 향토사의 영역이며 문화원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상정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일상을 조사하고, 아카이브하는 것은 향토사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애정을 가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큐레이터는 역사 전문가도, 지역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아닌 지역에 살거나 생활권을 둔 주민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남기는 것 보다 지역의 현재를 주민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남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과정에서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 ‘어슬렁거리기’, ‘나로부터 시작하기’가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주민들은 조사할 지역을 정하는 것부터 인터뷰, 매핑, 글쓰기, 편집, 전시까지 목록치 않은 과정에 팀원과의 협력이라는 무서운 과제까지 더해져 매년 너무 어렵다, 힘들다 말씀하셨지만 아침, 저녁, 새벽 계다가 날씨가 꽤 덥지 않고 조사하시는 열정에 우리를 한번 놀래 키고, 매년 90% 가까이 되는 수료에 또 한 번 놀래 컷습니다.

이러한 3년간의 실험을 하남에서 진행하면서 고무적이었던 것은 매년 사업을 마칠 때 마다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참여자들의 자발성이 크게 들어났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모두가 떠나는 원-포-올(one-for-all) 투어는 “우리 한 사람이 돌아다닐 때 우리가 다 같이 가주죠”라는 참여자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한 참여자는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사라질 삶을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본격적인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발성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이야기가 드러났던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1,2년 차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개인 일상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부분 지역을 타자화 하여 조사하기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자신의 산책길을 소개함으로써 ‘왜 그 길로 산책을 하는지’, ‘산책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왜 이 길을 소개하고 싶은지’가 드러났고, 이 같은 자신의 이야기로 지역의 장소를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문화원에서는 관계 맺은 마을큐레이터와 향후 사업들을 고민하겠지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역시도 앞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연결성을 고민하며 지역 주민이 문화원과 협력하여 지역을 소재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결국 지역은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변화됩니다. 내가 사는 동네를 관찰하고, 사소한 변화를 감지하고, 다른 곳과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에서 지역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지역에 애정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지역의 이야기를 모으고 기록하는 것,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로 지역문화원이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9 문화원과 함께하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 III

슬렁슬렁 걸어 볼래요?

하남주민들이 말하는 나의 산책길

발행일 | 2019년 12월 26일

발행인 |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발행처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http://www.kccfgg.org>

주소 |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전화 | 031-239-1020

팩스 | 031-239-3785

이메일 | kccf-kg21@hanmail.net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하남문화원

총괄 |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이상범(하남문화원 사무국장)

기획/퍼실리테이터 | 민병은

진행 | 오다예, 윤재민, 김혜연

글쓴이 | 강경숙, 강신숙, 박미미, 이상숙, 임경재, 장순란, 조경희

편집 | 민병은, 오다예

사진 | 남지우, 임형수 외

디자인 | 리피(LEAFY)

인쇄 | 완산정판

ISBN | 979-11-89046-07-1

본 책자는 2019년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책자에 실린 글과 도판을 다른 곳에 쓰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모두에게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19
문화원과 함께하는
마을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III

-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 하남문화원

03090



791189 046071

ISBN 979-11-89046-07-1

(덕동) 바깥